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전국 344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서 생활 속에 인문학을 전파하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강연과 탐방(체험)으로 이루어진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도서관-책-사람이 서로 어울려 인문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자유학년제), 직장인(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 중장년(함께 읽기, 함께 쓰기) 등 다양한 사람들과 인문독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평택을 기록하는 작업이 올해로 육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평택시가 인물백과사전의 주인공으로 선정한 분들은 평택의 배농사를 평생의 업으로 지켜오신 농부들입니다. 평택시민이라면 어린 시절 보고 자란 흐드러진 배꽃 풍경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앞선 누군가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알고 후대를 사는 이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 촘촘한 '공동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의 역사가 모여 마을의 역사가 되고,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과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일상이 모여, 지역의 역사가 됩니다.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공동체의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다가올 지역사회 변화를 수용하며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가치로운 일입니다. — 펴내는글가운데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020년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이 시행으로 진행된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결과물입니다.



평택인물백과사전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2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평택인물백과사전 2020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2

평택 기억수집가 12인 엮음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평택, 기억수집가

공명문 김예주 노윤홍 박정민
배재만 유은영 이수경 임영애
조은정 최명옥 최정은 한다희

2020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사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위원회 대표연구위원)
한정은(평택시 기록관리전문요원)
조은정(독서치유, 그림책 강사)
김미아(동화작가)
박미라(화가)
배준표(사진작가)

2020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기획

이수경(배다리운영팀장)
김정은(배다리도서관 사서)
박영선(배다리도서관 사서)

표지, 책마을해리+친친북스bookdota@naver.com
평택인물백과사전, 책마을해리가 함께합니다.

평택인물백과사전 2020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2

평택인물백과사전 2020 배농사 이야기로 꾸렸습니다.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1~4)』마을인물백과사전 사업을 평택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평택인물백과사전 2020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2

평택의 기억수집가들이 귀하게 만든 인물백과사전
우리 평택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택인물백과사전 2020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2: 평택배농사이야기

발행일 초판1쇄 2020년 11월 19일
발행처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역은이 평택 기억수집가 12인(공명문 김예주 노윤홍 박정민 배제만 유은영 이수경 임영애 윤은정 최명옥 최정은 한다희)
기획진행 이수경 김정은 박영선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도서관협회

시행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죽백6로20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ptlib.go.kr>
연락처 031 8024-5467, 5497

편집제작  <친친북스

ISBN 979-11-967906-5-3

[비매품]
이 책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 함께 쓰기 구술기록 모음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이 책에 대한 무단전제와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업안내 및 홍보 이외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어르신들의 말씀과 기억은 오롯이 어르신들의 것으로 사실 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읽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기억수집가 12인 엮음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

배꽃이 아름다운 평택의 삶을 기록하다



평택은 전국에서 드물게 매년 3%의 인구성장을 이루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의 특성상 평택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로의 발전이 지난 삶과의 단절이 되지 않도록, 평택의 과거와 현재를 일구어온 시민들의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평택을 기록하는 작업이 올해로 육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평택시가 인물백과사전의 주인공으로 선정한 분들은 평택의 배농사를 평생의 업으로 지켜오신 농부들입니다. 평택시민이라면 어린 시절 보고 자란 흐드러진 배꽃 풍경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앞선 누군가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알고 후대를 사는 이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 촘촘한 ‘공동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의 역사가 모여 마을의 역사가 되고,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과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일상이 모여, 지역의 역사가 됩니다.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주

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공동체의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다가올 지역사회 변화를 수용하며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가치로운 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2』를 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애정을 갖고 들어주신 평택 어르신들과 기억수집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펜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무너지지 않았음을 이한 권의 소중한 책이 증거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룬 2020년의 성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록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성심껏 지도해주신 김해규 선생님, 한정은 선생님, 조은정 선생님, 김미아 선생님, 박미라 선생님, 배준표 선생님 그리고 역사기록에 있어 구술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신 정혜경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0년 11월 평택시장 정장선

- 004** 발간사 “배꽃이 아름다운 평택의 삶을 기록하다”_ 정장선 평택시장
- 009** 평택인물백과사전
- 010** 장태숙, 이정숙 한 배짱하는 정숙과 착하디 착한 태숙의 인생이야기
- 038** 김종연 배농사, 목장사...정말 일 많이 했다
- 057** 김현수 고마운 사람과 함께 한 배농사 이야기
- 076** 이동재 백번을 만져서 배



- 103** 내 인생의 한 장면
- 104** 강봉택 아이와 함께 한 하나고 3년
- 109** 구은미 나로 산다는 것
- 113** 김학신 끝은 추억이런가
- 118** 남기순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외
- 122** 노윤홍 다듬이 소리
- 127** 안도향 그때의 나는
- 131** 안미자 절도범이라구요?
- 136** 임창욱 둘째 언니
- 141** 조남희 비에 젖다
- 148** 최필선 기억 속 풍경
- 156** 최혜경 나의 황금기 외
- 161** 홍순경 그때 그 선생님
- 167** 평택을 기록하며
이수경 168 | 조은정 171 | 김예주 172 | 배재만 174
유은영 176 | 임영애 178 | 최명옥 180 | 최정은 182 | 한다희 186
- 189** 부록자료
- 190**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일정
- 198** 강의자료(김해규) 평택 배농사 이야기 | 죽백동과 청룡동 이야기
- 223** 강의자료(정혜경) 구술의 특성과 이해



2020
평택인물
백과사전

한 배짱하는 정숙과 착하디 착한 태숙의 인생이야기

장태숙·이정숙



- 구술자 장태숙(1938년생), 이정숙(1937년생)
- 구술일 2020. 08. 26
- 주소 평택시 청룡길
- 면담자 유은영, 최명옥, 최정은
- 면담장소 자택

이정숙 님



오빠가 나만 공부를 시켰는데...

37년생이유. 2월 6일 태어났고 공도에 살다가, 공도국민학교 다니다가 양성 가래울 취조리(추조리)로 이사를 갔지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농사지었지, 딸만 넷이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원래 제일 위로 오빠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데도 그 오빠가 배나무 전지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를 학교에 넣었어요. 나만 공부시킨다고. 언니는 못 다녔지. 야학 다녔어. 왜정 때 일 년을 다녔어요. 그러다 해방이 돼서 새로 삼년을 공도국민학교를 다녔지. 근데 내가 입이 짧아서 밥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쌀 한말을 이고 친척집에 보냈어요. 거기서 여러 식구 있는데 딸려서 먹으라고.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어.

조금 있다가 밥 잘 먹으니까 다시 왔지. 거기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데 쌀 한말 이구 간 거 뭐 있어? 옛날엔 흥년이 맨날 들고 그러니까 콩을 잔뜩 넣은 콩밥하고 시래기 죽 먹었지. 시래기 잔뜩 넣고서는 죽을 쑤면, 아휴~ 시래기만 잔뜩 넣고 쌀을 조금 넣으니 그냥 뜨겁기는

하지. 수수풀이니 뭐. 그냥 사가루(?) 밀풀이니 그런 건 다 괜찮은데 난 씨락죽은 정말 먹기 싫어. 그러다 열세 살에 6·25사변이 났는데, 자고 나니까 그냥 인민군들이 수복하게 왔더라고. 대포가 그냥 뚫어지는 거 같아. 총 쏘고 무서웠지. 인민군들이 와서 밥 해달라면 밥 해 주고 그랬지. 우리한테 나쁘게 하지는 않았어요. 우린 피난도 안 갔어.

내가 박박 우겨서 양재학원을 갔어

맨 위로 오빠가 계셨는데 신경쇠약으로 돌아가셨어요. 장가까지 들고 아들도 낳았었는데 개도 내가 업어 기르느라 고생했지. 이름이 옥규야. 근데 개도 흥역하다가 죽었어요.

올케는 폐병이 걸렸구나 봐. 그래서 올케도 죽고 집안이 망한 거지 뭐야. 오죽했으면 우리 친정 아버지가 남부끄러워 나가지도 못하겠다고 그리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다 취조리라는 마을로 이사 와서 양재학원에 다녔어요. 열여덟 살에 이사 와 가지고 열아홉 살에 다녔나 봐. 돈 내고 댕기는 거라 친정에서 못 댕기게 하는데, 내가 댕기고 싶어서 댕긴다고 우겼지. 못 댕기게 하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고 박박 우겼어. 거기도 큰 학원은 아니고 동네에서 조그맣게 하는 건데, 거긴 그래도 꽤 컸어. 댕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땐 양복도 귀할 때지. 나는 교복, 학생복. 그거 만들었어. 그래도 서울 가서 양복점에도 댕겼어요. 내가 시다바리를 한 거지 뭐야. 나중에 결혼하고 미산리에서 양재학원 선생 노릇도 하고, 몇 명

은 안 되지만. 남편 군인 가고 친정에 있는데 우리가 성당에 다녔으니까 거기 사람들을 알잖아. 그래서 “여기 좀 와서 선생 노릇 좀 해라”해서 애가 세 살 먹었을 때 데리고 간 거지. 그래서 선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곡으로 오라고 해서 전곡으로 갔지. 한해 더 할 건데. 그래도 한해 졸업생은 마쳤어요. 국민학교 3학년 댕겼어도 양재학원 가서 한문으로 읽고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했어. 옷 모양(옷본) 같은 거 다 그렸어요.

학교당길 때 소풍가는 게 아-주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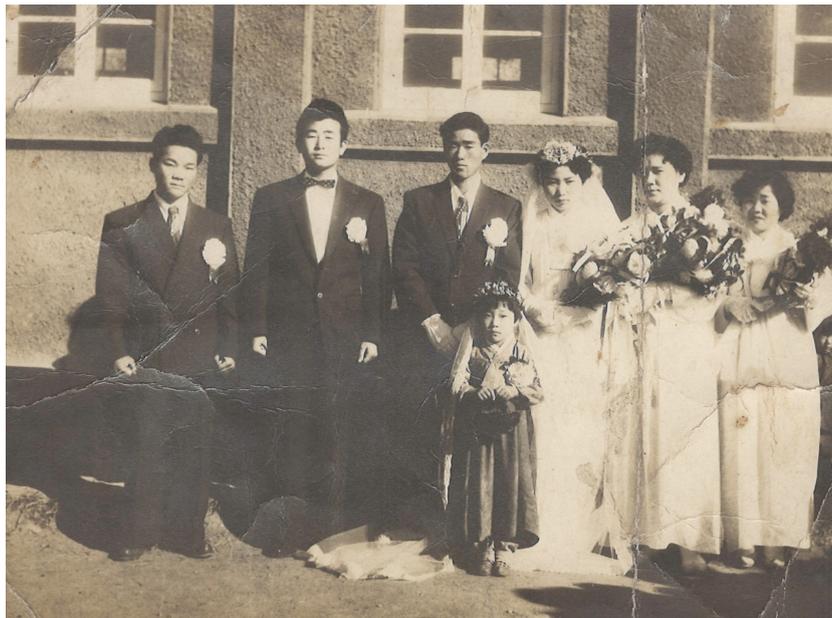
초등학교는 원래 늦게 들어갔어요. ‘왜정’ 때라 아홉 살에 들어갔어 유. 입학을 늦게 했으니 늦게 졸업한거지. 죽백초등학교를 아직 안 지어서 학교두 없어서 원곡초등학교 뒤 창고에서 공부했걸랑요. 소풍을 무양성¹⁾ 절이라는 데루 갔는데 지금은 무슨 절이더라 거기까? 서재, 반제리는 아니고 양성면 쪽으루 갔는데, 거기 산 하나만 넘어서면 절이 있었걸랑요. 절로 소풍을 갔죠. 아-주 좋아했죠. 김밥도 싸가고 계란, 밥 같은 거 싸가고 그런거지요. 우리 형제는 사형제여. 그중 난 둘째지. 어려서 성당에 한 시간 동안 걸어서 다니기도 했고 그 즈음에 한문서당두 다녔지유. 월곡동허구 지문리 두 군데 다녔어요. 3년 댕겼구나. 새말(?) 댕기구 그랬어요. 한문은 저기니까. 여기도 댕기구 저기

1) 무양성無陽城: 안성 양성면 방신리에 있는 토성, 1986년에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 무한성으로도 불림.

도 땡기구. 그때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 배웠지. 한문서당에 많이들 땡겼지. 아무케두 배운 게 틀리지유. 지금은 서당에서 배운 건 생각 안나유. 그저 양심적으로 사는 게 제일이지유.

나도 배짱이야. 고추장만 딱~

남편은 중매로 만났어요. 우리 집이 천주교인데 대모라는 분이, 내가 서울서 있다가 내려 와서 집에서 양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갖다 팔았는데 그분 남편이 도박을 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밑천을 다 찢라 먹은 거지. 그리고는 시집을 가라는 거야. 자기 고종사촌 동생이라나 뭐라나.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좋게 말



결혼사진

을 해가지구, 노인네가 옛날 노인네라 어수룩해서 훌쩍 반해 가지고 난 싫다는데 약착같이 가라는 거여. 나보다 나이가 한살 들먹었다고 내가 싫다고 했거든. 난 약해서 농촌으로 시집 안 보낸대더니 농촌으로 보낸 거지 뭐여. 형편이 괜찮았다고 했어요. 와 보니까 논도 좋은 거 있고 집도 괜찮더라고, 이 동네에서 빠지지 않더라구.

(할아버지) “동네에서 미녀 들어왔다고 했어요.”

처음에 시집 와서는 힘들지 않았어요. 큰 아주버님은 서울로 세간나고, 시동생이 둘이 있는데 시동생들이 착해서 물도 저다 주고 힘든 거 몰랐어요. 우리 막내 시동생이 물을 잘 저다 줬어요. 그전에 뭘 나무가 있겠어. 청솔개비 때면 그거 불 때 주고. 난 뭘 일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시동생들이 물도 다 저다 주고 청솔개비 때 주고. 그러다 인저 우리 할아버지 군인 가고. 우리 아버님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집만 팔아서 평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집도 처음에 평택극장 뒤에다가 꽤 큰 거 샀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는 인천 가서 생선도 떠어다 팔고 그런 보따리 장사를 하셨어요. 우리 큰아들이 세 살인가 두 살 먹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아주 손자가 웃고 놀면 좋다고 가서 놀아주고, 울면 얼른 도망가시는 거여. 그러니 나는 애를 업고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버님이 음식 타박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국 끓이면 찌개도 해야 돼. 나는 국 끓이면 찌



시부모님 회갑연

개를 안 하고 찌개를 끓이면 국을 안 끓이고 그러는데, 꼭 두 가지를 안 하면 안했다고 야단치시는 거야. 나중에는 화딱지가 나지 뭐여. 내가 이집에서 그냥 못살면 그만이다. 우리 아버님 점심상을 들어가는데 고추장만 한 가지 냈어. 나도 배짱이야. 나 이집서 쫓겨나면 그만이다. 고추장만 딱 한 가지 냈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하고 물 말아서 밥한 그릇을 다 잡셨어. 그 후로는 아무 소리 안 해. 반찬 타박 안 해.

그러다가 남편이 전곡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휴가를 와서는 거기 가서 군복 수리를 하면 좋다고. 그때는 군대 생활 길게 했어. 그래서 시집을 때 해 준 금가락지 팔아서 전셋집 얻어서 살았지. 거기

가서 우리 할아버지는 군인이고 나는 군복 수리했어요. 별 재미 못 봤어. 그래도 전곡서 안성식당이라고 써 가지고 식당도 하고 쌀가게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재미는 못 봤어요. 그러다가 셋째까지 낳고 고향으로 왔지.

농사 지러 와서 고생 직살 나게 한 거지 뭐여

우리 시댁이 평택에다 꽤 큰집을 사서 이사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무슨 계를 해가지고 기냥 앞 번호를 타 먹은 사람들이 돈을 안내니까 급전을 얻어서 다 댔어.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망했겠어요. 쫓딱 망한 거여. 나중에 전곡서 있는데 와서 농사 지레는 거여. 농사를 지레니 집이 있어, 뭐가 있어. 남의 문간방 얻어 가지고서는 살았지. 세는 무슨 거 저지, 그냥 문간방 빌려 준거지. 근데 그 문간방이 그냥 흙 담벼락, 흙 부뚜막이야. 농사일을 하면, 모를 심으면 밥을 해 나가야잖아요? 그러니 어서(어디서) 해여. 그러니 안집에 가서 신세를 지는 거여. 그럼 눈치가 보이고 그냥 미안해고. 또 우리 작은집이 여기 오막 집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밥을 하든 기냥 작은어머님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신세를 지느냐고 그냥 막 투덜투덜 그러는 거여. 그래 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집을 판다고 그러니까, 우리더러 아홉 가마에 외상으로 사라는 거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아홉 가마 외상으로 사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까짓 집 사야 도로 집 걱정할거니까 사지 말고 가운데 집에 행랑방을 얻어 준데. 거기 와서

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집 장만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안 올 테니까 그거 외상으로 안사면 난 친정 간다고 그랬어. 배짱, 내 배짱 못 따라와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외상으로 그거를 산거야. 그냥 내가 배 밭에 일 하러 다니고, 흥년이 들어서 그냥 마냥모라고 제철보다 늦게 내는 모심고. 그때는 장래쌀(장리쌀)²을 닷 말만 얻을래도 안 줘. 흥년들어 못 받아먹는다고. 그랬는데 진모 아버지라는 이가 왔어요. 그때는 장래도 비쌌어. 닷 되 장래여. 한말을 주면 닷 되를 보태 줘야 돼. 한말을 주면 한말 닷 되를 갚아야 돼. 그렇게 해서 장래쌀을 갓고, 배 밭에 품 팔러 다니고. 농사 지러 와서 고생 직살나게 한거지 뭐여. 아유! 말도 마유.

내가 신용은 끝내줘요

그러다가 동네 사람덜이 그냥 십만 원짜리 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우덜끼리 모아서 10만 원짜리 계를, 나더러 계장을 보라고 그래서, 난 계장기도 없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빌려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방석엄마라는 이가 빌려 왔더라고. 그래서 10만 원짜리 계를 몇 번을 했어요. 계를 해서 이자 놀이를 한 거지. 옛날에는 돈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있지 아침에 우리 집으로다 돈 꾸러 와. 부잣집들도 나한테 돈을 갖다 맡기는 거야. 놔 달라고. 내가 신용은 끝내줘요.

2) 장리長利쌀 예전에 장리로 빌려주거나, 꾸는 쌀을 이르던 말.

조금씩 10만원씩 20만원씩 그렇게 놓으면 내가 얻을 때는 싸게 얻고 이자를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난 돈이 주머니에서 안 떨어졌었어요.

인제 집을 지을래도 터가 없는데, 이 집 터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는데 이거를 사라는 거. 자기네 값을 돈 있는 걸 다 제하구서는 나머지는 나중에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걸 샀어요. 그냥 조금 살다가 주택 자금 얻어서 집을 지었더니 이력저력해서 빚이 또 많아졌어요. 집 짓느라고 빚을 졌는데 가을 되니까 빚쟁이가 돈 못 받을까봐 와서 난리 법석을 치는 거잖아. 그래서 아유~ 없어서 돈을 얻은 거니까, 차차 값을 테니 그렇게 족치지 말라고. 이 양반은 그냥 못 배겨서 사흘을 잠을 못 자더니 입이 다 부르트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연구를 해보자고 그랬더니 “연구는 무슨 얼어 죽을 연구냐고”, “집을 팔고 조그만 집이나 하나 사”, “집을 팔면 어디 가서 살어? 어디 가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가지고서는 사흘을 내가 생각을 했지. 그랬더니 쌀 50가마짜리 계를 하면 괜찮을 거 같더라고. 50가마 계는 크지요. 계를 하자고 하니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빚은 잔뜩 지고 남부끄러운데 어디 가서 무슨 계 들으라는 말을 하느냐고 난 못한다고.” 그래서 계 들을 사람 내가 다 말해 봤으니까. 그전엔 50가마짜리 계는 계장을 남자들이 했거든. 그래서 이양반이 계장을 해서, 아 50가마를 타니까 30가마 빚다 갓고 20가마는 도리어 빚을 났잖아. 아유 말 말아요, 내 배짱은.

동네서 울면서 댕겼대 이 양반이

시집살이 힘들어도 뭐 저이가 시켰나? 어떨 때는 엉터리 소리도 잘 해요. 그래도 나 아플 때, 빈센트 병원에서 열하루를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 죽을 걸로 아는 거지 뭐여. 아무것도 안 먹이구 그러니까 동네서 울면서 댕겼대 이양반이. 맞지 않아도 옛날에는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애를 넷씩이나 낳고. 정이 들어서 그래도 그냥 사는 거지. 저 양반은 착해요. 노인네가 착해요. 인정이 있어 인정이. 저이는 착하다고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도 아유 답답했던 적 많아. 밤 새워가지고 화투질해서 숙 썩이기도 하고. 아유 돈 아무께도 내 버렸지, 큰 돈은 안 내버렸나 봐요. 스물두 살에 시집와서 지금 여든네 살이니 육십에 2년을 더 살았는데. 오래도 살았지. 아유~ 팔자려니 하고 사는 거지 뭐.

제일 맏이가 아들인데 그 다음에 딸 둘 낳고 또 아들 하나. 큰아들놈은 지금 천안서 마트 하는데, 아주 개는 때가 안 묻었어. 아주 순진하고 착해. 작은 아들은 현대자동차 부품 대리점 사장해요. 어려서는 그렇게 공부 안하는 놈들이 없어요! 우리 아들놈 두 놈들이 다. 부잣집이 과외를 시키잖아? 그러면 거기다 돈을 좀 더 줄 테니 우리 아들도 좀 해달라고, 없는 형편에도 공부를 시킬려고 내가 그렇게 했어. 근데 아유 그냥 우리 큰아들은 공부하라면 하기가 싫어서 맨날 오줌만 누러 가는 거. 작은놈도, 아주 우리 작은 아들놈은 말도 못해. 수단이 좋고 여기 죽백초등학교에서 전체 반장하고, 교장선생님도 장주사



큰딸 중학교 졸업 기념



작은아들 중학교 졸업 기념

이리 와 담화 좀 하자 그러고. 지가 또 공부도 안하는 게 나머지 공부 가리치고. 그러다 고등학교 갈 때 평고를 시험 보라고 했지. 다니던 중학교에서 다른 고등학교 가라고 피시더라는거여. 그러더니 엄마, 내가 곤란하니까 마지막 날 와서 원서를 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평고 입학원서를 써달라니까 선생이 하는 말이, 애는 원서 넣자마자 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세상에 내가 아무리 춘여편네래도 '시험은 봐야 떨어지던지 할 거 아냐? 어떻게 시험도 안 보고 떨어져?' 그래도 평고는 붙었죠. 그때는 공부는 잘했는데.

세 살에 죽으나 여든에 죽으나 한번 죽기는 마찬가지

내가 삼십한 오세쯤 됐는데 영 그냥 속이 아프구 일하기 싫을 정도

로 아프고 일도 못하겠더라구. 남의 집에 가서 누워 있다가, 음식이나 얻어 먹구. 그냥 맨날 앓고 그런다고, 아프다는 것두 염체가 있으라고 이 양반이 야단이고, 애들도 “엄마는 왜 맨날 아프냐구 병원에 가보라구” 그래서 내 병은 이런데서 못 알으켜 낸다구 그러니까, 왜 못 알으켜내냐구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더니 나중에는 그냥 아주 죽을 지경이 된 거여. 그래가지구서는 허의사 부인이라구 그 사람을 불러서 응급 치료 하구서는 그냥 택시를 불러 타구서는 빈센트병원으로 간 거야. 그때는 돈도 없는데도 어떡해 급하니까 택시를 대절해서 빈센트병원으루 갔는데, 열하루를 아무것도 안 먹이는 거여, 주사만 놓구. 진찰결과가 안 나와서 그냥 내가 속으로 ‘아휴! 내가 이제 죽을병이 들었나보다. 아휴! 세 살에 죽으나 여든에 죽으나 한번 죽기는 마찬가지다. 한가지, 자식들을 사남매를 두고 죽는 게 그게 안됐는데. 그보다 더 어린 것두 두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할 수 있어?’ 그러구 있었어요.

그랬는데 열하루 만에 외국 의사가 배를 만지더니, 그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살이 없잖아. 그러니까 염증이 만져졌지. 그게 만져져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외국말로 뭐라고 지껄이더니 담당의사가 나를 부르더라고. 나더러 이게 대장염증인데 결핵성 아니면 암이다 이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처음에 결핵성으로 다스려보자 이러더라고. 그래 결핵성 약을 먹은 거지 뭐야. 그걸로 다스려 봤더니 그거였지 뭐야. 암이 아니어서 살은 거야. 약을 일년 반을 먹었어요. 그 시절에는 폐결핵은 정부에서 약을 주는데 대장염증은 이게 전염이 안 된다고 약 안줘서

사먹었어요. 약을 꾸준히 먹었어요. 주사를 쏘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미리 야단이지. 나는 이까짓 거 맞아서 죽어?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서 그이들이 편하고 좋다는 거야.

시방 죽어두 내 한이 없어유

아파서 처음에 진찰하러 갔는데 죽게 생겨서 그냥 갔더니 사진을 찍으니까 간이 이렇게 부었더라. 못 배겨서. 간도 부었나 봐.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병인지 모르니까 그냥 조사만 하는 거야. 부인병인줄 알고 조사하고, 뭐하고. 서울로 가서 또 간 검사한다고 사진 찍어 오고. 이제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작은딸이 수영장을 다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려. 아유! 다리가 저게 뭐냐구. 늦젓갈 같다고 나중에 걸음도 못 걷는다고 자꾸 걸으라구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제 수영장 고만 두고 걷기 시작한 거야. 그때가 거진 70대 되는 거지 뭐. 인제 동네서 걸으면 그냥 몇 키로나 가? 십키로도 못 가고 갔다오면 힘들어서 앓는 거여. 그 이튿날 또 가구 또 가구. 나중에 저 고성산에 가보자구 갔는데, 기운이 없구, 그냥 못 걸겠으니까, 남들 다기는 길, 고 옆에



서 드러누웠는 거여 힘들어서. 난 좀 쉬어서 가야 된다고. 그럼 막 야 단쳐유. 못 가겠음 그만두지 왜 나와 가지구서는 남들 있는데서 그러느냐구 구박을 맞아가면서도 그냥 걸었어. 그냥 죽기 살기 기를 쓰구 걸었더니 지금은 그냥 암만 고바위, 배웅산이구 고성산이구 가도 쫓다 가질 않어유. 지금은 이제 비탈에도 막 뛰어 내리는 거예요. 다리가 가늘어도 근육이 생겼어. 매일 걷고 운동을 매일 해. 발차기 하고 근력 운동 하지 또 허리운동도 하고, 난 매일 운동하니까 힘이 생겨 가지고 오늘두 쇠스랑으로 땅을 파 가지구 미리 먹을 무 심었어유. 내가! 오늘 아침에. 식전에 일찍 일어나서 고추 쪼 꼭지 따서 쓸어 넣구. 오히려 그전보다 체력이 좋아졌어. 그때 그 사남매를 두고 죽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죽어도, 그래서 내가 시방 아파두 시방 죽어두 내 한이 없어유.

근데 지금은 고성산에 갈래두 우리 아저씨가 못 걸어서 못 가. 허리 아프다구 견질 못하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뛰어다녀야 쫓아 댕겼거든 지금은 나를 못 쫓아와요. 뛰어두 세상없어도 못 쫓아와. 아이구 걸음도 못 걷구 그냥 맨날 넘어진다는 거여. 동네 사람들이 아유 아저씨 넘어졌다구. 그래가지구서는 어떡해 큰일 났지 뭐여. 다리 힘을 길러야지. 그래서 내가 걷는 걸 하자구 했지. 내가 쫓아가야지, 혼자 가면 안 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왼쪽 쪽으로 그냥 저 냇갈둑으로해서 걷는 거여.

그랬더니 그전보다 많이 잘 걸어요. 아주 못 걸었어. 오죽하면 운동

하는 사람이 그려. “아니 할아버지 아주 못 견디니 지금은 잘 걸으시네 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 텔레비전만 보구 .

어떻게 소만 귀신같이 죽었지유

6·25때 전쟁에 대한 기억은 그때 나이가 열세, 열네 살 쯤 됐나봐 유. 칠곡리 저수지라구 있걸랑요. 전쟁했던 인민군들 쫓겨갈 적에 거기까정 탱크가 내려오다가 거기서 미군한테 폭격 맞아가지구. 칠곡리 래는데 거기 탱크가 폭격 맞았다고 그래서 갔걸랑요. 어려서 저기 바퀴에 동그란 다마 있거덩, 그거 뺏다구시리 다마치기 한다고. 어려서 엿바퀴 먹는 게 아니여, 그거 따먹기 한다구 그것두 빼오고 그랬어요. 피란은 안 갔어요. 우리는 저기 청룡말루 한번 피난민이 왜래 왔지요. 성환쪽으루다가, 거기 탄약고가 있었걸랑. 피난민덜이 뛰어 짐을 싣구시리 소를 끌구 청룡말로 들어왔걸랑. 탄약고를 보구시리 탄약고에서 무기실कु 들어온 줄 알구 그냥 동네루다 포를 쏘지 뭐여. 집 몇 채가 부서지고, 내빼고 그때 되게 무서웠지요. 그래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끌고 들어간 소만 귀신같이 그렇게 맞아가지구 죽었지유. 그래두 사람은 안 죽었어유. 전쟁할 적에 참 먹을 게 없어서 그게 고생이었지. 전쟁이어도 먹구 살아야 되니까 농사는 지었쥬. 일본 놈들 적에는 공출한다구시리 쪼 뺏어갔어두 인민군들은 못되게 안 굴어서 안 뺏어갔지.

장태숙 님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내뽐져 뒀어요

내가 태어난 해가 1938년 정월 스무이튿날인데, 안식구는 동짓달 스무엿새날이니까 애맨살을 먹은거지. 내가 한 살 어리다고 결혼 안한다고 했대유. 살다보니 애덜 엄마는 아퍼서 무지 고생했는데 나는 별다르게 아픈 줄 몰랐어요.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처음으로 첫아들을 봤는데 뭐, 그땐 귀여운 것두 몰르구 그래요. 둘째는 딸을 낳았지 처음엔 아들 낳고 딸 둘 낳고, 막내 아들, 그 높은 수단이 좋아요. 제 엄마 닳아서 수단이 좋더라구. 딸들은 지 엄마 안 닳았어요. 생각해 보면 애들 엄마가 잘했다 싶을 때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요.



난 신경 그렇게 안 써요. 그때 주택자금을 빚 얻어서 썼을 적에 그느 무걸 못 갚아 가지구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언제 갚을 거냐구 독촉할 때 그럴 때 얼른 갚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삼일 밤을 잠을 못 잤더니 입이 다 부르텨어유. 그래두. 그냥 내뽐져 뒀어유.

스물두 살에 결혼하구 난 다음에 군대는 1년 좀 있다 갔나 봐요. 원래 군대 생활은 처음에 전곡에 있는 고사포부대에서 시작했구요. 전곡으로 가가지구 1년 있다가 안사람이 양성 미리내라는 데서 양재학원을 하구 있는데 내가 전곡으로 오라구 했지. '안사람이 재봉을 할 줄 알으니까 군복수리하면 돈 좀 벌을 거 같다'생각이 들길래. 고사포부대 그리루 오라구 그랬지. 거기서 2년 있다가는 그 부대가 없어졌걸랑요. 안사람은 거기서 군복도 수리하구 사람 두구 안성식당이라는 중국집도 하구 쌀가게도 했어유. 나는 처음에 군단 사령부루다가 가가지구서는 8사단으루 임관이 되가지구서리 사단사령부에서 체대를 한거지, 거진 5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나 봐.

어유 대견해대유. 여기는 배 고장이잖아유

땅이 2,000평 있었지. 논농사만 짓고 밭이 아예 없었어요. 반찬거리 는 동네사람들 남는 땅, 밭을 좀 얻어서 한 귀퉁이에서 먹고 살 만큼만 지어먹었지. 청룡동이 원래 배농사를 짓는 동네라 배 밭이 많으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봐가면서 처음에 했구여. 안식구가 배 밭에 일 다니면서 배우기두 하구. 신고(배품종)는 조금 늦어서 추석 때 못 보걸

랑요. 신고가 나온 지 얼마 안돼요. 신고를 내가 심을적에, 그때 한참 신고 심을 적이 걸랑요. 신고가 개량종이고 처음엔 ‘장십랑’이라는 거 하구 ‘이마무라’, 늦은 배, 그거밖에 없었걸랑요. 장십랑들 가지구 가서 명절 쉼라구 장십랑 한 차씩 신고 그러걸랑요. 남들 돈들 한 보따리씩 가져오구 그러는데, 우리는 논농사만 지었으니 명절 때 뭐 돈 한 푼 써봐유? 뭘 해유? 그 때 장십랑 배농사 짓는 사람들은 돈을 잘 썼걸랑. 신고를 심은 지 한 5년 됐는데 배가 펍 굶더라구유. 그전부터 난 신고만 심었구, 배 밭 꾸며서 5년 됐는데 굶은 것만 골라가지구 30짜 따가지고 왔나 봐유. 저 큰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그 전부 텀 장십랑이 걸랑 심었지유. 옛날에는 그걸루다가덜 팔아서 명절 지내고 돈 잘 썼걸랑. 내가 인제 배 밭 꾸며서 신고 심구시리 한 5년 있다가는 처음에 30짜 인가 가져갔는데 장십랑 그 까짓것 한 차 가져간 돈만큼 받아왔지 뭐예유. 어유 대견해대유. 장십랑 그까짓 거 우리는 한 다섯 배를 더 받았을 거예유. 신고가 그때 귀했걸랑유. 알아줬지유. 여기는 또 배 고장이니까 사람들이 신고가 좋다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결정해서 신고를 심은 거지유. 여기는 배고장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땐 참 좋은 시절이었쥬

배농사를 애들이 이전 국민학교 들어갔을 적에 시작해 가지구 중학교 다닐 무렵부터 수확을 시작했지유. 지금 큰애가 예순세 살 막내가 된다섯 살이니까 여덟 살 차이네요. 사람 불러서 서울 가락동 시장으

루 용달 한 번 갔다오면 지금으루 말하면 한 돈 10만원 줘야 할 거예유. 거기서 팔면 내 통장으루다가 입금이 돼유. 가락동 시장에 가면은 가락동 과일이 다 들어와요.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직판장 같은데 경매 받아서 거기서 팔아서 내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일 년마다 가서 넘기고 했어유. 풍작을 이루면 몇 번을 가기도 했지유. 한가할 적에 바쁜 거 끝나구 나쁜, 그전에는 개인집 저 사랑방이라구 개인집에서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을 회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놀아요. 그 전엔 화톳들두 하구 그래요. 그냥 저기 민화투 했지유. 내기를 해야 재미있으니께 잔전푼 걸고 짜장면 내기를 해서 배달시켜서 먹구 했쥬. 그래도 크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유. 난 어찌다 밤새워는 놀아두 큰 돈은 안 없었어유.

가장구끼리 요렇게 입맞춤해 주지유

배농사는 저지유. 겨울께는 전부 준비해 놓고, 봄에는 인저 배나무 전지해 놓구, 꽃피구 그래머는 꽃 수정두 붙이구 그러걸랑요. 여름에는 꽃끼리 요렇게 짝구 그랬어유. 처음에는 저기 배의 탄꽃이 있어요. 수정시키는 꽃이 같은 꽃이 아니라 탄 꽃이 있어유. 수정시키는 꽃이 뭐냐? 이마무라 그런 거 꽃으루다가 갖다 붙이면 수정이 잘 되걸랑요. 신고끼리 놔두면 수정이 잘 안돼요. 지금두 수정시켜요. 100그루 중 이마무라 한 나무, 장십랑두 심어서는 그 꽃두 째라서 수정해구 그래유. 가장구끼리 요렇게 입맞춤해 주지유. 그냥 가장구루다가 갖다 요

렁요렁 흔들어 주면 꽃가루가 떨어져서 수정이 되는 거지유. 꽃끼리 붙여주면 되유. 꽃가루를 빼가지구시리 일일이 붓에 묻혀서 허는 것도 있는데 저기 허며는 배나무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두 쪼그만 과수원들은 그냥 장십랑 꽃 같은 거 꽃끼리 붙여두면 되유. 100그루 정도 수정시키려면 한 둘이며는 실컨 해요. 하루 해구 그 다음날 하루 해구, 두어 번만 해주면 끝나요. 열추 한달 걸려서 열매가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요만치 생기며는 그때서부터 수정은 일 년으로 따지면 4월이니께 20일경이면 수정을 시키지요. 4월 20일경에 한달 정도 지나면 엄지손톱만 하게 배가 자라지요. 꽃을 떼어낸 다음에 수정 안 시켜유. 지금은 그렇게 안 해구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장십랑같은 거 꽃가루 받을 저기를 갖다가는 그거 가루만 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루다가 가루를 붓이루 찍어다가 수정을 시키지유. 요즘엔 너무 보이게(츄츄하게) 안 하구요 간격을 두구서 수정을 시키지. 다 되고 나면 인저 잘 크는 배를 보면 알지. 못난 것 슈아 내지요. 가지치기한 가지는 죄- 주서 서는 떼기도 하구 갖다 버리기도 해유. 슈아내는 작업은 사람이 해기에 달렸어요. 우리는 얼마 안 되니께 둘이 했지.

말랭이 땅에서 시작한 배농사

우리 배밭은 가물어도 끄떡 없었어(배밭과 만남)

20가마니 남은 쌀을 장래를 났는데 동네 사람이 오더니 이서방네

저 말랭이 땅을 사라는 거여. 그때 평당 3000원이었는데 내일 식전이면 땅이 넘어간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자니까 “아유~ 쌀 20가마 그거 논 거 밖에 없는데 돈이 어딴어서 사는가?”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얻으면 되지”그랬어. 당장 돈이 있어야 계약을 치를 거 아니냐 이거여.“내가 뭐 와볼까?”그랬지. 그때가 저녁 쇠죽 쓸 때니까 저녁때지 뭐여. 그 저녁에 내가 돈 30만원을 꾸 거야. 한 집에서 10만원 꾸었는데, 아~ 저기 춘식이 부잣집 소 팔았다며 거기 가서 뭐 달라고 하라고 해서 거기서 20만원을 꿇어. 30만원을 대번에 꿇으니까는 아버님도 놀라고, 흥정꾼이 둘이었는데 둘 다 그냥 놀래자빠지는 거야. 그까짓 거 얼른 가서 계약을 쳐야지 했어. 그렇지 않으면 내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얼른 가서 계약 치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좀 깎아달래보고 안 깎아주거든 그냥 다 주라고 했어. 그래서 다 주고 샀어요. 좋은 땅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사서 저렇게 하니까 좋은 땅이 된 거지. 땅을 사 가지고 배나무를 심은 거지. 그냥 30만원 꿇다 계약을 쳤는데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셋째 시동생한테 돈을 빌려다가 하고서는 갚았지. 땅이 그제 870평 됐지. 이제 가을에 20가마 놓은 거 받고, 그럭저럭 해가지고서는 우리 시동생 돈 갚았지.

배도 비가 잘 와야 좋아. 여름에는 자주 와야 하고 수확 철에는 많이 오면 당도가 좀 떨어지지. 논농사처럼 배농사도 가문 해에는 하늘만 쳐다봤어. 그래도 우리 밭은 나무가 시들거나 그런 거 하나 없었어. 배수가 잘되는 땅인지 가물어도 끄떡없어서 신경 안 썼어. 배밭에 비

가 많이 오면 물이 안 빠져서 나무가 죽거든. 뽕기(페인트) 가게 하는 집은 여럿 죽었어요. 그러면 엄청 속상하지. 속상해도 할 수 없이 또 심든지 하는 거지. 우리는 죽은 나무 하나도 없었어.

그전엔 신고배가 귀했지(품종선택)

그전에는 논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서방네 땅을 먼저 사놓고 배나무 100그루 묘목을 심었어. 거기가 산이었는데 동네 뒷동 말랭이(벤골 땅) 뭐야. 논농사도 지으면서 배농사를 했지요. 그 동네는 배나무가 많으니까 자연히 배농사를 하게 된 거야. 주변에 사는 남들은 명절 때 배농사로 한참 재미를 볼 때였어. 우리도 배농사 시작한지 5년 되니까 한 50짜 댄나? 아직 애목이지만 굵은 걸로 따서 서울 가락시장 공판장에 갔지 뭐여. 그때는 신고가 귀했어. 거기 가서 경매를 했어, 50짜 가져가서 장십랑 한 차 신고 가져간 거보다 더 비싸게 팔았어요. 신고 배지만 완전히 익지는 않았기 때문에 ‘돌맛 같은 거 저거 버리고 올텐데’하고 걱정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 돈으로 명절 때 잘 세웠지. 그때는 과일금이 워낙 비싸니까 돈이 되더라고. 우리는 그냥 처음 심을 적부터 농사 그만둘 때까지 딱 100그루여. 이제 늙어서 힘드니 못하지만 지금도 그 나무들이 그대로 있어요. 팔 때는 차 불러서 신고 가락동 가서 팔았지. 농사 많이 짓는 집은 제값 받고 적게 짓는 사람은 홀 때린대. 말하자면 싸게 부르는 거지.

배 따고 잎까지 다 떨어지고 나면 전지를 해줘(전지)

일 좀 해달라고 그러면 발이 손바닥만 한 데 뭘 사람을 부르냐고 해서 호락질하곤 했지. 호락질은 남 안 얻고 집안사람끼리 일하는 거야. 아~ 나 일 땡길 적에는 쇠로 된 사다리 일곱 칸짜리를 갖고 다니면서 했어. 지금은 알미늄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할 만한데. 내 몸이 약한데다가 사다리가 무거워서 엄청 힘들었어. 그전에는 미련하게 배나무를 그냥 높이 길러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들 얇게 길러. 그때 배나무 일찍 심은 사람들은 높이 길렀지만 우리네는 그때 벌써 처음부터 얇아 기르기 시작했지. 얇게 기르려면 해마다 배를 따고 잎까지 다 떨어지고 나면 전지를 해줘야 돼. 가지를 뺄 건 빼고 자를 건 자르고. 지금은 기계톱이 있어서 좋아. 그전에는 톱으로 쓸었는데, 요새는 기술자가 기계로 하지. 가위도 자동 가위가 있더라고. 거름은 전지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주는데 그전에는 배나무 가장자리에 뽕 돌려서 고랑을 파고 거름을 줬어. 시방은 가장자리에 꺾지고(끼엇고) 로타리를 쳐. 잡초는 그전엔 낫으로 했지. 지금은 로타리 쳐버려.

씨를 세워줘야 좋은 열매를 맺지(화접, 꽃 수여주기)

꽃이 일찍 피는 해가 있고 늦게 피는 해가 있어.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면 4월 17일경서부터 화접을 할 적기여. 배가 열매를 맺으려면 화접을 시켜줘야 해. 화접은 같은 나무 꽃을 갖다 붙이면 안 돼. 신고 배 꽃에다가 다른 장십랑꽃이나 만상꽃을 따다가 일일이 꽃가루를 묻혀

주는 거야. 과수원마다 가장자리에 솟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두지. 우리는 화접수로 두 그루 심었어. 화접이 잘 될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다 붙여. 꽃을 가져다 일일이 찍는 거야. 5월에는 꽃을 슈아줘야 해. 5월 15일 경이면 슈기 시작해. 한 달 못가서지. 꽃을 따는 거야. 한 꼬타리에 꽃이 다섯 개나 여섯 개 정도 붙어있는데 제일 좋은 거, 가생이 꺼루 남기고 손으로 다 따줘. 한 꼬타리에 하나씩 남겨두고 30cm 간격으로 씨를 세워. 씨를 세운다는 말은 주변에 꽃을 다 따내고 하나만 남기는 걸 말해.

황약이 제일 좋았어(병충해 제거)

배농사에 연실 농약 주는 게 일이야. 봉지 씌우구 나면 딸 적에도 주구. 농약은 봉지 씌우기 전이랑 처음에 수정시킬 때 꽃피기 전에도 한번 주지유. 농사짓다 보면 병충해가 그칠 새 없어요. 꽃피기 전에 주고, 수정시키기 전에, 봉지 씌우기 전에도 주지유. 그래두 아주 많이 주진 않는 편이쥬. 한 번 주기 쉽지 않걸랑요. 아휴- 더우면 못해유. 힘들지. 주는 건 잠깐 줘요. 한나절이면 8시서부터 12시까지정이면 더울 때 피해서 주지, 아유 더우면 못해. 양력 3월 13일경 처음 약을 주기 시작했지. 5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 봉지 싸고 나서는 15일 만에 줘어. 기계유제, 황약도 주고. 초창기에 황을 붙을 때서 고아서 물을 타서 줘어. 황약이 제일 좋았어. 황몽칭이(황충이)라는 해충도 있어. 그게 배에 노랗게 앉으면 배가 썩어버려. 그게 잎사귀를 다 빨아

먹으니까 배가 안자라. 백나방이 오면 배에 가서 하얀 게 생겨. 그건 없는 게 나아. 그러면 그냥 따다 씻어서 배즙 내지. 까치가 또 죄 찍어 먹기도 해요. 그럴 때는 새충을 쏘면 돼. 나 어려선 깡통 두드리곤 했지. 지금은 총이 있으니까. 요즘은 새가 별루 그렇게 많지는 않아.

배는 봉지를 씌워야 같이 좋아유(봉지 싸기)

옛날부터 배는 봉지를 씌웠어요. 배 숙아낸 다음에 봉지 씌우지. 햇빛을 보는 것보다 봉지를 씌우는 게 병도 안 걸리구. 그래서 봉지를 씌우는 거지유. 배봉지는 보통 양력 6월 6일부터 배가 도토리 만할 때, 거진 밤틀만할 때 싸기 시작해. 봉지를 씌웠어도 자라는 게 보이지. 배봉지는 과수조합에다 쓸만치 신청해서 사서 쓰는 거지유. 봉지가 (A4용지를 정사각형으로 만들며) 일추 요만해요. 네모나고 한쪽이 트여있고 철사로 묶었어요. 그전엔 철사가 따로 나왔구. 지금은 겹봉지가 나와. 두 번 씌우면 그것도 일이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야. 그전에는 처음에 작은 봉지를 싸고 배가 커지면 또 큰 봉지로 썼지. 이중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 겹, 삼 겹 봉지가 나와. 봉지를 안 싸면 우박이 때리면 배가 상하거나 벌레가 먹고 같이 안 나지. 처음에는 봉지를 신문지로 만들더라고. 비가 오면 처지니까 미국 신문지가 좋았어. 처지지도 않고 오래가니까. 그전에 신고 배는 겹봉지 싸고 저장 배는 홀봉지를 썼는데 지금은 다 겹봉지로 싸. 철사가 끼어져 나오니까 봉지를 싸고 나서 철사 바늘로 묶어. 지금은 배봉지가 봉지 끝에 뺨끈처럼 붙

어 있더라고. 일할 때 장갑은 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안 끼고 했어요. 빈손, 알손으로 했지유. 거진 그냥 했지.

배즙 사먹는 이들이 설탕 넣었느냐는겨(저장하기)

배를 저장하려면 그전에는 일반 창고에 넣어서 선찰았어. 요즘은 냉동창고에 넣어두니까 괜찮아. 한 짝에 얼마씩 주고 동네 큰 창고에 넣어두는 거야. 지금은 농약 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서 전보다 재미가 없을 거야. 배즙(배가죽)이 없어서 수출도 하더라고. 배즙은 감기 걸렸을 때 뜨듯하게 먹으면 괜찮다 그러대. 배가 조금 썩으면 거진 오려내버리고 썰어서 처음부터 물은 하나도 안 붓고 불을 약하게 한참 끓여가지고 불을 때면 나중에 조청같이 돼. 그걸 냉장고에 뒀다가 김장에 넣으면 한결 맛이 틀리다는 거. 딸이 그러는데 단맛이 나오더라. 배즙 사먹는 이들이 설탕가루 넣느냐는 거. 거기서 단물이 나오는데 왜 설탕을 넣었느냐는 거?

암배가 맛있지(배 따기)

배를 딸 때는 잡아당기면 꼭지가 상해서 못써. 추켜올려서 따지. 배 따는 거 재밌어.

맛있는 배를 고르는 방법 알려줄까? 신고인데 이쁘게 생겨야 돼. 암배가 있고 숫배가 있는데 암배가 이쁘고 맛있지. 숫배는 대체로 울퉁불퉁 좀 못생겼어. 이등품으로 나가. 파치는 마른 기스가 있고 물 기

스가 있는데 물기스 난 거는 그냥 두면 금방 상하니까 얼른 배즙을 짜. 배즙은 시내 나가서 짜는 데다 갖다 줘서 짜오지.

가장구를 확-치니께 그 해 배가 어르게 굵은지(수확이 좋았을 때)

배농사를 짓다 보면 아무착에도 어떤 차는 더 굵고 잘고 그래유. 열매가 드물며는(간격이 좁지 않게) 더 굵지유. 기온이 1년마다 다르니께 그런가 봐유. 그 때가 배 수확한 지 20년 정도 됐나? 일해는 사람에게 일을 시켰더니 확 그냥 배낭구(배나무)를 그냥 지 빼내 빼렸지 뭐야. 가장구를 확 쳐버렸다고. 아주 시원하게 그냥. 근데 수확이 더 많이 나왔더라구! 배가 양 어르게 굵은지! 그거 전문으루다가 하는 사람들이 한 거니까 걱정은 안했지. 시원하니 보기 좋더라구유. 그 다음 부터는 쪽그런 방법으로 했쥬. 집에서 제사상에 올릴 배는 몇 개 안되니까 미리 빼 놓았구. 전부 저기 팔아야 하니께는.



◆장태숙, 이정숙 어르신은 입말의 특성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읽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농사, 묵장사... 정말 일 많이 했다

김종연



- 구술자 김종연(1943년생)
- 구술일 2020. 08.18
- 주소 평택시 동삭동
- 면담자 이수경, 조은정
- 구술장소 배다리도서관

고향은 서울 묵동이야, 배 밭이 많았지

고향은 서울 육군 사관학교 있는 묵동이야. 거기도 과수원이 엄청 많았어. 우리 친정아버지 성함은 김영환이고 우리 엄마는 김용문. 친정에는 형제들이 많았지. 오빠 있고, 언니 있고, 남동생, 여동생 나는 셋째 딸, 언니들이 둘 있었고. 근데 언니 하나가 먼저 가서 (내가) 둘째 딸이 된 거지. 열두 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7~8남매를 다 맥여서 그냥 가리킬래니 뭐.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못 다녔어. 4학년 1학기 책 타갔고 나왔는데 못 가게 하는 거야 엄마가. 그만가라고. 그러니 뭐. 친정두 못 살았어. 시집와서 밥술이라도 먹고 살았지. 시집오기 전에는 보리밥도 없어 못 먹었어.

어려서는 고무줄도 하고 공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놀았지. 그 때는 그렇게 어린데도 일을 다녔어. 먹고 살라고. 열네 살, 열다섯 살 때도 배 밭에 일 다니고 배 따러 다니고 배 싸러 다니고 그랬어. 남의 일을 가면 배가 맛있지.

열아홉 살 결혼해서 평택에 내려왔어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매점에 내가 취직을 했어. 그때가 열여섯 살 때야. 거기 매점에 있는 군인하고 결혼을 한 거야. 열아홉 살 정월(음력 1월)에 결혼했지. 결혼하고서는 여기 모산골서 살은 거지. 우리 남편은 유승우야. 지금 없어. 돌아가신 지 한 20년 돼. 일찍 돌아갔어. 육십다섯에 갔으니 뭐... 여섯살 차이야. 제대하고서 거기 엄마 아버지가 이제 장가를 들인다니까 영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결국은 나 때때 안 했나 봐. 하하하. 그래도 결혼하려고 우리 친정엄마가 평택에를 찾아왔어, 서울서. 평택을 찾아와가지고 이름 하나만 갖고 물어, 물어, 물어, 물어서 거길(모산골) 간거야. 결혼식은 친정에서 족두리 쓰고 다하고 평택으로 왔지. 족두리 쓰고 기차타고 왔어. 평택역에서 모산골로 트럭타고 들어온 것 같아. 그 때 택시도 없이 세상에... 결혼하구 아들 둘. 딸 하나. 지금 잘 살고 있어.

스물한 살에 첫 아들을 낳았어. 거기 배 밭에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다 낳은 거지 애들 셋을. 그냥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기르셔도 내가 (농사를) 혼자 다 하다시피 하고 남편은 직장에 가고 시누 셋, 시동생 다 결혼시켰지. 시할머니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큰일을 다 한 거야.

우리 아저씨는 사람은 좋지. 뭐든지 보면 그냥 허허허 웃어. 인상도 좋고 참 좋았어. 그런데 이제 일찍 가서 걱정이야. 지금 살았으면 여든네 살인데. 남한테 모든 게 그냥 다 허허허 하고 잘했어. 동생들한테도

잘하고. 어휴, 옛날 얘기하면 뭐. 뒤늦겐 속 엄청 썩었어. 사람은 좋은데 너무 허허해서... 억백이라. 옛날에 하도 속을 썩이고 살아서 스무마지기 논농사를 지으려면 논두렁이에 (풀이) 얼마나 많다고. 그거를 그냥 내가 이틀에 다 깎아 버린 거야. 내가 그 전에는 등치 좋고 일도 잘했어. 지금이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일 많이 해서 잘했고 쫓아올 사람도 없어, 잘했어.

시집살이 말두 마

옛날에 뭐 촌에서 두 칸짜리 방 하나하고 안방에는 식구가 여럿이지. 시누들 셋, 시동생,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이렇게 7명이 살고. 우리는 쇠죽 주는 사랑방에서 있고.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냥 시집살이 많이 할 때는 친정가면 오지 말아야지 한 적도 있었지. 그렇지만 시집가면 그냥 사는 건가보다 하고 또 오고. 그냥 그러고 살은 거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보통 시키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빨랫비누 하얀 거 그것도 못 사서 쓰고 쌀겨로다가 젓물 비누 만들어서 쓰는데, 내가 하얀 비누로 머리 좀 감았더니, 혼내고. 하하하 그래서 빨랫비누가 나와도 다시는 안 했어요. 당시는 머리감을 때 쌀등겨 비누 만든 걸로 했지.

친정 갈래면 육군사관학교 있는 데까지 한 2시간 가나? 2시간 더 가면 더 갔지 들 가지는 않아. 그때는 직행버스. 친정에도 보내줘야 가지. 명절에도 못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한 번 휴가를 주는 거야. 친

정 갔다 오라고. 이제 며칠 있다 와라 그러고선 얘기를 해주면 그때 와야지 또 안 오면 내쫓아. 시동생하고도 싸우고. 시동생은 지금 후회하지. 형수 옛날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때는 어렸지. 국민학교 땡길 땐가 그랬는데. 시동생이 나하고 20년 차이야. 그때 당시 시아버지가 시동생을 막 야단을 쳤지, 형수가 반 품었는데 그러냐고.

우리 시누가 예뻐 우리 친정엄마가 중신을 해줬어

우리 시누가 이뻐.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중신을 해 줬어. 신랑 자리는 나하고 같이 7년 한동네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쁘니까 뭐 얼른 했지. 지금도 그냥 어디를 못 가게 해. 강원도 연천 거기로 가서 산꼭 대기에 집 짓고 살아.

내가 그냥 혼자 배 농사 시작한 거야

열아홉 살에 시집을 겨울경에 왔거든? 그 추운 사흘날인가 옛날인가 왔어. 와갖고 이듬해 봄에 이제 배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야. 1200 평으로 시작했어. 배나무는 250주 정도 심었지. 배나무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주수로 따지지. 수확은 뭐 처음에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오지 뭐 얼마 나오겠어. 친정동네가 배 밭이 많아서 일도 많이 다녀 보고 했으니까 이제 다 알잖아. 우리집 양반은 그때 청년이지. 스물여섯 됐나. 미군부대 경비원으로 직장 생활했지. 직장을 땡기니까 내가 그냥 혼자 배농사 시작한 거야.

배농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땅이 산이 불록해갖고 칭칭 내려오는 계단으로 했어. 그래도 비탈 과수원이라 하기가 힘들어. 나중엔 한참하고 나니까 그런 계단이 없어졌어. 자꾸 까 넘겨서. 나중엔 한 단씩 까 넘기니까 일하기가 좋디야. (웃음)

여기 와서 농사지를 적에는 남의 배 밭으로 일을 다녔어 동네에서. 우리 배는 금방 심었으니까 배가 뭐 몇 개나 달렸어? 아이고,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커가지고 배도 떨어지고 언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까 그랬어. 그러더니 크고 보니까 세상에 배도 많이 떨어지고 썩은 것도 많고 어우... 이제 배를 못 팔면 창고에서 이렇게 잔뜩 꼭지치고 밤에도 나가서 혼자 꼭지도 쳐보고. 아침부터 종일해야 하고. 혼자 할 적에는 종일 그냥 얼마나 해 그까짓거. 사람 하나라도 얻어야지 빨리하지.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젊어서 많이 해봤는데 그냥.

배나무를 하면 유인을 해준다고 가지를 잡아당겨. 그래야 바람 불어도 안 떨어지고 그걸 잡아매는데도 한 달을 내가 했어. 배나무 지금 가쟁이들 늘어트리고들 있잖아. 그래야 배가 크고 저기 바람 불어도 안 떨어져. 태풍와도 배가 안 떨어지지. 그냥 이렇게 놔두면 배가 다 떨어져 흔들려서. 사람이 없어서 혼자 많이 했어. 배구덩이도 혼자 파고, 배도 혼자 숙아보고, 그러다가 한 두 사람 얻어서 해보고, 사람 얻어서 하면 때에 꼭 밥 해줘야 해. 간식 줘야지, 돈 줘야지, 그게 더 힘

들어. 나중에 머느리가 밥도 해주고 간식 주고 그랬는데 이제 청룡동으로 이사갔어. 큰 아들은 지금 거기 살아.

봉지 봉지 배봉지

처음에 배 농사를 지으려면 봉지를 준비해야지. 봄에 꽃 피고 그러면 여름에 싸는 거니까 6월에. 봉지는 다 준비해놓고 또 배 밭의 과수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약 줘. 비 오면 주고 또 비오면 줘야 돼. 벌레 그런 거 배 파먹지 말라고. 약을 주고 나면 이제 배꽃이 피고 이제 배에 씨가 들려면 이렇게 한 뼘 간격으로다가 하나씩 뒤요. 배를. 그러면 이제 배 싸는 거지 뭘.

옛날에는 배봉지에다가 황을 넣었어. 배 봉지에다가 노란 황, 나무에 황을 미리 주는 거야. 그래갖고 옛날에는 만장을 해놨는데 지금에 봉지에다 안 넣어. 그냥 싸더만.

봉지 쌀 때는 봉지 띄기는 하니까 봉지 싸는 사람은 돈을 더 줘. 그거 하루에 1000장 싸면 하루 품값이야. 그런데 이제 2000장 싸는 사람도 있고 5000장 싸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했나 몰라. 어휴, 예전에는 몰래 갖다 파는 사람도 있었다요 봉지를. 그렇게도 숨기고. 그래도 잘 싸는 사람은 5000장 썬대요.

배 품종

신고, 만상, 조지로, 일본말이래. 지금은 다 신고배야. 옛날에는 만상

이 최고래서 만상 나무를 심었어. 만상 나무를 심었다가 다 그냥 덧붙인거지. 이제 지금은 다 신고배야. 그리고 이제 화집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쪽 뺀게 놔두잖아. 화집 되라고. 바람 불면 다른 데 가서 그것이 아마 장십랑인가봐. 장십랑 그거는 안 써 먹어. 그거는 그냥 물러. 그냥 두면 배가 물렁물렁 해 갖고 못 먹어.

배농사 지을때도 기계차가 필요해

배농사 짓는데도 약 기계차가 있어야지. 또 배 신고 다니려면 트랙터 그런 거 있어야 하고 그것도 많아. 지금은 그거 다 있어야 해 먹지, 못해. 지금은 다 너나 할 거 없이 그걸 다 이렇게 만들어. 그전에는 조그만 과수원에는 없었어. 큰 과수원에만 있었지.

배 따는 방법

배 딸 때는 이렇게 올려 따, 배를 손에 받치고 이렇게 올려 따. 배를 그냥 따면 배 꼭지가 빠지고 나무가 부러지는 수가 있어. 그래서 배를 항상 이렇게 손에 받치고 이렇게 올려 이렇게, 그럼 푹푹 떨어져. 받쳐 갖고 따면 그냥 떨어져.

옛날엔 배 고르기를 손으로 했어

옛날에는 배 담을 때 이렇게 손으로다가 담아 사리를 했는데. 큰 거는 이쪽에 넣고 작은 건 이쪽에 넣고. 이렇게 하면 배 쥘 때는 사람들

이 또 하고.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배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올려놓으면 기계가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 지금 기계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네 할 적에는 손으로다가 이렇게 달아버렸어.

배꽃이 예뻐도 솥을 생각을 하면 아휴~

배꽃이 처음에는 향기 있지. 근데 배꽃은 별로 향기도 없고 금방 떨어져. 비만 오면 금방 떨어져. 암놈 수놈이 없고 그냥 배꽃을 이렇게 따. 꽃들을 따가지고 꽃가루를 먼봉인가 그거 있어. 나무 막대기에 달려서 그거 찍으면서 하는 집도 있고. 그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총으로 쏘는 게 있다고. 화집하려면 장십랑 나무 그걸로다가 다 옮겨다가 많이 두는 사람이 있지. 화집 순행이라고. 그래갖고 바람 불면 다 꽃가루가 떨어져서 되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야. 배꽃이 예쁘기도 했지만 솥을 생각을 하면 아휴, 저놈들을 언제 솥으려고 많이 폼나 그랬지. 한송아리에 많이 피니까 그거 다 따버려야 한다니까 하나씩. 일일이 다 떼니까 손톱이 새까맣지. 지금은 가위로도 따고 손톱으로 따고 그러더라고.

아고~ 정말 일 많이 했다

일 많이 했어. 지금은 키도 조금 줄고 덩치도 줄고 그랬지. 예전에는 한 60키로 나갔어. 많이 빠졌지. 지금은 47키로밖에 안 나가. 그 때는 좀 뚱뚱했어.

배꽃이 3월에 피면 4월쯤 꽃망울이 질 거야. 그러면 5월에는 배를 수지. 그전에는 6월 10일인가부터 배를 썼어. 근데 올해는 늦게들 싸대. 배 수기는 한뼘 간격으로다가 해. 화집하는 거 꽃으로 닿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가루를 많이 내면 총으로 쏘서도 하고. 요만한 통에다가 가루를 담아가지고 다니면 처내는 것도 있어. 그때는 꽃으로 하나 두개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있을 적에 그냥 이놈, 이놈 하고선 그냥 마는 거야. 얼마나 힘든데. 화집하지. 유인하지, 배 수어야지, 마 볏기도 해야지. 마 볏기는 배 간격을 또 두 번째로 솥아주는 거. 첫 번째는 이제 송아리 많이 두고 하나씩이라도. 그리고 솥을 적에 드문드문 그거 이제 제 씨 두는 거. 그렇게 해서 간격으로 해. 지금은 뭐 나아졌지.

옛날에는 과수원에 인분을 줬어

옛날에는 과수원에 인분을 줬어. 차로. 이제 과수원 바닥에다가 구덩이를 파. 그럼 인분차가 와서 거기에 인분을 뿌리고 가. 그럼 저기 통에다가 인분을 퍼붓고 배나무 구덩이를 파면 거기다가 인분을 한 통씩 부으면 얼추 스며들잖아? 멀찌감치 이렇게 줘. 그럼 스며들면 그때 이제 구덩이를 흙으로 덮어. 비료두 구덩이를 파고 비료주고 덮고. 그전에는 일을 만들어서 했어. 아유. 지금은 과수원 바닥에다 그냥 주더라고. 거기다가 소는 서너마리 길러갖구 소먹이기... 아고~ 정말 일 많이 했다. 힘들었어. 과수원에서 그냥 낮으로 풀 깎고 시아버지가 못 깎으면 내가 깎아서 주고, 배 밭도 그냥 다 낮으로 깎아야 해. 그렇게

해서 그냥 땀기고 그랬지. 소 먹이는 사람보고 깎아가라고도 해보고 집에서 많이 깎고.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쥐. 나랑 아저씨는 옛날에 이렇게 젓는 거 있어. 그 걸로다가 내가 젓고, 아저씨는 약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약주는 기계차 사서 약 주고. 아들이 주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과수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때려. 비 오고 나서 이들은 또 쥐야 돼. 비에 다 씻겨 내려가서.

신랑하고 둘이 배 싼고 팔러 다녔지

수확이 처음에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오지 뭐 얼마 나오겠어? 그냥 서울로 짐 매서 가락시장에도 가보고 부산에도 가보고. 그때 신랑하고 이제 둘이 배 싼고 갔지. 그때는 농협이 있어도 많이 안했어 그냥 손으로도 하는 거지. 내가 또 혼자 시장에 갔다 팔고.

배 복숭아 싸고 머리에 이어서 모산골에서 평택시장까지 갔다 팔고. 한 300개 썩 이고 가면 고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아 파가지고. 리어카가 있어 뭐가 있어. 어디다가 끌고 가서 팔 데가 없어. 그래두 그놈을 이고 가서 내려놓고 복숭아는 맛있다고 가져가면 금방 팔려. 잘 사가. 먹어본 사람들이.

집에 일하면 누가 돈 쥐?

하루하루 먹고사는 거지. 누가 일을 하면 일을 가고 일 안가면 집에

일하고. 집에 과수원 있어도 남의 일을 가려면 돈 벌라고 가는 거고. 집에 일하면 누가 돈 쥐? 그렇게 많이 다녔어. 그 전에는 모 심으러 다녀 보고, 배도 묶으러 다녀 보고. 난 벼 묶을 줄 모른다고 친구 아저씨하고 우리 아저씨하고 날 가운데다 놓고 그 양쪽에서 다 묶어주다시피 했어. 날 조금 남겨 준거야(웃음). 그거 묶으면 또 다 그걸 진가를 쳐야 돼. 단을 집어다가 또 하고.

논 농사도 조금 지었지

모산골 뒤 쌍용자동차 있는 근처에 논농사도 좀 지었지. 지금은 팔았지만. 그냥 약통 짊어지고 플라스틱 아이스박스 들고 땀기면서 논두렁에 풀 약 주고 그러고 다녔어 혼자. 지금은 다 개발해서 아파트 지었잖아. 그 당시에는 돈이 얼마나 되. 어떤 때는 빗져. 약값도 안 나와. 1년하고 품값하고 약값도 안 나와. 복숭아 할 적에는 복숭아만 했었고 또 복숭아 안 할 때는 배 농사 하고 그랬지. 논농사라 낫기도 하고 그래도 과수원하는 사람은 과수원이 낫다고 그러지. 나는 조금 갖고 했으니까 별것도 아니야.

배농사를 하다하다 목장사도 했는데 재미 좀 봤지

마흔 아홉 살부터 목 장사를 했어. 청포목, 메밀목, 도토리목, 그거를 12년을 했어. 그거를 12년 해 갖고선 하루에 돈을 엄청 벌었어. 평택시장에서 소매해서 하루에 50만원씩 했어. 그 시절에 최고 많이 한

날이 70만 원이었어. 그때는 잔치 같은 거 집에서 했잖아. 잔칫집에서 음식을 맞추면 청포묵 맞추는 사람들이 많았어. 하루 저녁에 11판씩 쥘. 어떤 날은 잔칫집 마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그럴 때는 60~70판씩 쥘어. 그러면 아들도 저어주고 아저씨도 저어주고 나는 그거 타갖고 물 맞춰서 주고 술을 3개를 가지고 연달아 쥘고. 연발 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녹두는 비싸고 각시동부로 하면 그거를 사흘에 한 가마씩 했어. 메밀. 메밀묵도 사흘에 한 가마, 두 가마. 또 도토리묵도 며칠에 한 가마. 그냥 팔죽지가 떨어져 나가. 뼈가 그냥 막 맞춰지는 것 같고. 그거 파는 재미에 좋으니까 열심히 했지. 그래 갖고 나중에는 논에 들어가 장화 신고 들어가서 빨았어. 장화 신고. 그러다 보니 좋대? 장화 신고 빨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더라. 팔 아프니까 그렇게 하라고.

혼자는 못 해. 우리 아저씨가 자가용이 있어서 배달을 아침이면 그냥 어디까지나. 저기 안정리까지 가서 뭐 저기 공도까지 가고. 아침이면 잔치 배달 해다 줘야지. 그 집들이 얼른 가서 잔치 음식을 하지. 배달 먼저 하고 또 시장까지 데려다줘야 끝이지. 그러면 저녁에 한 7시, 8시 되면 데리러 와 밤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집에 가서 또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잠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 새벽 1, 2시까지는 해야 하니까. 잠을 자면 5시에 일어나서 또 묵 빨아야지. 그거 안고 또 만 들어야지. 또 저녁에 올 거 재료 해놔야지. 아이고. 많이, 많이 했지. 또

그 묵이 식어야지 또 붕지, 붕지 채 담아서 갖고 오지. 나 묵 갖다 먹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묵 아니면 딴 사람은 없었어. 그렇게 잘 팔렸는데,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안 하고 나니까 육신이 다 아파.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먹을 거 이만큼 쥘래도 싫어. 통복시장 이천상회 앞에서 팔았어. 근데 지금은 아줌마 아저씨들 다 돌아가셨어.

쥘 두 살 쯤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 갖고 그만 됐나 봐. 할아버지가 병이 나 갖고선 서울 삼성 중앙 병원에 입원을 하고 거기서 수술하고 뭐하고 하니까 몇 년 동안이야, 3년 동안 병 수발을 했어. 병원에도 입원 시켜 놓으면 아들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병수발 하느라 그만 둘 적에 목돈을 쥐여 줬는데 병수발로 다 쓴 거지 뭐. 그래도 그렇게 해 줬으니까 남한테 아픈 소리 안하고 살았지. 그래 갖고서 엄마가 돈 벌고 하니까 또 멍멍거리고 살았지. 잘해 애들이. 딸이랑 아들이랑 매달 용돈을 꼭 줘.

배 농사 그만 둘 때

토지 개발 되고 남편 아프고 해서 농사를 넘겼어. 과수원 개발한다고 하고 그냥 쉬니까 배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또 얼마 있다가 됐는지 몰라. 땅도 산하고 싹 밀어버려서 판판하지 아무것도 안 지었어. 모산골 이렇게 길 오른쪽 들어가자면 오른쪽에는 아파트 다 지었는데 왼쪽에는 안 지었어. (평)여고 있는데. 거기 공원 부지고 저기 우리 살던 집에는 월룸도 짓는다나봐. 다 밀어놔서 판판해서 어디가 우리 집인지

모르겠어. 아이고 못찾어, 못찾어. 지금 거기 앞에 무슨 집 한 채 지었는데 거기에서 한참을 올라가야 돼.

나이 먹고 뭐 젊어서 그냥 돈 벌어오는 게 제일 재밌는 거지. 배 농사 지금 그건 어떻게 지었는지도 몰라. 그냥 지금 나이 먹으니까 그냥 걸으면 걷는 것도 힘들고 그냥 젊었을 때는 팔을 많이 써서 양쪽 어깨가 어떻게 아픈지 고관절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 그래서 여기 양쪽에다 주사를 맞았더니 희한한 게 허리도 안 아프고 고관절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더라고.

배 농사 - 기억에 남는 것

뭐 배 농사짓고 못 파니까 창고에다가 배 꼭지를 쳐서 요렇게 알맹이를 죽 썰아 올려. 그 때는 배 껍질도 없어 그것도 돈 주고 사야 왜. 그때는 배 껍질도 살라면 비싸더라고. 이렇게 썰아놓고 인제 장사꾼들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소개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렇게 해서 팔아먹고. 나중에는 뱃짐을 또 메 갖고 부산 가서 판적도 있고. 가락시장가서 판적도 있고. 어휴 농사...

바닥에다가 왕겨를 피고 고위에다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 배를 넣는 거야. 봉지 썬 거를.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얼마다 그러면 거기다 금을 때리는 거여. 그렇게 판 적도 있고, 또 저울에 달아서 다 마살이(슈아내기)하고 팔은 적도 있고.

왕겨는 논농사 지으니까 그전에는 바닥에다가 푹푹깔고 열까봐 그

렇게 하는 거고, 지금들은 그렇게 안하고 노란박스, 컨테이너 박스 거기다가 담아서 다 다마살이해서 담아가지고 썬는 사람도 있고 냉동창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시아버님이 옛날에 '우리 애미는 저 산만 가져도 먹고 산다' 그러셨지 대중갓집이여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시제를 많이 지냈어. 근데 이제 이거 개발을 한다고 돈 다 노나줬잖아. 그 산이. 근데 우리 시아버님이 옛날에 '우리 애미는 이 다음에 저 산만 가져도 먹고 산다' 그래. 그래서 산 갖고 어떻게 먹고살아요 그랬지. 그래서 보니까 그게 땅값이 여간 비싼 게 그 개발을 한다고 돈을 내니까 그게 큰 돈이야. 그랬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씨 집안에서 그 산을 팔았잖아. 그 산에다가 배나무 심은 거만 우리 주고. 시집간 사람도 천만 원 주고 남자들은 삼천만 원 주고 근데 난 김서방이라 안주는 거지 며느리니까. 근데 우리가 시제를 지냈어. 내가 몇 십 년을 그냥 시월 열흘날만 되면 제사를 지내는 거여. 그리고 거기 사당도 지고 다 그랬었는데 다 헐은거여. 그래서 내가 책임자한테 쫓아갔어. 왜 출가인도 돈을 주는데 나는 어려서 시집와가지고 몇 십 년을 받들었는데 왜 돈을 안주냐고. 나도 엄연히 유서방네 며느리니까 달라고. 시제날 갖고 왔더라고. 제사 지내는 날 가져와서 주더라니까. 에이고. 이제 그때 저기했던 양반들은 다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 또래도 다 갔어. 열추 다가고 우리 아들 또래들이 이제 행세하는 거지 뭐.

전쟁 때 피난 갔던 생각이 나

그 전에 저기 우리 밭에를 갔다 오는데 밭이 저기 먼데, 미군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총을 거기다가 막 그러는 것도 봤어. 그냥. 그런 것도 생각나고. 피난 나가는 것도 생각나고. 다 나. 예구. 피난을 갔는데 이웃집 저 집 몇 집이 갔는데 남자라는 건 우리 친정아버지 하나밖에 없어. 다 그냥. 피난 나가면 장독 항아리에 다 숨고. 아이고. 그리고 그 나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한 여덟살 됐나. 몰라. 그때는 리어카가 아니고 말 마차 끄는 거 그런 걸 끌고 다녔어. 마차라고 그러지. 마차. 그걸 끌고, 사람이 그걸 끌고 댕겼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짐을 그때 있는 대로 한 가마씩 짐을 싣고, 거기다가 나를 위에다가 싣고 그리고 가는 것도 보고. 피난을 우리가 영신으로 왔는데 그냥 어떤 집을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썰라고 했더니 그냥 못 들어오게 그냥 가라고 막 그래서 피난민들은 못 들어오게 하잖아. 그랬는데 거기 주인네는 그냥 폭격 맞았다고. 우리 살리려고 그랬나보다 하고 사람들이 그랬어. 소도 그때는 막 잡아먹고 그래. 영신까지 왔는데 방앗간까지 와서 왔다 갔다 한 것도 생각이 나. 그 길에서. 오래는 안 있었지. 바로 올라갔지.

지금은 배 안 먹어. 좋아하는 과일은 가을에는 대봉, 여름에는 복숭아

옛날에는 배 하루에 다섯 개도 먹었어. 우리 배는 언제 썩은 게 나오나 그랬어. 그랬더니 한참 길 헤매다 보니까 진짜 썩은 것도 많이 나

오고. 그런 배도 가져가면 싸게 팔고 그랬지. 하여튼 그 때가 좋았지 뭐. 지금은 가을에는 연시, 대홍감, 여름에는 복숭아가 좋아. 어렸을 때는 다 먹으면 일들이나 하러 댕기고 돈 벌러 댕기고. 어려서는 놀러 못 댕기고 처녀 적에는 놀러 안 다녔어. 직장도 나가고 그러니까 놀러 못 당기고 시집와서는 그래도 시누 시동생들 다 보내고 이제 나이 먹어서는 좀 가봤어. 옛날에는 다 먹고 사느라고 놀러 못가.

요즘은 팔각정에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놀지

사진 그런 거는... 그때는 사진도 찍을 줄을 몰라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 갖고 사진 찍는 거 뭐시라고 찍느냐고. 노인네들이 약간 그랬지. 그래서 사진도 없어. 애들 조그마했을 때 찍은 사진 있었을 텐데 없어. 찾아봤더니 없어. 우리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없어. 뒤늦게 그래서 사진을 뭐하니 하고서.



난 모산골서 배 받았지. 서재? 거기는 영신이니까 서재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틀리지. 거리가 머니까. 청룡동에 갔다가 1년 살고 왔어. (배
농사 이야기) 재미있지 뭐. 요즘은 집 근처 팔각정에서 화투하고 고스톱
도 치고 놀아.



나의 배농사 이야기

김현수



- 구술자 김현수(1952년생)
- 구술일 2020. 08. 20
- 주소 평택시 죽백동
- 면담자 박정민, 배재만, 임영애
- 구술장소 배다리도서관



1980년도에 평택에 왔습니다

원래 고향은 전라남도 벌교예요. 1952년 12월 13일생이죠. 보성에서도 논농사 밭농사 다 했어요. 사실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할 게 없어서 농사일도 거들어야 하잖아요. 더구나 아버님이 병에 계시기 때문이 일도 못하셨고 그러다가 안되겠어 가지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객지 나간다고 나왔죠. 왜 고등학교 못 갔나 하면 아버님이 원 하나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취직한다고 나와서 거의 일년 정도 취직해서 돈벌이를 했었어요. 부산에서 일, 이년 있다가 1980년도에 평택을 왔습니다. 1980년도에 와서 애를 그때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왔어요. 애도 하나밖에 없습니니다.

부산에서 미싱하는 사람들 미싱 고쳐주고 전기 만져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걸 하다가 여기 오는 계기도 이상하게 됐죠. 사실 내가 스물아홉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형제가 육남매예요. 제가 부산 살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몰렸어요. 어머니 한 분만 계시는데 그쪽으로 몰

려가지고는. 직장에서 이십오만원정도 월급을 받았어요. 1979년도에 그 정도에 받았는데 괜찮았어요. 직장도 편하고 기술적으로 했기 때문에. 형수고 동생, 제수씨도 있고 그랬었는데 다 직장에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집 사람만 안 다녔어요. 애 키우느라고 시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식구한테 그랬어요 “나 따라 와서 계속 살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자”. 그 결심을 해서 여기를 올라왔어요. 평택으로. 평택에는 1980년도에 올라왔어요.

평택에서 임대농을 하기까지 이런 일 저런 일

결심하고 여기를 올라왔어요. 평택으로. 옛날에 고향에 사는 사람이 평택에 와서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실 막상 오니까 할 게 없잖아요. 친구가 쌍용자동차 다녔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 때 당시 월급이 125,000원이었어요. (부산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제가 받았던 월급이. 사실은 한달 월급 받아보고는 돈이 너무 적어서 그 만 둔거예요. 그리고 과수 임대를 했었어요. 그 때만해도 평택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때 사실은 어려웠었으니까. 돈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집을 그때 시골에 죽백동에 집을 마련했어요. 허술한 집을… 허술한 집을 마련했다가 임대 농사를 질려고 보니까 그 때 당시 돈을… 집을 팔았죠. 그걸 받을, 임대를 얻은 거지요. 어렵게 시작했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하나 낳고 임대농을 하면서 당시에는 논농사도 얻어서 지었어요. 사람을 다 얻어서 농사를 짓다 보니 얻는 게 없잖아.

집사람하고 둘이 모내기를 한다고 어린애를 데리고 논두렁에 앉혀놨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논두렁에 빠지고... 그런 진짜... 굉장히 서글픈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송아지를 한우 송아지를 두 마리를 구입을 했어요. 집 산 데다 그걸 기르다가 그것도 또 돈이 안되더라구요. 그거가지고 안되겠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임대농을 시작했어요.

동작동 윤광한 씨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임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80%, 70% 되었어요. 자가 경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별로 많지 않았어요. 몇 평에 한해에 얼마 내고서 임대를 했어요. 임대료가 그 때 육천 평에 300만원 정도 냈네요. 그래도 300만원도 사실 그 때 당시에는 돈이 없었죠. 집을 팔아서 받을 임대를 얻은 거지요.

그 때 당시에 삼백만원 임대료를 주고 수확했는데, 칠백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배(배농사)를 사실은 처음이니까는 친구들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경매장으로 가는 거예요. 경매해서 수확을 다 해놓고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아주 그냥 책을 하나 쓴다고 하면 엄청날 거예요. 아마 사는 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예전에 그때가 돈이 모자라서 농사를 짓다보면 비료값, 농약값, 자켓값 모든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투자를 많이 해야 해요. 사실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옛날에 동작동에 윤광한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에게 빌렸어요). 그분이 계셨을 때, 저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였어요. 형

님하고, 동생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옛날에는 오이농사를 그쪽에서 많이 지으셨어요. 오이농사를 많이 짓고, 그 양반이 사실 내가 돈 모자라다고 하면... 제 (개인)은행이었어요. 거기서 돈 다 빌려줘서 또 농사지어서 갚고 그렇게 했어요. 참 고마운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당이 심해가지고, 감사하단 말씀도 못 드리고.

첫 임대농 천혜보육원 자리, 어딘지 아시려나?

총각 때 스물한 살 때인가 여기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따라 놀러왔다가 일년 동안 있던 때가 있었어요. 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농사를 짓는거예요. 먼저 했던 친구들한테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렇게 했었어요. 농사를 하면서 중간 중간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나, 절지도 언제할지 모르고, 유인이나 이런걸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서로 일도 도와주면서 배우고 와서 하고,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배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 같아요.

제일 처음 임대농 했던 자리는 옛날에 천혜보육원이라고 있었거든요. 한 오년 정도 했어요. 조동욱씨가 하는 과수원이 거기 있었어요. 그 분 거예요. 처음 임대료도 당시는 사실은... 모자랐었어요. 거기서 농사지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흔쾌히 그렇게 해주가지고 농사를 시작했어요. 원곡 가는 길 우측에 있었어요. 조그만 언덕에 그렇게 비

탈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원곡하기 전에 소사벌에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한 이천평 정도 과수원을 샀는데 수용이 되었잖아요. 소사벌이 수용이 되었어요. 그거를 농사 질만한 나이인데 보상 받아서 놀기는 그렇고 또 그만큼 토지를 원곡에다가 샀어요. 이정도만 가지고 소일거리만 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지금도 원곡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죽백동에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수용 되고 남의 땅이 조금 있어요. 왜 보상 다 안받고 남겼나 하시는데 그 부근에 있는 거를 더 살라고 그런거예요. 아주 쪼끔 열평도 안되고. 배나무가 한 평에 한 나무가 살아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배나무가 한 오십년 가까이 됐겠네요.

천혜보육원 쪽도 그렇고 소사벌 쪽도 수용이 되었는데 당시에 영농 보상이 있었는데 몰라서 못찾아 먹은거예요. 그래도 농사 지어서 조개 터쪽에 집을 한 칸 마련했어요.

농사짓는 거 잘 몰라 농약에 중독된 적도

처음 배농사를 지을 때 만해도 지금처럼 기계를 싹~ 끌고 가는 게 없었어요. 손으로 요렇게 요렇게 끌고 다녔던 거예요. 당시는 농사짓는 거 잘 몰랐으니까. 이 짧은 팔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독이 되었어요. 그 때가 1981년도 정도 되었겠네. 중독이 되어서 혼자서, 집사람은 또 어렸으니까 다른 일을 갖었어요. 혼자서 그 땐 약에 중독이 되

면 어지러워서 꿈쩍도 못해요. 마당에서 뱅뱅 도는데, 집사람이 와 가지고 약을 사다가 갖다 주는데 그거 먹고 금방 괜찮아지데. 지금 농약은 사람이 먹어도 안 죽는대요. 그전에는 피부에 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더우니까는 반팔을 이렇게... (완전히 다 써야 하는데). (그런 고생을 했지만)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또 어쩔 수 없더라구요. 이제 거의 한국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봉지 씌우고 슈고 접과 작업하고 하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했었어요.

배 하나에 손이 백번 간다고 하면

배 한번 만지는 게 손이 한 백번 간다고 해요. 보통 배농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 하나에 손이 백번 간다고 하면 굉장한 거죠. 배나무 전정서부터 시작해서, 거름 놓고, 유인이라는 게 잡아놓은걸 유인을 하는 거예요. 가지를 묶는 거예요. 덕에다가 묶는 거예요. 거름 놓고. 다음에는 거름 준 다음에는 냉해,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 살포를 해요. 유제를 살포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만든 약이지요.

이쁜 배 만드는 방법

봉지를 씌우는 것은 단지 색깔이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해서 봉지를 씌우는 거고 어떻게 해서 모양을 잘 만드느냐는 퇴비를 주는 거하고 거름 주는 거. 비료 주는 거에 달려있어요. 또 많이 줬을 때는 배가 튀

어나오고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예요. 적당량을 적당하게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뚱그렇게 예뻐지는 거예요.

옛날에도 봉지는 봉지공장에서 다 같이 나왔어요. 봉지 묶는 철끈은 잘라가지고 봉지에 맞춰서 같이 쥐요. 봉지를 안 씌우면 병충해를 견디지 못해요. 약을 수시로 계속 쳐야 되는 입장이고. 사과도 지금은 봉지를 씌웠다가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또 다시 뺏겨줘야 돼요. 지금도 봉지를 안 씌우고 배를 먹는다고 하면 약을 많이 치면 깨끗하긴 한데, 봉지를 안 씌우면 당도는 무지하게 좋아요. 또 햇볕을 받은 만큼 당도가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색깔이 안 나온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안 먹죠. 또 새까마등등 하니까는 지금 배농사도 모양 만들어야 되고 색깔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다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못 생겼다고 맛있는 게 아닌데 결국엔 눈으로 먼저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호도가 약해요.

배 거름주기도 힘 많이 들었죠

예전에는 (나무 주변을) 파서 (거름을) 줬는데 예전에는 그게 힘들은 거예요. 나무 주변을 뺨 돌려서 삽으로 다 파었어요. 다 파갔고 양계장에서 계분을 갖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계분이 삽으로 푸면 싹 다 눌러 붙어서 영 안 떨어져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 때 당시는 전부 그렇게 해야지 배가 당도도 나오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엄청 쉬워졌잖아요. 어떻게 하나면 양계장에서 퇴비를 만드

는 사람이 따로 생겼어요. 거기다가 왕겨 넣고 깻짖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분하고 섞어가지고 그걸 숙성을 시키는거죠. 한마디로 냄새도 덜 나고 발효가 되는거니까요.

예전에는 경운기나 트랙터도 별로 없었어요. 경운기에다가 퍼서 실고 퍼서 또 따고 그랬었는데 그 때도 경운기가 있었어요. 1979년도 그 전에도 여기 경운기가 있었어요.

그 때 당시는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농사짓다가도 1980년 후반부터 바닷물을 갖다가 살포를 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배 열매 속는 것을 그거를 또 숙성을 시켜서 그걸 또 살포를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배에는 별로 큰 영향을 안 받아요.

배포장, 배나무에서 배를 뺐다고 배가 아니에요

배 하나 하나를 공판장에 팔라 그러면 배를 하나 만들어야 해요. 배 나무에서 배를 뺐다고 배가 아니에요. 손질 다 해야 해요. 꼭지 따고 이물질이 묻었으면 닦아 줘야하고 거기다가 배 박스에다가 작업을 할라고 하면 거기다 일일이 담아야 하고. 옛날에는 배 작업을 해서 배를 따서 작업을 해서 올리려고 하면, 지금은 박스가 있어서 박스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는 상자에 넣었거든. 상자에 담아서 왕겨를 사이사이에 끼웠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 나지 말라고 짚으로 사이에 끼워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박스에 나오고 난자라고 해서 종이에 딱딱 담아서 넣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졌잖아요. 그마만

큼 작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전에는 배 작업 박스도 15키로면 딱 한정이 되었어요. 우리 이수회 작목반이 하상호씨라고 그분이 맨처음 회장을 봤어요. 제가 총무를 맡았고, 그분이 회장을 보면서 박스를 들고 다니는 가방끈을 만들었어요. 최초에 그거를 특허등록을 했는데 사실은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약간 변형해서 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당시에는 처음에는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 만들어서 다 해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특허내도 소용이 없고 그래도 소비자들이 15키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보단 7.5면 반 박스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또 5키로짜리 한다고 자꾸 그래. (5키로면) 두세 개 들어가는 건데 소비가 그마만큼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배의 유통도 다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 1

당시 배를 사실은 처음이니까는 친구들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경매장으로 가는 거예요. 경매해서 수확을 다 해놓고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아주 그냥 책을 하나 쓴다고 하면 엄청 날거예요. 아마 사는 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봉지로 싸가지고 밭대기로 넘겨보지를 앓았는데 전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봉지만 씌워가지고 그냥 팔아요. 지금까지도 창고에 저장을 해가지고 엇그저께까지 다 팔았어요. 7월말까지 다 팔았어요. 매년 저장고를 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니까.

1980년에 처음 배농사를 지을 때부터 창고를 지으면서 저장고를 따로 만들어요. 저장고를 만든다든가, 창고를 만든다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저장을 했다가 봉지로 밭대기로 파는 것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삼십 년 이상 농사를 짓다보니까 그렇게 팔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작업을 해서 파는 게 나아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보면 만평, 만오천평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저는 농사를 칠팔천평 많이 해야 그 정도 밖에 안했으니까 지금까지도 거의 만오천평 이상 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하는 거나 수입은 다를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배의 유통도 다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 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이 인터넷 판매라든지 밭대기로 판다던지 다 그런 과정이잖아요? 유통이 그러면은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런 데다가 대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경매장에 직접 가지고 와서 경매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15명이 작목반을 했었어요. 작목반을 하면서 인터넷 판매도 해보고 마트에다가도 해보고 꾸준하게 그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꾸 바뀌어요. 마트에서도 더 좋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또 옮겨져요. 그리 들어가다가도 안 받아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농사 짓기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주는 게 아니고 바뀌니까는.

내가 키워서 손해 보고 가서 가게에서 보면은 가격은 더 비싸 있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중간사람들이 중간 마진을 먹어야 되

니까. 사실은 우리는 15,000원, 20,000원에 냈다 그러면 박스 하나당 20,000원이라고 하면 어떤 데는 60,000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서 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안 한다고 하면 못해요. 유통하는 거 별거 다 해봤어요. 사실은 그게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제일 자유로운 건 농사 진 거 경매장에 갔다가 두면 10원이 됐든 100원 됐든 팔아서 바로 바로 돈이 나오니까.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가야 할 배농사의 어려움

올해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기술도 하나도 보급이 안 되고 전국농업기술자협회라고 거기 회장을 맡아서 사무국장을 육년을 하다가 올해 처음 제가 이거 회장을 맡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하나도 못 했어요. 회원이 150명이 되는데 단체를 모이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올해 시에서도 육백만원 예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용도 못 해보고. 코로나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비 오는 것도 지금 농가들은 전부 피해가 많아요. 벼농사나 배농사나 채소농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피해가 많이 생겼어요. 병충해라든지 채소 같은 거는 심으면 녹아버리고, 약 살포를 많이 해 쌓아두면 금방 물러버리고 그런 게 많더라구요. 올해 냉해 피해라고 착화가 안 되었어요. 아주 깊은 밭이라든지 평밭 밑에 둔턱에는 배가 안 달렸어요. 꽃이 다 얼어 죽었었죠. 수술이 시커멓게 타 버렸어요. 암술, 수술이

있는데 꽃 수술이 다 타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겼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7월까지 배를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했는데 코로나 아니었다면 배 단가가 상당히 썰을 거예요. 15키로 한 박스가 100,000원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먹는 거를 안 먹는 거예요. 단체도 안하고 먹는 거를 덜 먹고 하니까 절반 값이 떨어지다시피 한 거예요. 코로나가 또 지속적이면 올 농사지은 것도 또 마찬가지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거예요. 왜냐면 수확량이 주니까 수확량이 30~40% 줄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확량이 줄었으니까 배를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기후와 농사 그리고 보험

몇 년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작년도도 태풍이 왔었어요. 태풍이 와서 바닥에 허영게 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바닥에 허영게 떨어졌는데도 다 모여 놓고 세어 보면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주로 보험을 많이 넣어요. 냉해 피해 있다는 것도 종합보험이 들어간 거고 보험료가 비싸요. 태풍, 우박이 보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짓다 보면 90% 떨어진 사람도 있고 태풍에 어떤 사람들은 30%, 20% 다 다른데 보험이 자부담이 10%, 20%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 떨어졌는데 10% 제하고 보험료를 받아야 되요. 보험을 들어도

어차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소용은 없더라고요. 보험은 십오년전부터 들었어요.

지원이 더욱 필요해

지역에서 농사를 짓다보면은요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농기계, 농기계를 저렴하게 사는 보조사업, 농사를 짓다보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행위를 안 했을 때는 또 지원을 안 해 줘요. 정부에서. 그런 거를 다 해야 되요. 보험을 들고 덕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안 하면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또 덕 시설이라는 거는 나무가 이렇게 쪽~ 있는데 여기다가 와이어 줄을 쪽 해가지고 아까 배나무 유인한다고 했잖아요. 가지를 묶는 거예요.

가물면 가문대로 배가 안 커요. 배는 물을 많이 먹고 수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관수 시설을 해야 되요. 이런 거를 다 할려고 보면 보험 들어야지, 수출해야 되지. 그런 거 안 하면 지원이 또 안 되요.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보면 사실은 농가도 맨날 피해를 보는 거죠. 수익이 별로 없어요.

배농사,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배 값이 좋아졌든지 농사짓는 게 더 쉬워졌든지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옛날에 농사지을 때는 유인 작업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과수나무 묶어서 유인을 묶어놓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정을 다

그냥 잘라내고 그대로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으니깐 힘이 별로 안 들었어요. 지금은 오래 돼 이걸 잘라내요. 잘라내고 다시 헛가지를 받아서 키워서 유인을 해야 되니까 일이 곱으로 늘면서 사실은 돈은 돈대로 또 맨날 마찬가지로 올라간 게 없어요. 일만 더 늘고 나이가 먹을수록 일만 점점 더 하는 거예요. 대신에 농기계가 자동화가 됐으니까 그건 좀 편하다고 봐야지.

옛날에는 우리 시작할 때는 경운기 밖에 없었잖아요. 경운기하고 모터로 소독하는 약 주는 거 모터에다 해 가지고 손으로다 다 주고. 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다 뿔뿔통에다 약 집어넣고 손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혼자 따로 가서 약을 주는 거죠.

옛날에는 나무도 높았어요. 지금처럼 안 낮았어요. 굉장히 높았는데 작은 샤우데라고 하는 건데 약주는 거보고 작은 걸로 하면 안 닿으니까 이렇게 긴 걸로 주고 나면 어깨 목, 다 아프죠. 그때 참 힘들었죠. 지금은 나무 수령을 다 낮춰놨잖아요? 낮춰가지고 거의 키 높이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손으로도 닿기도 하고. 약 주는 것도 기계화 되고 경운기 다음에는 트랙터가 나왔던 건데 트랙터에는 소독하는 것도 뒤에다가 트랙터 뒤에 메다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뿌려져서 약 나가고 그랬는데 그게 나오면서부터 훨씬 편해졌죠. 대역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기는 해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는 팔아요. 제가 다시 인수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평택 과수농협회장을 지내며

당시 농사를 짓다보면서 배 작목반이 있잖아요. 평택과수농협에서는 작목반이 삼십 몇개가 있었어요. 평택 이수회 작목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는 총무를 사오년 봤을 거예요. 회장을 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며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도는 다 해 본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해 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구요.

평택 배품종의 변화와 이유

예전에는 장십당, 조지로 일본배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만상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배 이름이에요. 장십랑, 조지로, 금촌주, 이마무라, 금촌추를 이마무라라고 했어요. 현재는 거의 다 신품종이죠. 최근에 신화라고 들어온 게 있어요. 최근에 들어온 게 있는데 보급이 되지 않았었어요. 아직까지 신고를 많이 기르죠. 당시에는 장십랑이 많았어요. 이유가 그게 일찍 따는 거거든. 추석에 일찍 따는 거거든. 원황은 최근에 들어온 거고 (추석에 따는 배는 맛이 없으니까) 신고가 정상적으로 익혀가지고 따야 되는데 그 지배린이라고 약제를 발라가지고 추석 때 따는 거거든요. 지배린이라는 약제를 발라주면 숙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빨리 크고 빨리 따고 장십랑이 예전에 추석용으로 굉장히 한참동안 오래 했었어요. 그게 추석에 며칠 기간이 있으면 그냥 물러요 배가.

지금 원황이라는 배도 며칠 지나면 물러요. 신고는 아무리 저장을

해 놔도 무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신고를 선호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장십랑이 없어지면서 원황이 많이 나왔었죠. 원황을 많이 교배를 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르니까 그것도 절제가 되는거고 신화가 2개월은 버텨요. 2개월 동안 괜찮아요.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이 괜찮아요.

배 농사 방법의 변화

예전에는 정식으로 해서 10평에 1주였는데 지금은 밀식이라고 해서 반정도 5평에 1주가 또 들어가요. 원곡에는 그렇게 심었죠. 수확량이 줄어들지는 않은데 먼저 수확이 가능하죠. 인제 정식했을 때보다 밀식을 했을 때가 수확이 먼저 많이 나오니까 나무가 많은 만큼 많이 더 나오잖아요? 수확이 더 빠르고.

배농법의 연구와 교육

평택시농업기술센터라고 있잖아요. 기술센터에 가보면 뒤쪽에 과수를 심어서 해 놓은 게 있어요. 올해는 개발한다고 다 뽑아서 잘라 냈더라구요. 거기다가 지어놓고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기술센터에서 과수농가들 수시로 기술센터하고 연관이 되어서 가서 하고 보고.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많이 했어요. 연간 3~4회 어떨 때는 5~7회까지 있고. 작목대로 연구회가 있어요. 쌀 연구회, 배 연구회 우리 평택에서도 그런 연구회가 많이 있어요. 연구회에서 기술센터에서 겸학수 과정

이 기술 보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고 농민들이 사실은 잘 알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은 전문가들이 많이 알죠 농사를 오래 짓다 보니까 교육보다는 사실은 실기가 문제더라고요. 시범농사를 하려고 하면 전농사를 다 시범으로 하면 안돼요. 굉장히 일부만 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두세 나무 정도 실험을 일년 동안 한번 했다 이게 괜찮다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일년농사인데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면 일년 농사 다 실패하는 거예요. 꼭 농사 짓는 거는 실험용으로 한번 했어야해. 해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배 고르기

맛있는 배 고르는 거는요. 배 한 덩어리가 있으면 조금 아주 딱딱하게 보이는 배가 있어요. 그건 먹으면 굉장히 너무 딱딱하면 맛이 덜해요. 조금 맑아 보이는게 있어요. 들어보면 맑아 보이는 게 맛이 좋죠. 어두워 보이는 건 맛이 덜하다고 봐야죠. 대신에 배가 빨갭게 보이는 게 있어요. 빨갭게 보이는 건 햇볕을 좀 더 받았다는 건데 이런 건 당도가 더 높아요. 농사지으면서 맛내야 되고 모양 이쁘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쁘게 하려다 보면 맛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맛이 떨어지면 조금 더 이뻐지는 거예요. 햇볕을 많이 보면 배가 그만큼 당도는 올라가요. 맑은 것보다도 조금은 어두운 게 당도는 올라가요. 배 맛은 더 나아요.





백 번을 만져서 배

이동재



- 구술자 이동재(1960년생)
- 구술일 2020. 08. 25
- 주소 평택시 청룡동
- 면담자 공명운, 김예주, 노윤홍, 한다희
- 구술장소 배밭

내 고향은 청룡동, 1981년도 평택으로 편입됐어

나는 옛날에 태어난 고향이 평택시가 아니라,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청룡동, 청룡리지.

401번지에서 태어났고 1960년 6월 27일생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청룡동에서. 1981년도에 평택으로 편입이 됐을 거야 아마. 1981년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평택시로 편입이 되었던 거고. 우리 동네가 한 220가구, 우리 동네가 최고 넓어, 청룡동이. 나는 저기 죽백 1리에 있는 죽백초등학교를 나왔지. 청룡동 애들은 다 죽백초등학교를 다녔어. 아버지는 원곡초등학교를 나왔지. 그 당시에는 죽백초등학교가 없었으니깐. 우리 누님부터 죽백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닥에 명석 피고 공부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내가 동고 9회 졸업생이야

고등학교는 신한고 나왔는데 그때는 동고라고 했었어. 내가 동고 9회 졸업생이야. 그 당시 학교 아래쪽으로 자취집들이 많았지. 거기 운

동장 밑으로 자취생들이 많았었어. 그때 당시 만해도 버스가 많이 없었어. 그래서 조금만 집이 멀어도 자취생활 했지. 난 걸어서 많이 다녔지. 걸어서 한 시간 걸려



요. 비 오는 날엔 여학생들이 앞에 걸어가면 뒤에서 발로 물웅덩이를 뺑 차고 했지. 길이 비포장이라 길에 고인 물이 많이 있걸랑. 그러면 여학생들 등허리에 물이 튀겨 하얀 교복을 버리게 만들곤 했지. 개구진 애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걸어 다니면서... 나는 하진 않았지. 나는 원래 순진해서 못 했어. (웃음) 이십 리 되는 등갯길을 친구들끼리 같이 다녔고 가는 길에 다른 애들도 만나고 했었지. 그때는 그렇게 걸어서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 그때 원곡 길도 비포장도로였고 어쩌다 버스 한 번 타면 도로가 나빠 가지고 버스가 물웅덩이를 지나가면 들썩해서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였어.

옛날에 군대 갈 땐 환송식을 해줬지

나는 1981년도에 군대를 가서 1983년도 말에 제대를 했걸랑. 군대 사진은 이거밖에 없어. 맨 먹는 것밖에 없어. 방공포 미사일 부대에 근무했는데, 나는 사무직으로 근무해가지고 팀 스피리트 작전에도 참가하지 못했어요. 군산 미군부대 7030부대에서 근무했는데 미군부대에

공군하고 방공포하고 발칸하고 그 안에 다 있었어.

옛날에 군대 갈 때엔 동네 후배들이 환송식 같은 거 다 해줬지. 내가 군대 가고 나서 그런 거 다 끝난 거 같은데. 하하하 그때는 밴드 부르고 다 했었는데... 그 당시 내가 군대 갈 때 쌍용동이 안성에 속해 있어서 같이 군에 간 안성 장정들이 많았지. 그래서 자대배치를 같이 받아 내가 군 생활을 편하게 했지. 옛날에 안성 열차가 있었어. 안성 역에서 집결해가지고 천안 가서 갈아타고 논산 훈련소로 같이 가고 그랬지. 내가 제대하고 안성선도 없어진 거 같더라고.

내가 장가갈 때

내가 장가는 스물일곱 살에 가고 싶었는데, 되게 가고 싶더라고. (웃음) 그때 한 번 놓치니까 후유증이 오래 가. 5년 있다가 터미널 옆에 있던 평택예식장에서 결혼했지. 1991년 1월 6일 내가 친구 엄마가 소개 시켜줘서 결혼했는데 집사람은 여기 계양 근정리 사람이야. 사진빨만 이렇지 못 생겼어요. 하하하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었어. 돈을 너



무 많이 가져가서 다 쓰고도 돈이 남았지. 제주도에 택시 임대해 가지고 다녔는데 팁도 하루에 5만원씩 주고 다녔어. 계약에 다 포함되어서 안 줘도 되는데도 준거여. 택



시 운전사가 둔포에서 왔다고 그래서 줬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데 평택 가까운 곳에서 왔다고 하면 잘해줄 줄 알았는지 둔포에서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5만원씩 줬지.

내가 결혼을 늦게 했어도 딸 시집은 빨리 보냈어. (웃음) 내 친구들이 지금 자식들은 커도 손주 안 본 애들이 많아. 난 외손자가 둘인데 친손자는 힘들어. 늦둥이로 아들을 낳았는데 잇그저께 군대 제대했어. 지난 16일이 내 생일이어서 생일파티 했지. 돈 케익도 받고 했는데 기분은 좀 묘했지.

욕심이 없으면 저절로 깊어가는 우애

우리 형제들은 4남 1녀예요. 나는 1남 2녀. 누님은 한 분인데 나이

차이가 19살 차이야. 원래는 6남 1녀인데 누님하고 큰형님 사이에서 둘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열아홉 살 차이지. 그전에 애들이 우리 집에 놀라왔을 적에 (누나를) 엄마라고 생각했을 정도야. 처음에는 애들이 엄마인 줄 알았지. 하하하하 나이 차이가 많았으니까.

누님은 시집을 늦게 가셨어요. 나 어릴 때 가지긴 가셨는데 그때가 구식으로 해서 시집가셨어. 지금은 예식장이 있지만 구식으로 예식을 해가지고 그거 뭐야 잿기름 뿌리고 할 때였지. 잿기름도 뿌리는 것도 봤고. 닭도 이렇게 앞에다 진열해놓고 예식하는 걸 봤지. 쪼그마할 때. 지금 누님 사시는 곳은 공도 만정리야. 만가대라고 하지. 만가대. 거기 살고 계셔요. 매형은 돌아가셨고 아들이 거기서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러다 남에게 세를 주고 이제는 건물 짓고 누님하고 살고 있지 거기서.

형제간에는 단합이 잘 되어서 다투는 일이 없지. 사형제지간에 다투는 게 없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지. 내가 보기에 악이 없으면 저절로 되는 것 같어. 욕심이 없으면. 상속문제도 아버지가 생전에 너는 이거 막내는 이거 이렇게 나눠 놓으셨지. 예전엔 장자 이름으로 땅이 등기되어 있어서 나중에 매매로 해야 했지. 나도 이 땅 매매로 해서 등기 이전하는데 세금이 삼천만원 들었지. 그때 당시에. 요새는 형제들 간에 법정 다툼 많지 않아? 저기 위에 있는 집도 말도 못해요. 땅값이 비싸져서 요즘은 땅값 때문에 형제간 싸우는 집이 많지. 예전엔 땅값이 싸서 신경도 안 썼는데 요즘 땅값은 거의 평당 4-500만원이라 말도 못하지. 옛날에는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나.

옛날에는 고래 눈 가지라면 안 가졌지. 경지 정리가 안 되어 농사짓기 힘들었거든. 아주 옛날에는 고래 눈에 물이 생기니 모내기에 좋은 거 아냐 그래서 좋아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땅이 돈 되는 땅이지. 그런 땅이 돈이 엄청 비싸다고, 경지정리 된 땅보다 차이가 말도 못하지. 경지 정리 된 땅은 절대농지라 땅값이 싸고 잘 안 오르거든. 여하튼 우리 형제들은 누가 아프면 다 모이고 그래요. 우애가 돈독하니까. 지난번에도 둘째 형님 수술했는데 형제들 간에 돈을 모아 주고 그랬지. 그래서 남들이 부럽다고 한다니깐. 알아서 서로를 배려하니깐. 만나기만 하면 술이야. 요즈음 내가 술을 안 먹다 보니까 내가 운전기사여 기사. 옛날에는 내가 많이 먹었는데 내가 안 먹으니깐 기사가 되어 버렸어. (웃음)

법 없이도 사시던 아버지

부모님은 과수농사를 하지를 않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과수나무를 심었을 거야. 농사짓다가 백 주 정도 심으셨지.

우리 아버님은 뭐, 법도 없이 사시는 착하신 분이셨지.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하신 분이야. 내가 아들이어서 아버님 편드는 게 아니라 생활을 그렇게 하셨어요. 동네 누구라도 다 그래요. 법 없이도 사는 분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아버지는 막걸리 좋아하셨지, 반찬보다도 더. 옛날 어르신들 막걸

리 안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나. 어머니는 좀 완고하셨지. 성격이 아버지하고는 틀려. 어머니는 고생하면서 땅 좀 더 살려고 노력하시던 분이야. 아버지하고 좀 성격이 반대셨지. 허허허. 나도 지저분한 걸 싫어하는 거 보면 아버지 닮았나 봐. 지저분한 걸 싫어하고 너무 깔끔해서 돈이 안 생긴데. 어느 정도 지저분해야지 돈이 굳는데 깨끗한 사람은 돈이 안 굳는다고 하더라고.

아버님하고 어머니는 10년 차이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1985년도에 어머니가 1995년도에 돌아가셨지. 그 당시 부모님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걸 항상 말씀하셨지. 어디 가서 말썽피우지 말라 하시고... 초등학교 때 불량난 하다가 책보 태워먹고 했지만 중학생부터는 그런 거 없었어. 농사일이 바쁘니 부모님 농사 일 도와드리면 좋아하시고 그랬어. 그때 당시에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나? 배고플 텐데. 모내기 철 바쁠 땐 친구들 하고 같이 이집 저집 친구집을 다니면서 모내기 도와 드리기도 했지. 그때 당시엔 거의 다 못살았기 때문에 나도 산에 가서 나무도 굽어오고 술도 따고 구주박(고주박)도 캐고... 산에 가서 땀을 흘려왔지.

끈개가 뭐냐면 황소를 길들이는 거야

끈개도 끌어보고 다 했는걸. 끈개가 뭐냐면 황소를 길들이는 것이야. 이렇게 세 갈래로 된 나무를 소 뒤쪽으로 묶어 그 나무 위에 사람을 태우고 황소가 끌게 해서 소의 힘을 빼는 거야. 소를 지치게 해서

소를 길들이는 것이야. 이런 걸 하다 보면 동네 애들이 자기들도 태워 달라고 해서 태워주면 좋다고, 재미있다고 했지.

감투는 싫지만

나는 감투 쓰는 거 싫어해, 감투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해야 하는데 나보고 하라는 거야. 감투 쓰는 거 난 싫어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통장일도 많이 수월해졌지. 동네방송도 옛날같이 많진 않다는 얘기지.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순 방송으로만 했잖아.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문자를 동민들한테 다 보내니까 그렇게 방송할 일이 많이 없더라고. 그래도 동네에서 누가 초상 당하거나 결혼하고 그런 거는 또 다 방송을 해줘야 하지. 난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 자율방범대원도 5~6년 했거든. 그때 뽕소니범도 잡고 했었어. 새마을 지도자도 했었고 재향군인회 모임은 지금도 하고 있지. 그런데 요즘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려 하지 않지.

우리 마을 행사는 초복에 노인정에서 삼계탕 나누는데 요번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뭐 끓여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지. 초복에 삼계탕 나눠주고. 중복은 안 했고 말복에 삼계탕하고 떡 다 나눠줬지. 집집마다. 나하고 저기 노인정 총무님하고. 애기 엄마하고 집집마다 나눠줘야 될 거 아냐? 그렇지 않으면 회관에서 이렇게 해갖고 누구 초청도 하면 좋은데 하질 못하는 거야. 그거 안 하는 동네도 많대요. 우리 동네는 특별나게 하는 거여.(웃음)

상여 나간 것도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같아

옛날엔 동네 어르신 돌아가시면 달공(봉분 만드는 과정에서 흙을 다지는 행위)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달공이 거의 없어. 달공을 하면 상주가 고맙다고 백만 원이고 얼마씩 동네에 내 놓잖아. 상주가 그렇게 장례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내줘요. 그러니 그게 동네 자금이지 뭐. 내가 볼 때 상여 나간 것도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같아, 상여 쓴 게. 옛날에는 개울가에다가 상여집이라고 지었잖아, 마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상여 집 짓고 그랬는데 다 없어졌지. 옛날엔 거북이 놀이도 하고 그랬지. 수돗가에 있는 이파리 엮어갖고 뽕과리 치고 징 치고 이런 거 다 했는데 안 한 지 오래됐어. 세월이 갔으니깐. 지금 옛날 노인 양반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뽕과리 치는 분들이 없잖아. 뽕과리 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없어졌어.

과수원은 사계절 쉬는 날이 없지

청룡동은 과수원이 많아. 과수농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이 과수농사는 사계절이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품 팔아먹기 딱 좋은 데가 과수원이야. 꼭 사계절을 거의 일해요. 그래서 저어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사 와갖고, 여기 정착한 사람이 많아요. 남한테 배울 것도 없어요. 남들 하는 거 보고 조금 그러면 약주는 거, 조제하는 거는 농약사에서 하고 그러니까. 병충해 있을 때는 상황판단 해갖고 무슨 약이 필요한가 하는 거는 그때 당시 주고 그런 거지. 농사짓는 거에

대해서는, 돈 없이는 힘들어요, 지금은.

맨 처음에 전정을 해야 하잖아 전정, 가지치기. 겨울에는 한 11월 23일부터 시작해요. 11월 23일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3월 5일까지 해요. 그다음에 봄이 되면 유인을 해요, 유인. 가지를 휘어잡는 거. 조금 있으면 화접을 시켜. 거기다 애벌숙기를 해요. 애벌숙기하면 또 마복기라고 하는데, 인제 드문드문 두는 거야 배를. 너무 바짝 두면 배가 안 크니까. 그다음엔 마복기 끝나면 봉지를 씌우지, 봉지 씌우면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확한 다음에 창고에 보관했다가, 꼭지를 쳐요. 꼭지치기. 그러다가 저온 창고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청과로 작업을 하는 거지. 배는 처음부터 자기 입에 들어갈 때까지 백 번을 만져야 돼요. 그래서 배라는 거예요, 백 번을 만져야 배야.

배밭에도 안테나가 있어

옛날에는 어떤 과수원마다 조생종이 많았다는 거야. 배나무 종류가 많은데 장십랑이 많았어요. 금촌은 이마무라라고 그랬지. 그게 일본 사람이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생종은 가격이 안 나오는 거야. 시세가 안 나오니까 나무들 다 베어버리고, 앞집 시키잖아요? 그거를 장십랑, 금촌에다 가지를 붙여서 신고가 돼버린 거예요. 밑둥어리는 조생종이지만 위에 나오는 거는 신고란 말이에요. 조생종은 꽃가

루가 엄청 많아. 근데 신고는 꽃가루가 없어요. 벌이 안 앉아. 그래서 조생종 그건 전부 화분수로 쓰더라고. 원황도 꽃가루가 있어서 화분수로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벌들이 이 화분수에만 앉아요. 화분수가 많은 옛날에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안 찍어도 화접이 잘됐어요.

과수원에 보면 중간중간 화분수를 고접시켜놨어요. 그게 인제 옛날부터 안테나라 그래요. 누가 부른 것인지 안테나라고 부르걸랑. 그게 화분수예요. 신고 나무에 햇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금촌추라고 있는데, 금촌 그 가지를 잘라서 신고 나무 앞눈에다가 붙여야 돼. 앞눈에다 붙이면 가지가 쪽 뺏어나와요. 잘 붙는 거는 금방 붙어. 꽃눈에다가 붙이면 가지가 안 나와.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접시키는 거야. 안테나라는 게 이거지.

배꽃이 피면

4월 19일쯤 되면 화접을 시켰걸랑요? 꼭 비가 와. 화접 때. 근데 온난화 때문에 지금은 4월 한 25일 그때 화접시켜요. 조생종, 그걸로 꽃가루 채취를 해요. 그리고 꽃가루만 하면 너무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석송재라고 해서 섞는 게 있어요. 색깔이 있어서 찍으면 표시가 나. 그거 섞어서 시기에 맞춰서 화접 시키는 거지. 꽃가루를 꽃에다가 찍어요.

화접을 꽃으로 직접 해도 돼요. 여기도 조생종이 많으니까 자기 밭에서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통째로 암꽃에 찍어요. 가지가 있으면 꽃이 막 폈단 말이야. 살짝만 닿아도 꽃가루가 노랗게 묻어요. 가지를

조금 잘라서 집게로 물려서 그냥 하나 가지고 막 찍어낸다고. 그것도 잘 돼요. 원래 그렇게가 더 잘 되는거여, 그게. 원액으로 완전히 묻는 거니까, 확실히 돼요. 근데 사다리 타고 그걸 일일이 찍으려면 사람들이 하기도 싫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렇게는. 그럼 드문드문 찍어도 돼. 꽃마다 다 안 찍어도 돼.

붓으로, 면봉으로 찍는 사람이 있고, 짧은 시간 내에 화점을 시키려고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 사람 힘으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기계도 여러 가지유. 러브터치라고, 누르면 돌아가서 공기가 나가면서 꽃가루가 조금씩 같이 날아가요. 그렇게 해서 꽃에다가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약차 뒤에 설치를 해. 그러면 골과 골 사이에 약차가 다니는 거야. 짧은 시간에 화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지. 근데 정확한 건 면봉으로 찍는 건데, 더디니까.

화점이 잘 되면 배 모양이 달라요

화점이 확실히 되면, 배 모양이 달라요. 씨방이 그 안에 여덟 개면 여덟 개 다 표시가 나. 이게 화점이 좀 덜 되었다 그러면, 씨방이 짱구가 돼서 배가 찌그러져. 그래서 모양이 잘 나오려면 꽃가루를 제대로 묻혀야 돼. 화점이 잘 되면 한 송이에 보통 배가 다섯 개 정도 나와요. 애벌썩기는 거기서 두 개 내지 하나 남겨놓고 배를 다 따버리는 거여. 배가 네 개, 다섯 개 붙어 있으면 거기서 좋은 걸 남겨둬야 돼. 맨드라미(모양)가 좋고 꼭지 굵은걸 남겨 줘야 하는데 대부분 세 번째 것을 두

지. 나무에 붙은 게 1번이야. 첫 번째 것은 배는 큰데 모양새가 없어. 배꼽 있는 데가 맷돌같이 생긴 거여야 해. 맷돌같이 꼭지가 있고, 배꼽이 있는 데가 납작하게 쪽 들어가야 좋다고. 세 번째 것을 보면 대부분 맨드라미가 좋지. 배 모양이 동그래야 해. 이걸 가지고 맨드라미, 맨드라미 그래.

마뽀기는 애벌썩고 꽃마다 남겨놓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드문드문 뒤야 된다고. 1m 20cm 정도 가지에 다섯 개만 두면 되는데, 너무 붙어서 배가 열다섯 개, 열여덟 개 붙으면요, 배 크기가 작아져서 팔기 힘들어져요.

농사도 머리를 써야 해

지금은 농사지어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약값하고 거름값하고 무조건 다 들어가야 하니까. 거기다 비료 있지, 도지값까지 들어가야 하니까. 인건비는 몇 곱 들어가요. 조그마한 거 이천, 삼천 평은 식구끼리 하는데 오천 평 넘으면 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와서 하지 않으면 일이 되질 않아요. 한번 인부들 들이면 몇백만 원씩 나가요. 유인하는 것도 며칠을 한단 말이에요. 애벌 썩는 것도, 마뽀기 하는 것도 며칠을 해야 하고. 화점 때도 꽃마다 다 찍으면 난리 나요, 품값이. 우리요, 꽃가루가 너무 많이 붙어도 품값이 천 원 들어갈 거 이천 원 들어간다니 까요. 화점이 다됐다간 오히려 손해여 손해. 배를 어느 정도 달아야 하는데, 욕심부리면 안 돼요. 많이 단다고 좋은 게 아니여. 봉지 하나에

27원, 30원 막 가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덜 달아도 배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머리도 써야 하지.

그전에 들어보니까 배봉지 씌우는 기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일본서도 개발한다는데 못 만든다잖아요. 누르고 딱 당기면 봉지 씌우기가 되는 거. 이게 봉지를 싸려면 이파리를 제치고 해야 하는데, 배만 달랑 쪽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파리 다 섞여 있는데 아무래도 어렵지. 국내에서도 시행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쓰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실용성이 없는 거 같으니까. 봉지 싸는 거나 뭐나 하여튼 사람이 하지 않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해야 하는 거지.

배 수확은 3년째부터 따요

배는 3년째 나무부터 따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배를 따 버려요. 영양분이 배에 들어가서 나무가 덜 자라기 때문에 3년 정도는 배를 그냥 따 버린다고. 그때는 수확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한 4년, 5년 돼야 자꾸만 수확량이 느는 거지. 배나무 수명 80년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확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보통 한 30년 되는 거는, 가지가 많으면 배가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본인들이 가지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배를 많이 두는 거고, 욕심 안 부리고 배를 좀 크게 키워본다는 사람은 가지를 드문드문 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한 나무에 한 200개는 달지. 그래도 200개는 많이 안 다는 거여. 한 300개 350개만 달아도 괜찮은데.

배 수확과 저장

겉 표피 보면 배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육안으로 보이지. 빠른 사람은 숙성시킬 배를 9월 25일부터 따더라구.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저장을 오래 하려고 일찍 따는 거야. 일찍 따면 배가 오래가는데 당도가 좀 덜 나가지. 근데 당도가 높으면 저장성이 없어. 창고에 들어가면 단내가 나. 신고 배는 서리 오기 전, 10월 중순까진 다 따지. 따기 시작하면 따는 건 금방 따. 부지런한 사람들은 식구끼리 따는데 뭐.

배를 수확할 때, 맨 밑에 배꼽이 있는 데를 살짝만 들어주면 금방 떨어져요. 잡아당기면 안 떨어지고, 들어야 돼. 그럼 힘없이 떨어져요. 그거를 작업장에 차곡차곡 갖다 놓고, 뒀다가 거기서 이제 탈봉을 하는 거지. 탈봉을 하면서 꼭지를 치고 선별도 하는 거지. 특도 있고, 상도 있고, 중도 있고. 아주 작은 거는 과일주스 만드는 공장 그런 데로 가고, 물기스(물흙집) 심한 거는 버리는 거고. 흙집 조금 있는 거는 뭐, 나뉘서 어떤 사람 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사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은 자동화되어서 저울로 재면 배가 툭툭 떨어지잖아요? 생각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손다마로 해서 담아살이 했던 말이에요. 나무상자 못 박아서 그걸로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장을 못 해요. 거의 다 그냥 파는 거지. 지금은 다 현대화되어서 뭐, 편한 거지. 옛날엔 다 자기 힘으로만 하는 거지. 약차가 어땀어. 손으로 다 당기고, 발로 밀고 그거지 뭐.

올해는 배가 없어서 봉지 씌우기도 일찍 끝났어요. 많이 싸면 보름

싸. 15일에서 20일. 작년에 비해 배가 반도 안 돼서 봉지 9만 장 쌀 걸 이번엔 2만 2천 장 썼어. 그리고 작년 배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나와. 작년 과일이 재고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소모시키기 위해서 금년 배는 단가가 안 올라가요, 지금. 인건비는 뭐 자꾸 올라가고, 배 시세는 항상 그 타령이고. 그리고 코로나 문제로 장사가 잘 돼야 뭐가 팔리지.

농기 비용 다 마련하려면 힘들어요

트랙터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운반도 해야 하고, 풀 깎는 것도 트랙터 예초기가 있어야 하고. 승용 예초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정부 보조사업 안 받고 사려면 1650만 원이에요, 조그만 게. 약차 한 대만 해도 한 삼천오백에서 오천오백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사람이 바깥에 노출되는 게 있고, 차같이 안에 들어가서 주는 약차가 있고.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면, 우비 쓰고 해도 약이 다 쳐들어오니까. 오천 오백짜리는 사람 얼굴 같은데 약을 안 맞고 지으라고 나온 거지. 돈 있는 사람은 좋은 거 쓰는 거고. 약차만 해도 정부 보조사업 없으면 사기가 힘들어요. 보조사업이 오십 프로니까. 기껏값도 만만치 않지. 연수가 오래되면 기계 바뀌어야지. 쓰다 보면 고장 나잖아. 할부 끝나기 전에 차 바꾸잖아. 그런 식이여. 오래 써야 본전을 뽑는데.

옛날에는 정부 보조가 잘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저온 창고 보조사업 없어진 게 15년이 넘었어요. 내가 시청에 가서 저온 창고가 필

요한데, 신청 좀 해달라 그래도 계획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해서 자비로 다 한 거지. 작업장을 다 지어놨는데 저온 창고를 너무 늦게 지었어요. 과수 농사 제대로 질라 그러면은 자기 영토가 없어도, 농기 비용 다 장만하려면요, 지금은 돈 없이는 힘들어요. 아무래도 과수농원이 커야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조그만 데다가 마련해서 크게 투자하면 돼? 그거 안 되지. 그래도 만 평 이상은 져야지. 전부 다 임대라, 임대 많지. 자기 영토 가진 사람은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친환경인데 조심해야지

작년엔 나방이 너무 심해서 농사 잘 짓는 사람들도 피해가 많았어요. 심식나방이라고, 침으로 배 봉지를 뚫어요. 근데 이 나방이 작아서 육안으로 잘 안 보여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보면 배 봉지가 바늘구멍만큼 조금 뚫려. 그때부터 조그맣게 씌어 들어가는 게 표시가 나. 한 달 정도까지는 약 효력이 있어. 약을 보면 수확하기 얼마 전까지 약을 쓸 수 있는지 쓰여 있어요. 수확기인데 약을 썼잖아, 그럼 배 수거해서 검사하면 약 수치가 나와. 농수산물 관련해서 수시로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약 검출되면 벌금 나오고 그러지. 친환경인데, 조심해야지.

경험이지 뭐 경험

올해 같은 경우는 냉해가 심해갖고. 지금 접화가 안 되어갖고 화접

이 안 됐단 말이에요. 냉해 피해가 심해졌고. 냉해보험이 비싼 편이라, 안 든 사람이 많아요. 태풍은 다 드는데. 많이 떨어지면 보험회사가 주는 게 한결 낫지. 도움이 되죠. 처음 들을 때는 좀 비싸도 차츰차츰 하면 이게 보험과 같이 좀 싸지걸랑? 자동차보험같이 조금조금 싸지 걸랑요. 태풍보험들은 거의 다 드는데 냉해보험은 종합보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입을 안 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몇 프로 해주고 해결랑요. 동사무소 통해서 지금 다 받았을 거야 무료로. 얼마까지 뭐 이렇게. 품질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이 되어야만 등록된 것만 줘요. 등록이 안 된 건 안주고. 근데 대부분이 지금 등록을 안 해놓은 사람이 많죠. 땅 주인이 안 해주는 편이 많단 말이에요. 나중에 세금 문제나 그런 거 때문에 그러잖아요. 등록된 것만 일단 그런 것만 보험 처리가 돼요.

난 안 들었지. 들은 사람도 있는데. 냉해보험 그 평수에만 들으려니까 한 400이 넘어요. 한 오백 정도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과수원 조금 크게 하면 한 팔천 평 되면 한 칠백만원 되고 그래요. 종합보험이. 근데 들어야지 이제 앞으로 온난화 저기 때때. 들긴 들어야겠더라고요. 경험이지 뭐, 경험.

(수확이) 적은 것도 보통 적은 게 아니죠. 금년은 작년보다 오십 프로는 안 되었다고 봐야 돼요. 반도 더 안됐어요. 이 높은 지역은 괜찮은데, 냉해라는건. 저온에서 좀 걸리는 거걸랑요. 하천 옆에가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런 데가 많이 끼기 때문에 찬 공기가 있어갖고. 높은

지역은 바람이 잘 통해서 날라가는데 땅이 좀 꺼진 데는 이게 찬 공기가 앉아있어요. 올해는 얼음도 많이 얼었어요. 물배가 막 얼음이 얼어갖고, 막 물 부어도 얼음이 그래갖고 약을 못 주고 그래요. 냉해보험은 종합보험으로 비싸서 그걸 안 들어서 그런 거지. 내년에는 많이 들겠어. 한 번 당하면 든다고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으니 배가 안 커

나무 심을 때 조금 저기한 데는 열한 평, 열두 평인데 (보통) 열 평에 하나씩 잡는 거여, 기준이. 저 귀퉁이에 있으면 배나무가 한 6미터에 하나씩 심는 거여. 5미터에 심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 사람들은 멀찌 감치 6미터에 심는 사람이 많고. 나중에 심는 사람들은 거의 5미터에 하나씩 심고. 그 낮은 데는 수확을 빨리 하고 그래야 되니까 밀식이라는 게 나왔어 밀식. 뭐 1미터에 하나씩 꽂아놓은 거. 그거는 일자로 나갈 때는 1미터고 이쪽은 7미터 간격으로 떨어뜨려. 7미터. 그러는데 배나무가 이제 크면은 뿌리가 서로 엉키면은 배가 안 커요. 뿌리가 서로 엉키면은. 서로 잡아먹을라 그러니까 배가 안 커.

그러니 조기 수확하고 빨리 많이 하려니까 밀식을 심은 거야, 밀식. 그러니까 배가 한 3년이면 다 따는데 다 따버리잖아. 근데 4년, 5년 정도 되면은 수확을 해요. 한 10년 정도까지는 같이 잘 따먹어. 그러다가 이제 간격을 잘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잘라버리는 거지. 요걸 잘라.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배밭 그림을 그리며) 이게 5미터가 될 거 같으면 여

기는 4미터가 되게 잘라갖고, 그니까 잘해야 돼. 머리를 잘 써야 돼. 6미터가 될 건가 5미터가 될 건가를 잘 해갖고 하나씩 도태를 시키는 거야. 나중에 또 하나를 도태시키다 보면은 이게 6미터가 돼버리고 5미터가 돼버리는 거지.

수확을 좀 많이 하려고 조그맣게 가깝게 심다 보니까 같이 잘 자라요. 조그마할 때는 그니까 수확을 많이 하려고 하나씩 많이 심는 거야. 밀식을 하는 거지. 뿌리가 엉키면 무조건 배는 안 커요.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영양분을. 밑에서. 근데 이게 실패작이야. 지금은 사과나무도 봐, 1미터 간격으로 심잖아요. 신품종이라 해갖고 지금은 좀 틀리는데 옛날은 안 그래. 신품종은 사과 저기 1미터에 심은 사람도 많아요. 그것도 나중에 베어버려야 돼, 내가 볼 땐. 근데 사과는 내가 보니까 서로 엉키면 이게 밑에서 서로 엉키면 안 된다니까. 안 커요, 간격이 넓어야지. 신품종이라 해갖고 일자로 짝 키워갖고 가지를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보이며)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모가지를 탁 치더라고 사과나무를. 이렇게 살짝 구부려놓든지. 자르진 않고 살짝 구부려놓을 거야. 그리고 위엘 똑 자를 거야. 신품종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다 그거로 심지 옛날 건 없어요 거의.

가지, 이 가지를 지주라 그래요 지주. 하나 딱 나온 게 지주가, (나무 그림을 그리며) 뿌리에서 쑥 나온 게 이게. 배는 나무가 가지를 쳐갖고 휘어지게 유인을 하는 거거들랑. 요게 지주야. 요걸 똑 자르면 안 되거랑. 요걸 살려갖고 휘는 거야. 이쪽에서도 이렇게 휘고, 이렇게. 지주를

자르면 안 돼. 사람 모가지 자르는 거거든 이게? (웃음) 그래서 이걸 치면 안 되는 거야. 지주 끄트머리를 치면 옆에서 또 순이 나와 나오기는. 그래서 다시 키우면 되는데 웬만하면 이 가운데 건 안 치지. 이게 사람 머리하고 똑같은 거라. 그니까 대부분 가운데 거 이걸 안 쳐요. 살릴라 그러지. 그래서 이걸 (나무를) 하나씩 도태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딱 베어버리면 좋고.

배나무 하나에서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배나무는 삼지주를 뒹요. 거의 보면 삼지주. 큰 거는, 5미터, 6미터씩 두는 거는 거의 삼지주를 뒹. 사지주 두면은 서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닿는 게 금방 닿아. 삼지주로 해서 그 틈새로 하면은 이쪽하고 이쪽의 거리가 좀 멀잖아. (사각형에 대각선을 그리며) 이쪽보다 이 거리가 더 멀잖아. 그러니까 삼지주를 뒹.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대로. (웃음) 되긴 되는데 처음부터 잘 키워야 돼, 애목 때부터. 높은 나무, 고목에서는 지주 잡기가 힘들어요. 새로 만들기가 어려워. 높은 거를 낮게 만들려고 하나씩 그 기간이 엄청 걸려요. 높은 가지를 낮게 만들려고 하나씩.

과수원은 덕(시설)이 잘 돼야 돼

첫째 과수원은 덕이 잘 돼야 돼, 덕 시설. 덕이라는 거는 철사를 좀 늘려져 있지, 바둑판같이. 이게 간격이 적고 튼튼해야 가지들이 똑바로 똑바로 잘 자라. 내 마음대로 가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바둑판처럼 딱딱 되어있으면. 요기서 배나무가 자라면 가지를 이리로 묶고

이렇게 묶고 다 이렇게 일자로 똑바로 묶을 수가 있어. 덕이 잘 돼있으면 이렇게 짹짹 묶을 수가 있어요. 이만큼 높지. 2미터 30 되지. 좀 두툼한 거 그게 6번인가 7번인가 그 가닥이 있어. 그 파이프 높이가 2미터 30이여. 2미터 20짜리도 있고 2미터 30짜리도 있고 그래.

사람에 따라 틀린데 그 (가지) 위로 다 올라가 있는 거지. 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나무가 철반재를 밑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위로 받는 사람이 있어. 가지를. 근데 밑에다 받는 게 정상 같아.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다 위로, 가지가 다 위로 올라갔잖아. 근데 덕이 밑으로 가있는 게, 이 나무가 밑으로 가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덕이 바둑판같이 잘 돼야 돼 덕이 딱딱. 사람이 턱걸이해도 안 주저앉아 잘된 집은. 하나 잡고 턱걸이해도 돼. 나무끼리 끈이 매달려 있어 가지고 철반재가 딸려오질 않아. 첫째 덕이 잘되면은 과수원 꼴이 제대로 돼. 배나무 키우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키울 수가 있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기서 덕이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그림을 그리며) 이게 못해도 너 줄이 가야 되는데 돈 아깝다고 가운데 하나만 간다고. 한 줄을 빼요. 그러면 이 간격이, 이게 잘못된 간격으로 하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남의 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 자기 땅이면 한 줄을 더 넣고. 요기다가 한 줄을 더 넣든지. 간격을 더 넣으면 좋아. 끈도 조금 들어가고. 덕이 넓으면 소모성이 많아요. 일도 더 디고 품도 더 들어가고. 끈도 들어가고 무조건 손해야. 근데 맨 처음

에 덕만 잘 해놓으면 이익이 많아요. 태풍 불어도 덜 떨어지고. 덕이 잘 되면 아무튼 편해.

나무가 대각선이니까 45도 각도가 돼야 해요. 배나무가 이렇게 똑바로 되면 안 돼요. 나무는 어떤 나무고 다 선다고. 다 설려고 노력한 다구 어떤 나무든. 근데 역지로 뉘우는 거여 살짝 이거를. 왜냐면은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배를 어떻게 달고 어떻게 꽃다이를 하고 못하잖아요. 그니까 배가 달려도 이게 메가리가 없고 바람만 불어도. 안 매달아 놓으면. 태풍만 불어도 다 떨어지는데. 이게 철반재에다 딱 걸쳐요. 배가 크면 유인끈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도 안 떨어져. 나무가 흔들림이 없어. 배가 흔들릴 정도면 바람이 엄청 센 거고. 그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거는. 웬만한 바람에는 이게 흔들려도 안 떨어져. 단단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덕이. 이게 뺏어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배는 여기를 너무 확 꺾으면 여기 잎눈이라고 했잖아요 잎눈. 잎눈에 도장지라는 게 있어, 새순 나오는 게. 새순이 막 나와. 쓸데 없는 가지가. 너무 휘어버리면. 이거를 대각선으로 45도로 하면 이 도장지가 세력이 안 나와. 나와도 꽃눈이 생겨버려. 7월달에 미리 확 꺾어버리면 꽃눈이 다 생겨요 거의. 7월달에 더울 때. 미리 해놓으면. 지금 조금 7월달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때 벌써 이 도장지가 역센 거 있어. 세력이 센 거. 그걸 꺾어놓으면 꽃눈이 생겨요. 내비두면 다 잎눈이 생겨. 꼬트머리에서만 꽃눈이 생기고 여기는 다 잎눈이여. 요걸 꺾어놓으면 여기 도장지가 세력이 말도 못하게 나와. 자꾸만 이게 또 나와.

배나무 물주기도 덕이 잘돼야

점적관수라는 건 물 주는 거. 스프링클러기라고 해가지고 모터를 돌리면 짹 분사가 돼. 그것도 해주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수원에 가보면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며) 이렇게 배나무가 있으면은 덕에 이렇게 철사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따로 여기다가 해. 여기다 같이 하면 좋은데, 배나무 유인끈을 묶을 데가 호스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한 줄을 다시 놓고 하는 게 편해요. 여기다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꽂는 거야. 호스가 있는데, 여기다 분사하는 걸 하나씩만 들어놓는 거야. 밑으로 요만큼 쳐지게. 그럼 모타처럼 이렇게 분사가 돼갖고 짹 퍼지지 안개같이. 똑똑 떨어지는 것도 있구. 이거 스프링클러는 안개같이 뿜는 거고 그거 똑똑 떨어지는 거는 또 호스 하나가 쪽 내려와서 있어. 틀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여 가서? (웃음)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면 가서 해주고.

가뭄 때. 가뭄을 대비해서 하는 거여. 물을 나무 밑에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준다고? 호스로? 그렇게 300일을 다녀봐요. 물을 줘봐요. 이거 호스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물 차면? 못 끌고 가요, 물 차면은. 자동으로 해놓으면 본인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다 매달려갖고 시간을 다 뺏긴단 말여? 물을 주는 데다가?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여, 돈이. (웃음)

그래도 75세까진 무난히 하겠더라고

배농사 짓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 같어. 내가 볼 때 (매출이) 3억이면 1억은 벌어야 하는데 그걸 못 벌어요. 농사가 잘 되어야 그 정도인데 올해같이 냉해 있으면 어렵도 없지. 봉투를 9만 장 쌀 걸 2만 장 밖에 못 썼는데 뭐. 그래서 그거 벌기가 쉽지 않아. 어떤 때는 안 하는 게 나아. 농사하다가 병충해 많으면 도지 하다가 도망가요. 도망가는 사람 있어요. 잘못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농약값 값아야지, 인건비는 안 줄 수가 없어. 인건비를 안 주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인건비를 안 주면 아줌마들 들어오질 않아.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언제 줄게, 며칠 날 줄게 그러면 다 봐주고 그게 되었지. 옛날에는 언제 줄게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 끝나고 바로 딱 돈 안 주면 안 돼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만큼 인색해진 거지, 지금은 땅을 팔아먹게 생겼는데 뭐. (웃음) 땅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농사지으러 와서 아파트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땅 팔아가매 농사 못 지어갖고. 아파트 두 채 있는 사람도 팔아먹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농사 진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하는 거지 뭐.

뭐 (배 농사는) 75세까진 무난히 하겠더라고. 75세까진 하겠어. 내가 힘 달리면 사람 얻어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창고 지어놓고 묵힐

수 있어? 배를 사다 넣을 수도 있고 남의 거 봉지 떼기 사서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여. 사다 넣으면 어떤 때는 밑질 수도 남을 수도 있으니 위험성이 많지. 다 돈 벌 수는 없지. 요즘 시골에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야.



아이와 함께한 하나고 3년

— 강봉택



나는 '하나인'으로서 3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매일 아침 아이 얼굴을 마주 보듯 아침 인사를 곱하여 짧지만 좋은 글로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과, 매사를 긍정하며 기다려 주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하나인'으로서의 3년은 꿈과 즐거움 그 자체였다는 것을 졸업가운을 입고 즐거워하는 아이의 들뜬 모습을 보며 확실히 알 수 있다.

우리 부부는 베이비부머 baby boomer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국가시책을 충직하게 따르다 보니, 첫 아이 낳고 단산 후 그 결정이 옳지 않은 듯하여 10년이 지나 복원 수술을 하여 얻은 늦둥이다. 항상 함께 생활하고 싶고 기숙사 같은 곳에는 절대 보내고 싶지 않은, 늘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거나 등에 업혀 있어 잠잘 때 말고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어 본 적이 없는 아이. '정인'이를 기숙학교인 하나고에 보내고 나서, 그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며 활기차게 자기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며,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보다는 매사를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3년이 늘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보물꿀밭 강정인 하나고 합격 기원〉 등판을 달고 42.195km 먼 거리를 우리 아이를 위한 일념으로 달렸던 춘천마라톤은 〈우리 보물꿀밭 강정인 꿈은 이루어진다! COLUMBIA〉라는 등판으로 바뀌어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의 꿈을 몸과 마음으로 응원하는 큰 힘이 되었다. 아이의 입학식에서 ‘하나고 아이들’을 본 후로 대입 수능시험 잘 보게 해 달라고 학급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모두 인쇄하여 등에 지고 달리시던 어떤 선생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고 아이들 모두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달렸고 그들의 꿈도 모두 이루어졌 으리라 생각한다.

하나고 아이들도 국립소록도병원 봉사활동의 기회를 달라고 아내 따라 소록도에 내려가 담당자를 만나 부탁하여 아이들이 소록도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성장하는 흐뭇한 모습도 보았고, 아이들이 서로를 경쟁상대가 아니라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천하여 첫 대입 수시선발에서 ‘한국 교육을 뒤흔든’ 좋은 결과를 보여 주어,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라 ‘좋은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라는 벽찬 가슴으로 3년을 보냈고, 앞으로도 하나인의 가족으로 늘 함께할 것이다.

또 다른 소망은 1기 아이들의 좋은 결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좋은 아이들이 계속 오고 싶게 하는 작은 요소로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고가 해 온 ‘세계가 나를 키우고, 내가 세계를 키우는’ 아이들로 키우는 데 힘을 쏟아, 아이들에게 애국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온 세계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 꿈과 모험에 도전하고 이루어 내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여, 그들이 큰 세계인으로 성장하여 저절로 애국하는 사람이 되고, '베르나르 올리비에'처럼 60세에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60세가 지나 '실크로드 12,000km를 4년 동안 홀로 걸어 횡단' 하는 영원한 꿈을 가진 사람들로 남게 하는 기질과 근성을 키워주는 학교로도 거듭나기를 원한다. 입학식 때 '꿈나무'로 선물 받아 '자신의 꿈'을 적어 심어놓은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glyptostroboides는 크게 오랜 세월을 자라는 나무인데, 튼튼하고 큰 나무로 자라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은 듯하다. 처음 진출하는 우리 아이들 환경이 그리하지 않은 지 살펴보고, 그들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 학교를 떠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인' 모두가 3년을 함께 해 온 것처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란다.

더 큰 길 가는 우리 딸, 함께 가는 하나고 동량들!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딸이 졸업하던 날(2013. 2. 15.)

나로 산다는 것

— 구은미



나는 오빠와 남동생 사이의 고명딸이다. 그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서울의 중류 가정으로 비교적 민주적이고, 소위 깡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라 남녀 차별을 크게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능력주의였다. 딸도 똑똑하면 유학도 보낸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었다. 그런데 유독 엄마는 내가 오빠랑 다투면, “동생이 오빠를 이겨 먹으려 한다”하고, 동생이랑 싸우면 “어린 동생을 이해하고 양보해야지”라며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나만 야단치셨다. 우리가 밖에서 동네 아이들과 싸우고 오면 무조건 우리를 야단치고…. 어찌 보면 경우가 있으신 분인데, 나로서는 너무 억울해서 재판을 받고 싶은 심정이 었다. “나는 커서 공정한 엄마가 되어야지”라고 결심했다.

중학교 때 같은 동네에 사는 반 친구와 아침에 만나서 같이 걸어서 학교에 다녔다. 나는 항상 정확히 시간을 맞춰 가는데 그 친구는 항상 늦었다. 그것도 많이. 몇 달을 참다가 결별 선언을 했다. 그 애가 부랴 부랴 사과편지를 보내왔다. 받아주지 않았다. 또 편지가 왔다. 또 거부했다. 몇 번을 거듭한 끝에 화가 풀려서 다시 같이 다녔다. 그 뒤로

그 친구는 늦는 법이 없었다. 만약 또 늦었다면 나는 다시는 그 애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3 담임선생님이 너무 스승 같지 않아서 학교 다니는 것이 괴로웠다. 그래도 참고 다니다가 졸업하자마자 선생님 덕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선생님의 비리를 밝히고, 앞으로는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대충 그런 내용이였다. 다시는 그 선생님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재수를 하는 바람에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담임선생님께서 베풀고 계셨다. 그래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선생님께 당신이라고 그럴 수 있냐”고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따지셨다. 거기서는 내가 약자였다. 그래서 사과했다. 그러나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지만 선생님도 잘못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사과하셨다.

“내가 여학생의 심리를 잘 몰라서 그랬다. 앞으로는 신중히…”

대입 원서를 쓰기위해 서무과에 갈 일이 있었는데, 서무과 직원이 몹시 불친절했다.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안돼요?”했다. 어린 학생한테 한 방 먹은 것이 약올랐던지 그 직원이 악담을 했다. “합격하나봐라”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내가 더 대들려고 하자 옆에 계시던 엄마가 말렸다. “큰 일 앞두고 네가 참아라. 싸워봤자 너만 손해다.”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지만 분했다. 그리고 나는 대입 1차 시험에서 떨어졌다.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하늘은 왜 나만 심판하는 걸까? 고집 센 딸이라 엄마와 충돌이 많았다. 그때마다 엄마가 하시는 말씀 “꼭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딸은 아니지만 나보다 훨씬 고집 센 아들이 나를 힘들

게 할 때 “너 같은 아들 낳아서 겪어봐라”라는 말이 목구멍에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나는 절대 악담을 하지 말자”고. 사회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공허한 방송용 멘트가 난무한다. 뒷담화는 그 공허를 메꾸려는 듯 더 무성하다. 그것이 사회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나는 이러한 이중성을 견딜 수 없다. 다들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착각이라는 행복에 젖고 싶어 한다. ‘이 뿔꼬’를 화두로 두면서 ‘너 자신을 알라’를 단호히 거부한다.

나는 진실을 원한다. 그러나 진실은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순수 혁명가 체게바라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여행하던 시절. 어려움 중에도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 중 한 사람인 페스체 박사가 자신이 쓴 책 ‘침묵의 땅’을 내밀며 은근히 자긍심을 풍기며 평가해 달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평을 하는데, 그 박사가 민망할 정도로 악평을 했다. 낭패스러운 얼굴로 페스체 박사는 “자네 얘기가 옳네”를 연신 되풀이 했다고 한다.

체게바라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상처를 주는 일을 무척 싫어했다. 하지만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제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의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 자기를 물심양면 도와 준 사람한테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 잠시 행복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예의인지, 아니면 후에 도움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요즘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분위기 일색이라, 쓴소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단연코 거부한다. 영혼 없는 말들을. 거기에 긍정에너지가 들어 있다한들 무슨 소용이라. 일본인의 이중성을 우리가 얼마나 비웃었던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

요즘은 어르신도 없다. 연륜이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아집과 완고함으로 무장한 또 다른 세대일 뿐이다. 예전에는 노인의 지혜를 젊은이들이 구하고 그것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밑거름이었으나, 이제 지혜는 인터넷에서 구하면 되는 것이기에 오히려 노인이 젊은이에게 지혜를 구해야 하는 시대이다.

예전 빨래터, 우물가, 사랑방은 역기능도 있었지만 동네에서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기능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것이 용서된다. 나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불의와 타협을 하는 것도 정당하게 넘어간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가 아닌 지금에도 친일파가 판을 칠 수 있는 것이다. 모임에 갔다 오면 공허하다. 진실은 없고 수다와 자기주장과 합리화만 있다.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세상은 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다. 나의 이러한 성격이 사주팔자에 나타나 있다. 토±가 많고 비견, 겁재가 많아 합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이상적이며 개혁적이다. 그 때문에 나는 괴롭다. 뜻을 펼칠 수 없기에. 그러나 이제 불혹不惑, 지천명知天命, 이순耳順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 인생의 참 뜻을 어렵게나마 깨달았으니 무슨 여한이 있으리오. 일찍 죽은 사람들이 새삼 안타깝다. 그들은 인생의 참맛을 느끼고는 갔는지!

끝은 추억이런가?

— 김학신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어떤 것인가? 삶은 살아있음이고 죽음은 망각(망음)이 아닐까?

죽음! 망각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오늘은 친정어머니 기일이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오빠의 생일날이다. 둘째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는 오늘이 어떤 날인지 기억조차 없으시다. 우리는 아들 하나에 딸 넷 오 남매다. 그중에 둘째 언니와 막내인 나만 살아있다. 돌아가신 엄마도, 형제들도 기억 저쪽으로 밀어 넣고도 이렇게 태연하게 잘도 살고 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누구나 잊고 사는데 아무런 변명이 없다.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느 날 하루쯤이라도 기억을 해야 한다면 누구나 세상을 떠난 그 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야 세상에 살아있었다는 증명이라도 있어야 그의 삶이 억울하지 않겠지? 제사를 지내줄 아들이 있었다면 제수를 준비하며 망각에서 기억을 불러왔겠지! 내 나이 열아홉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거의 잊고 살다가 오늘 문득 기일임이 생각나 죄송함과 불

효함이 온종일 내내 마음을 괴롭혔다.

난 세상을 살아오며 죽음에 관한 생각을 참 많이도 했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은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 1980년대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초입에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다. 그곳이 개발의 바람을 타고 공장이 들어섰다. 터 정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임자 없는 오래된 무덤의 유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나뒹구는 모습을 볼 때 부터~ 종종 선조들의 시체를 모실 때 산에 모셔진 선조들의 무덤이 허물어지고 잡목이 우거진 모습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음을 보면서 삶과 죽음, 더불어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끊임 없이 생각하고 고민했었다.

나는 남편 무덤도 안 만들었다. 비석도 묘비명도 못 만들게 했다. 아이들과 작은 충돌은 있었지만 공동묘지의 예와 선산의 고충을 예로 들며 설득을 했고 아이들은 이해했다.

“세상은 영원하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우리도 관리 할 후손이 없어진다면 공동묘지나 선산의 고충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동작동이나, 대전의 현충원이 아닌 담에야 말이다. 무참히 훼손된 무덤의 후손들도 처음 당시엔 정성껏 시신을 모셨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후손의 맥이 끊어져 비참한 유골이 될 줄이야.”

나의 남편은 전형적인 유교 신봉자였다. 뿌리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뿌리에 대한 근거로 무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공동묘



지에 계시던 아버님을 이장을 해야 했다. 돌아가신 지 사십 년도 더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화장을 했지만 뿌리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남편은 원곡의 형부네 산 이십 평을 사서 아버님을 이장했다. 몇 년 후 조카가 그 산을 팔았다. 남편은 빚을 얻어 산을 사서 아버님을 또 이장했다. 몇 년 후 다시 아버님 산소가 계신 산이 고속도로에 편입이 됐다. 다시 안성에 산을 사서 네 번째 이장으로 아이들에게 근거를 보여주었다. 남편은 지역의 종친회장을 역임하며 조상들 모심에도 열심이었다. 전통과 풍습 예절에 대한 고집이 나와 며느리들을 힘들게 했었다. 이런 남편을 오십여 년 살아오면서 교양과 매너가 있는 남편으로 장모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제사상의 음식 간소화, 제사 지내는 시간 절충 등등 책이나 신문에 실리는 예시를 보여주며 변화를 설득했다.

“전통도, 풍속도, 관습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옛날을 고집하며 그 고집으로 당하는 가족들의 불편을 줄여주자.”

남편은 나이 들면서 나에게 설득당해 주고 순치 되어주었다. 그리고 남편은 떠났다. 이제 떠난 지 오년 쯤이다. ‘죽으면 끝이다’ 다시 뇌어본다. 그리워한들, 애달파한들, 뭘 소용인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데….

나는 현실주의자이며 실용주의자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며 살고 있다. 난 불교의 전생, 극락 윤회도 기독교의 천당 지옥, 명리학의 사주팔자도 아무것도 안 믿는다. 살아있는 지금의 모든 것에 중심을

둔다. 오직! 우리 집은 다섯 번의 제사를 세 번으로 줄였다. 기본 의설과 추석 그리고 남편 제사, 부모님의 제사를 남편 제삿날에 함께 지낸다. 나는 제사의 의미를 조상숭배가 아닌 제삿날 하루만이라도 평소 잊고 살았던 그분들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며 기억해주는 날로 생각한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강제한다. 하지만 이 또한 허망하고 가이없다 추억하고 기억한들 내가 너무 염세적인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 드리세요. 안부 전화 자주 하고 치아 있을 때 맛 있는 거 사드리고 다리 힘 있을 때 함께 여행 다니시고 주머니 채워 주시고 죽어 세상떠나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오늘 어머니 제삿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청승 떨어봤습니다. ‘here now’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삶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재밌게 삽시다.”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나는 죽을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에서 한 구절 인용해 봤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 남기순



사랑을 다 해 사랑하며 살다가 내가 눈감을 때까지 가슴에 담아 가고 싶은 당신, 내가 사랑하는 지금의 남편입니다. 세월에 자기 이름이 빛이 바랜다 해도 사랑하는 내 마음은 언제나 파랗게 피어나겠지요. 은은한 향을 풍기며 꽃처럼 피어나겠지요. 시간의 흐름에 당신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흰 머리 되어도 먼 훗날 세월이 흘러 아무것도 없이 내게 온다고 하여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아니, 그 사람 마음을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름 가고 나이 먹었다고 사랑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 마음속엔 한 사람 당신뿐이며 내가 죽고 만약 천년이 지나도 세상에 태어나면 당신이 꼭 내 눈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름에도 변치 않고 가슴에 묻어둔 당신의 영혼과 이름 석 자 당신 만의 향기로 항상 옆에서 변함없이 당신 바라보며 또 사랑하며 살겠어요. 단 하나 부르고 싶은 당신의 이름 석 자입니다.



내 나이 76살

공도에서 왼쪽으로 어린나이에 시집와서 시부모님과 대가족과 같이 나에게 벅찬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응원에 힘입어 용기를 얻어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그 한계를 넘어 결국 난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누워 있으려니 시부모님께서 친정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시어 난 놀래는 맘에 친정을 향해 떠나 한 달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시간은 번개처럼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똑같은 일상이 찾아오며 때만 되면 난 마음이 콩콩거렸습니다. 괜찮은 척 애써 생활하는 날 위해 남편은 항상 내 편이 되어줍니다. 이 년 만에 졸업하니 시집살이 끝입니다. 그래도 지금 난 든든한 아들 둘 행복하게 살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2020. 8. 10.)



동행

살다 보니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꼬불꼬불 산길, 숨차게 올라야 할 오르막길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주저앉았을 때
밝은 빛이 보이는 등대 같은 길도 있더라.

숨 가쁜 인생길 이리저리 넘어져 보니
어느새 함께 가는 벗이 생겨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안겨주는 아름다운 동무들
만만치 않은 우리 삶 스스로 터득한 삶의 지혜와 깨우침을 준
내 인생에 참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내일을
쳐진 어깨 감싸주고 토닥이며
참 좋은 이들과 함께 가는 길
그 또한 행복이 아니던가

다듬이 소리

— 노윤홍



엄마의 방문을 열자 “왔니?”하며 웃으며 반기신다. 나를 볼 때마다 낮빛을 보며 말랐다는 등 얼굴빛이 검다는 등 안색부터 챙기시더니 요즈음엔 말수가 적어지셨다. 데이 케어 센터에 나가신 지 한 달여 되어가신다. 고스톱을 참 좋아하시는 엄마는 두세 달이면 10원짜리가 방안 플라스틱 박스에 가득하다. 은행에서 바꿔다 드리면 만 여 원 되는데 가끔 그것이 사단이 되어 주위 할머니들과 다툼이 발생하곤 했다. 그때마다 간식거리 사다 경로당에 디밀곤 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다툼으로 경로당에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치매기가 있어 약을 복용해 오셨는데 집에서 주로 TV만 보시던 무료한 생활 때문인지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았고 올봄 등급심사에서 치매 4급 판정을 받으셨다. 10여 년 전에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으신 후 걸음걸이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 근력도 떨어지시는 것 같아 가족회의 끝에 데이 케어 센터에 보내시기로 했다. 국민 학생 때 난 엄마의 다듬질 소리를 좋아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 방향에서 다듬질 소리가 들려오면 한달음에 집까



지 뛰곤 하였다. 엄마가 있다고 간식을 챙겨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어도 엄마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다. 어린 생각에 다듬질하는 것이 밭이나 시장 나가는 일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올해 88세이신 엄마의 날들도 여느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희생의 시간이었다. 서울이라도 변두리였기에 채소 농사를 많이 지었다. 오이, 토마토, 고추, 수박, 호박 등등 각종 채소를 수확하면 주로 차로 실어 용산시장에 내다 팔았고, 열무나 파 호박 등등은 다듬어서 엄마가 내다 파셨다. 중학교 시절 어느 날 엄마를 따라 나섰다. 시장에 가면 맛난 것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엄마 짐 하나를 들고 새벽 일찍 따라나섰다. 78버스를 타고 남영동에서 내려 용산 청과물 시장까지



제법 먼 거리를 꺽꺽대며 올라갔다. 거래하시던 채소가게에 가져간 채소를 넘기시고 길거리 노점에서 500원짜리 티 하나를 사 주시고 도넛 노점상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며 자두, 복숭아 등을 담았던 나무 궤짝을 쌓아 놓은 곳으로 가셨다. 한참 만에 오신 엄마 손엔 작지 않은 종이봉투가 들려있었다. 시장 갔다 오시면 손에 들려있던,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던 상품 가치가 떨어져 보였던 자두, 복숭아는 늘 그렇게 엄마가 빈 궤짝을 뒤져 찾아낸 것들이었고 그땐 그래도 집에 가 먹을 생각에 신이 나 있었다.

새벽 일찍 시장을 다녀오신 엄마는 또 밭에 가서 주섬주섬 이것저것을 모아 장거리를 장만하셨다, 그리고 영동시장에 소매하러 나가셔서 시장 약국 앞에 준비한 채소들을 펼쳐놓고 소매를 하셨는데 토요일이면 항상 곤욕스러웠다. 약국 옆에 음반 가게가 있었고 주말마다 나오던 빌보드 차트를 하룻길에 거기 가서 한 부씩 가져와야 하는데 약국 앞에서 노점 하시던 엄마가 걸렸다. 모른 채하기도 그렇고 아는 채하기도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자습하다가 엄마가 집에 가셨을 즈음 하교해서 빌보드 차트를 가져오곤 했다. 겨울에도 엄마의 시장 생활은 여전하셨다. 그 시절 봉천동과 신림동 달동네엔 시골에서 상경해 생활하시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주로 일용직이거나 부엌살림이 넉넉지 않다 보니 김장김치를 해 먹는 사람들이 드물었고 엄마는 가을에 넉넉히 해 둔 김치를 머리에 이고 봉천동 비탈길을 오르고 내리셨다. 우리 김치가 동났다면 동네 다른 집 김치를 싸게 사서 내다 팔곤

하셨고 뒷마당에 따로 걸어 둔 큰 솥에 여름, 가을에 말려 둔 고사리, 가지, 고구마 순, 시래기, 아주까리, 호박 등을 삶아 내다 파셨다.

추위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도 따뜻한 아랫목을 찾지 않으셨다. 연탄은 하루 2장 이상 사용하지 않으셔서 연탄 아궁이를 항상 막아 놔다가 손님 오실 때나 열어놓고 하셨다. 오래 열었다 싶으면 다시 아궁이를 막으시고 그래도 불길기 좋으면 아래 연탄과 위 연탄의 구멍을 맞추어 놓지 않아 연탄이 덜 타게 하셨다. 잔칫집에 갔다 오시면 손수건에 띄이며 과자 등을 싸 와서 우리에게 주시곤 했는데 고등학생 때는 그런 것이 창피해 제발 싸 오지 말라고 투정을 부리곤 했었다. 그런 행동은 뷔페 가서 먹던 과자 등을 싸다가 애들 주는 아내를 보고는 어쩔 수 없는 모정이란 생각에 웃음만 나왔다.

아직도 고스톱 치자시면 즐거워하신다. 초약 낫다고 때 쓰시는 건 여전하시다. 센터에 나가고부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인지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신다. 센터 가는 것을 재미있어하시기에 학교 가서 뭐 배우셨냐 물으니 고향의 봄을 노래하신다. 내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 다듬잇돌은 우리 집 거실에서 화분들을 등에 태우고 소파에 앉아 있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90여 년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눈길로.

그때의 나는

— 안도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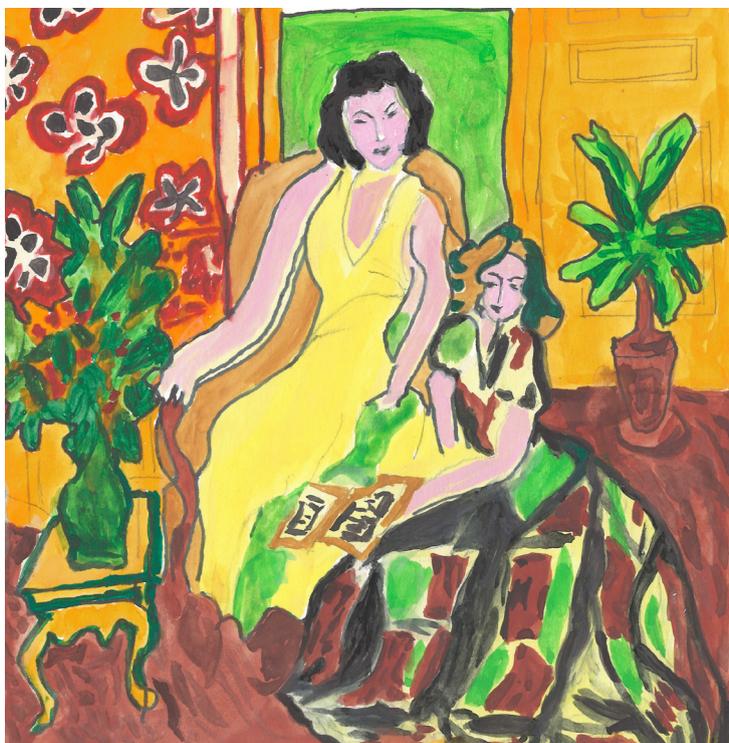


거실 창가에 책상을 둔 이유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빛은 반복된 일상을 살고 있는 나를 위로해 준다. 아파트 담장 역할을 하는 나무는 훌쩍 커버려 하늘 정 가운데 우뚝 서버렸다. 조만간 하늘을 두 동강 내버릴 태세다. 아니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다. 적어도 내가 바라보는 여기서 만큼은.

흰 눈 소복이 쌓인 적막한 모습들, 새들의 속삭임과 빗물 받아 내는 소리. 시간의 흐름 속에 내 맡겨진 창밖의 모습은 언제나 나를 조용히 침잠시킨다.

수업이 끝나 모두 돌아간 텅 빈 교실 서둘러 집에 가고 싶지 않아 혼자 남아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부터 어스름 빛이 질 무렵 창을 열어 짜~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머릿속까지 청쾌해지던 느낌. 그리고 알 수 없는 눈물이 절끔. 아마 그때 뭔가 끄적이며 몇 줄 글을 썼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끔씩 창가에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곤 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아픈 엄마가 우산을 가져다주지 못해 흠뻑 비



를 맞고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걸어갔다. 뛰어 달려서 도착될 집이 아닌 길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걷는 동안 어느덧 나는 속상함으로부터 벗어나 시원한 쾌감을 느끼며 걷고 있었다. 그때의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다시 맛보고 싶다. 두 아들 사이의 외동딸인 나는 언니와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음을 무조건 부러워한 것이 아니다. 인형 놀이와 소꿉놀이 할 누군가가 뽀지락 뽀지락 수다 떨 누군가가 없다는 외로움, 그런데서 오는 부러움이었다. 집에 놀러 온 친구의 돌아가는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때의 내 모습이 내 뇌의 깊은 곳에 박혀있다. 허리 디스크로 오랜 세월 누워만 계셨던 엄마 물과 기름 같은 남자 형제 사이에서의 외톨이 일상에서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는 음악이었다. 인천이 고향인 나는 서양 문화의 팝 음악을 일찍 접할 수 있었다. 친구의 오빠 덕에 다양한 팝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Rock 음악을 즐겨들었다. 고막이 터져라 할 정도로 크게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다. 물론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들었다. 1970년대 그 당시에는 그런 음악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장기자랑을 할 때면 팝송을 불렀다. 그걸로 유명해졌다.

“안도향, 팝송 불러봐!”

선생님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40이 넘어서부터 클래식을 좋아하게 됐다. 들을 때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든다.

지금 내게 딸 둘이 있다. 어릴 때 둘이 다투면 그때마다 나는 말리기는커녕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좋겠다. 싸울 언니, 동생이 있어서’라고 사람은 누구나 혼자인 것 아닌가. 창가에 앉아 있는 나는 그때도 지금도 혼자다. 이젠 그게 좋다.

절도범이라구요?

— 안미자



코로나 19로 인하여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던 오월 어느 주말 아빠랑 드라이브를 나갔다. 오랜만에 야외로 나가니 가슴이 탁 트이는 듯 시원하고 눈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왔다. 상쾌한 기분으로 얼마를 갔을까 안성천을 우편, 좌편에 야트막한 산이 있는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산 밑 길옆에 머위가 풀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어 저기 머위가 있네 여기 사람들은 저걸 안 뜯어먹나 보네.”

남편에게 머위 뜯을 테니 차 좀 세워달라 했다. 남편은 사 먹지 못할 뜯으려 하냐고 했지만 나는 “머위는 뜯어줘야지 잘 퍼져나간대요”라고 말하며 산 밑으로 가서 머위를 뜯었다. 풀 속에서도 머위는 실하게 자란 것 같았다. 풀에 손이 긁혀가며 머위를 뜯어 나오는데 차 옆에서 서성이던 남편이 “저 아줌마가 당신을 찍는 것 같아”라며 저만치 산 모퉁이에 있는 집 옥상을 가르쳤다. 쳐다보니 아주머니 한 분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다. 나는 가까이 가서 “아주머니 저를 찍으시나요?”라고 물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사진을 찍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저 사진



만 계속 찍는 아주머니... 응 이상하네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왜 사진만 찍고 말을 안 하지? 남편이 이상하다며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기가 막혔다. 절도범으로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으니 그 자리에 있으란다. 예? 우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얼마 있으니 경찰 두 분이 오셨다. 먼저 그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왔다. 나는 오늘의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머위를 하나하나 세어보고 확인했다. 우리는 줄지에 절도범이 된 것이다. 절도범이라고요? 망연자실... 가만히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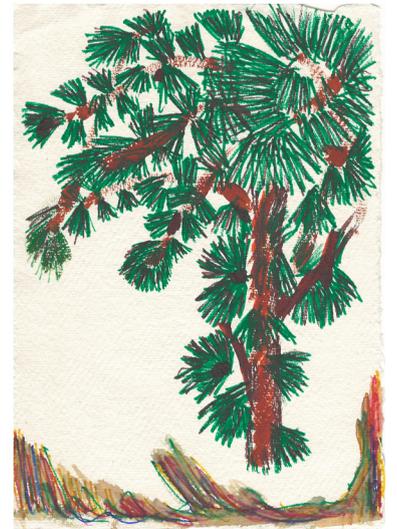
그때 그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우리 담 밑에 있는 머위는 사람들이 다 뜯어가게 놔 뒀는데 저 산 밑에 있는 것을 참 해도 해도 너무하네. 뜯어먹지도 않아 썩어 버렸구먼...”하며 지나갔다. 남편과 나는 그 여자분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어떻게 해 드리면 좋으시겠느냐고 물었다. 경찰분께서도 이 건 두 분께서 잘 해결하시는 게 어떠냐며 머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어떠냐며 묻는 것 같았다. 여자는 “시장에 가서 이만큼 더 사려면 3000~4000원 어치는 될 것”이라며 자기는 법적으로 할 것이라며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말 듣기에도 민망할 만큼 큰소리로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는 무어라 할 말이 없었다. 남편의 머위를 뜯었으니 남편과 나는 지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다. 가슴 졸이며 몇 밤이나 지났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번 머위 뜯은 것 때문에 형사입건 됐으니 조

서 받으러 오라고... 5월 31일 아침 일찍 준비하고 안성경찰서 형사 2과를 갔다. 남편과 같이 떨리고 겁먹은 모습으로 조심조심 들어가니 형사님이 남편은 밖으로 나가시고 나 혼자만 칸막이를 경계 삼아 마주 보고 앉으라 했다. 어찌나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나는지 내 모습을 보던 형사께서 별 일 아니니 긴장 푸시라 하셨다. 한 시간 반 이상을 조사 받았다. 그 날의 상황을 문답식으로 기록하고 내게 할 말이 있으면 해 보라고 해서 나는 “그 아주머니 참 이상한 분이네요, 제거 머위 뜯는 것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으면서 왜 보고만 있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처음 봤을 때, ‘그거 우리 거예요’라고 하면 아예 손도 안 댔을 텐데요”했다. 형사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내가 끝나고 남편도 조사를 받았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라서 받는 것이란다. 남편 역시 꽤 오랜 시간 조사 받고 나왔다.

조사가 다 끝난 후에 형사님이 조서가 검찰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검사가 심사해서 서류로 끝날 수도 있고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남편과 나는 재판을 받는다는 말에 엄청 중압감을 느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나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 잘못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이런 수모를 당하게 했으니...

“아빠 미안해요, 괜히 내가 잘못해서 자기까지 이런 일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남편은 웃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했다. 마음은 침울했지만 차창 밖에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신록이 우거진 오월의 산들바람이 그나마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듯 했다. 그렇게 우리는 편치 못한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며 지내는 중 7월 24일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란다. 다 끝났구나... 훌가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옛날에 우리 시골이 아니구나, 많이도 변했네... 정말 많이 변했네. 이번 사건으로 세상 인심이 많이 변한 것을 실감하며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은 길가에 뒹구는 것 일지라도 절대 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둘째 언니

— 임창옥



한 여름 낮 더위가 가라앉은 저녁 습관처럼 TV를 켜다. 화려한 모습의 연예인이 주로 비춰지는 화면에서 수수하고 정겨운 아나운서의 모습이 보인다. 「6시 내고향」 한 장면이 시선을 잡아들인다.

시골 어촌 마을에 체격이 작은 60대 아주머니가 나온다. 딸 부잣집 중 막내로 자란 주인공은 어릴 적 몸이 약하고 키가 작았다. 키가 크고 얼굴도 예쁜 둘째 언니는 이런 동생을 살뜰히 챙겼다. 언니가 도시의 부잣집에 시집을 갔고, 정이 많이 들었던 동생은 언니가 그리워 근처에 쫓아가서 살았다. 그러던 중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언니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해 다시 시골로 내려왔다. 주인공은 몸이 약한 데다 시골살이가 만만치 않아 대수술을 6번이나 했다. 이렇게 고생을 할 때마다 언니가 안쓰러워하며 옆을 지켜주었다. 그러던 중 둘째 언니도 큰 병이 나 수술을 했고 지난 세월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 언니가 좋아하는 밥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문득 다정했던 둘째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에 딸 7명이 자랐다. 장손인 친정아버지가 계속 딸을 낳으시니 할머니의 눈총이 따라왔다, 막내로 아들을 볼 때까지 딸 7명을

낳은 것이다.

60여년 전 친정아버지는 큰 꿈을 안고 이사를 오셨다. 분가하면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여의 기름진 땅을 팔면 평택의 간척지를 10배로 살 수 있다는 거였다. 부여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이사했다. 평택역에 내린 엄마는 온통 진흙에다 군데군데 물 웅덩이가 진 광경에 적잖이 실망했다. 거기에도 부족해서 덜컥거리는 시골버스를 타고 시골로 더 들어갔으니 오죽했으랴. 이 때부터 고생이 시작되었다. 엄마는 언니 둘을 데리고 학교에 전학을 시켰다. 큰언니는 몸이 재빠르고 성격이 분명한 편이라 친구가 많지 않았다. 둘째 언니는 유난히 흰 피부에 큰 키와 예쁜 얼굴로 작은 시골 학교에서 인기를 독차지했다. 하교길에 친구들이 줄줄이 따라와서 엄마가 늘 간식거리를 준비해야 했다.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도 엄마는 아이들 6명을 더 낳으셨다. 내가 네 번째 딸이라서 언니와 동생들의 어릴 적 모습을 많이 기억하게 된 것 같다. 여섯 번째 딸을 낳았을 때 실망해 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난다. 여덟 번째로 아들을 낳으시고 기뻐하시던 엄마의 모습도 생생하다. 새벽녘 막내로 아들을 낳으시고는 전기불을 켜지 못하고 동이 틀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다고 한다. 행여 아들로 착각을 한 건 아닌지 조심스러워 가슴을 졸였단다.

고생을 모르고 순탄하게 지내오던 친정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지셨다. 할아버지 유산을 일부 소진하고 간척지 땅을 싸게 산 것이 화근이다. 소유권 분쟁으로 오랜기간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그러던 중에도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다. 큰언니는 할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인지 남들이 자신을 챙겨 주는 것에 익숙하다. 반면 둘째 언니는 남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

큰언니는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했다. 70년대 주간지 <선데이서울>에 사내 여자축구부 사진이 실릴 정도이다. 둘째 언니는 몸이 약하지만 밭내기를 즐겼다. 월급을 몽땅 털어 모자까지 일색으로 양장을 맞춰 입고 남자 친구들을 줄줄이 달고 다녔다.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의 형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의기소침한 나에게 마음이 따뜻한 둘째 언니는 천사였다. 비염이 심해서 고생하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병원에 진료를 받게 했다. 방학 중에는 사복을 입어야 하니 예쁜 옷을 사 주었고 놀이동산에 가서 즐겁게 놀아 주었다. 이렇게 인정 많고 몸이 약한 언니에게 고민이 있었다. 엄마의 결혼 반대 때문이다. 사귀는 남자들이 조건은 괜찮은데 장남인 것이다. 다른 딸은 몰라도 둘째 만큼은 만며느리로 시집을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렇게 결혼을 미루다가 서른이 넘어 버렸다. 지금은 결혼 적령기가 딱히 없다고 하지만 80년대까지도 서른이 넘으면 걱정하던 분위기였다. 시내에 나가면 간혹 언니보다 대여섯 살 어린 남자들이 쫓아오기도 했지만 내심 초조해진 엄마는 중매를 서두르셨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가출을 감행했다. 중매로 만난 형부를 따라나

선 것이다. 언니와 동갑인 형부는 마르고 얼굴이 작은 편이었다. 홀시 어머니 장남에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다는 것을 염려해 엄마가 반대한 것이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언니는 아기를 먼저 갖고 결혼식을 올렸다. 언니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둘째 언니는 딸 둘을 연속으로 낳았다. 딸을 줄줄이 낳은 엄마의 한을 풀어주듯 시집을 가면 아들부터 낳는 다른 자매들과는 달랐다. 그러다가 셋째를 낳으니 아들이었다고 아들을 한 명 더 낳아 2남 2녀가 되었다. 셋째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웃으면서 하는 말 “엄마가 우리 딸 둘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걸 알아?” “손주라면 깜빡 죽는 엄마가 웬일이래?” 우리는 깜짝 놀랐다.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손주라도 아들이 좋은 거였어.

언니와 형부를 닮은 아이들은 착하고 예쁘게 잘 자랐다. 첫째는 은행에 취업했는데 사내 모델로도 활동 중이고, 둘째는 교사로 임용되어 병원장 며느리가 되었다. 아들 둘은 회사에 취업해서 근무 중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된다. 나도 결혼해서 살며 나름대로 어려움을 만나곤 하였다. 어둠 속 작은 불빛이 희망을 보여주듯이, 어릴 적 따스한 사랑의 기억들이 살아가는 용기를 주게 되어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비에 젖다

— 조남희



비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린다. 금방이라도 우리가 깨질 것 같다. 창문에 번지는 과열음이 누군가의 절규 같아 커피를 들이켠다. 긴 시간이 지나갔지만 바람 불고 세찬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난 가슴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소녀는 D도시에서 B도시로 가는 고속버스에 앉아 있다. 윈 옆에는 윤, 통로 건너 오른쪽에는 윤이 삼촌이 조용히 눈감고 계신다. 유난히도 세찬 폭우가 차창을 두들기고 차 안은 Johnny Horton의 ‘All for The Love Of a Girl’이 감미롭게 실내를 적시고 있다. 윤이와 소녀는 간간이 눈빛 보내며 미소 짓고 온몸으로 가슴으로 빗소리에 음악에 취해 있다. 이윽고 차가 B도시에 도착했다. 비는 끊임없이 세차게 쏟아지고 셋은 택시로 동래 바닷가 근처 숲으로 에워싸인 병원에 다다른다. 대기 중이던 힘센 사내 몇이 윤이의 양팔을 잡고 끌다시피 바로 육중하고 두꺼운 철문 안으로 사라졌다. 거대한 문이다. 윤이는 끝까지 저항한다.



“싫어요 안가요, 집에 갈래, 회야 가지마 가지마. 안돼 회야 회야~.”

그 애는 그렇게 잠시의 휴식 없이 바로 정신병원에 갇혀버렸다. 절망감과 절규의 몸부림을 남긴 채... 비는 여전히 요란하게 퍼붓고 비 젖은 파도는 하얀 거품 삼키며 크게 부서진다. 소녀와 삼촌은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다. 무너져 내린 소녀 가슴엔 무력감과 슬픔이 강을 이룬. 천지에 빗소리 빗소리만 가득하다.

소녀가 윤이를 만난 건 양갈래로 머리 묶은 솜사탕 같은 고2 초봄이다. 수업 마치고 발걸음 가벼이 학교 모퉁이 걷고 있는데 어느 젊은 여인이 불렀다.

“학생 얘기 좀 할까?”

윤이 이모님은 차분하고 지적이며 우아하다. 내게 취미며 가족관계, 최근에 읽은 책등을 물으며 조심스레 조카 이야기를 시작한다. 언니의 둘째 아들인데 우울증 있어 지금 학교를 쉬고 있단다. 의사가 여학생을 추천해서라며...

“학생이 우리 조카 친구 좀 되어주면 안 될까?”

그 애 집은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다. 차도에는 고서점들 즐비하고, 골목 안 으리으리 이 층 양옥에서 그 애를 처음 만났다. 본 순간 그 애는 씨익 웃는다. 가지런한 하얀 치아, 창백한 피부, 흰칠한 키, 나랑 같은 고2다. 윤이 아버님은 유명 사립고 육성회장에 유도부 후원회장을 맡고 계셨다. 어머니 아름다운 분이지만 아들 걱정에 꾸밈 여유가 없나

보다. 수업 끝나면 매일 화랑가를 돌던 나는 이제 윤이 집으로 갔다. 그 애 이층 방은 크고 넓다. 우리 문학과 음악, 철학, 미술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가 과일 쟁반을 들고 올라와 아들 기분을 살피며 좋아하신다. 서울 H대 다니던 형이 집에 내려왔다. 약간 곱슬머리의 세련된 서울 대학생에 소녀 맘은 살포시 들뜨기까지 했다. 윤이는 많이 밝아지고 쾌활해졌다. 우리 가끔 근처 뉴욕제과에서 만났다. 둘 다 교복 차림이다. 윤이는 팝송 즐기고 문학소녀는 많은 독서량에 데미안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논했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에쿠우스>, <빨간 피터의 고백> 등 연극영화를 두루 즐겼다. D여고 주변은 법원 도서관 미문화원, 대학병원, 고급주택가 시내 중심가와 가까웠다. 소녀는 집으로 가는 중 많은 갤러리에 들러 그림 감상하고 Y-club 활동도 열심히다. 소규모 음악 감상회, 문학회, 독서토론회도 주관하고 공군 부대 위문 연극공연도 했다. 문희보다 윤정희를, 나훈아 아닌 남진을 좋아했다. 중국 칼잡이 외팔이 시리즈, 영화 할리우드의 서부활극 007시리즈, 영화도 연극도 문학책도 많이 접했다.

어릴 때 《소년》이란 잡지를 구독하고, 여고 시절 여학생잡지사의 장학생 모임이 경기도 소사에서 있었다. 그 당시 청바지에 찢어진 눈, 통기타 메고 캠프파이어 노래를 부르던 대학생이 지금은 SM의 이수만이 다. 뷰티플선데이 딜라일라도 많이 노래했다. 반짝이는 전성시대였다.

어느 날, 윤이는 학교로 찾아왔다. 쉬는 시간 높고 기다란 이층계단



을 황급히 내려가면 그 애가 모자(교모) 교복 차림으로 우뚝 서 있다.

“어머 윤이야, 여긴 여학교야 오면 안 돼.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갈게.”
 차츰 윤이가 학교 오는 횟수가 잦아졌다. 처음엔 놀라움과 당혹감, 나중에는 무서움과 불안감이 일었다.

“윤이야 집에서 기다려. 여기 오면 절대 안 돼.”

윤이와 소녀가 잠시 만나는 쉬는 시간이면 학교 일 이층 창문에 꽃

들이 핀다. 다들 예민한 시기다. 창틀 창문에 서너 명이 서로 보려고 소동이 났다. 일이 커져 버렸다. 먼저 담임께 말씀드리자 다시는 남학생 오지 못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윤이는 통제되지 않았다. 윤이는 부모님 꾸중으로 더 어두워졌다. 내 앞에 순하고 착하고 맑은 아이지만 부모님께서는 무섭게 화내고 덤비는가 보다. 두 분은 위협을 느끼고 입원 결정 후 도움 청하셨다. 나랑 같이면 병원 가겠다고... 그 이후 윤이와 소식 끊겼다. 양갈래 머리 땡아 내린 소녀는 고3 되어 입시와 마주한다. 마냥 상담실에서 울고 있을 수 없었다. 부러움과 호기심, 시기와 질투, 턱없는 소문들... 여고개담이 돌고 있다. 하루는 담임 집에서 수학 과외를 받고 있는데

“나 오늘 그 남학생 만났다. 가라고 야단쳤더니 막 덤비더라.”

아~ 윤이가 학교 왔나 보다. 입원과 퇴원, 독한 약을 반복하며 그 애는 점점 황폐해져 갔다. 고3 어느 여름날 복도에서 그 애와 마주쳤다. 예전의 미소녀가 아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팽한 눈, 수척한 얼굴, 골덴바지에 노끈으로 둘러친 허리띠, 중심 잃은 눈동자, 뭔가 불안한 상태로 보인다. 순간, 우린 서로 바라보며 말이 없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고, 난 수업 받으러 교실로 들어갔다. 윤이의 마지막 모습이다.

소녀는 대학 졸업 후 잠깐 학교 나가다 결혼 후 서울 살게 되었다. D도시로 갈 일이 있었다. 소녀는 지금은 공원으로 단장된 D여고 자리와 윤의 집을 찾아갔다. 10여 년 흐른 시간이다. 여고는 외곽으로 이

전했고 동네는 아주 커다란 시내 중심가 로터리(사거리)로 변해 있었다. 서점도 골목길도 흔적이 없다. 지금은 배가 내린다.

‘All for the love of a girl’이 흐르고 있다.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떤 기억은 먼 산의 눈 녹듯 쉽게 지워진다. 윤이는 그렇지 않다. 쉽게 녹지 않는 기억도 있다. (2020. 8. 22. 비. 토요일)

기억 속 풍경

— 최필선



기억 속 풍경의 진원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본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두 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 거제도도 피란을 갔다고 한다. 1950년 6·25전쟁 때 경상남도 창원군 구산면, 우리 면에서 멀지 않은 이웃 진동면 가까이 전투가 치열해 졌다. 면사무소는 면민 전체를 피란 시키기 위해 각 마을의 이장들과 회동하여 동민들과 떠날 날을 의논하고, 배편을 준비하여 피란일이 결정되었다. 그때가 농사철로 초벌 논 메기를 할 때 서둘러 논 메기를 끝내고 키우는 소는 고삐를 풀어 산으로 몰아넣고, 간단한 가재도구를 챙겨 증조할머니와 큰삼촌은 마산 왕고모님 댁으로 가시고 둘째고모는 결혼한 큰고모가 산달이라 큰고모 가족과 함께 피난을 떠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막내삼촌 막내고모 아버지 어머니 나 우리 가족은, 이웃 마을에서 큰 배로 옮겨 타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거제도 장승포에 도착했다. 장승포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라 피란민 수용소로 가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외가댁으로 가셨다. 거기에도 외갓집의 여러 곳에서 오신 친척들이 많이 계셨다. 그분들과 같이 외양간에서 기거하는 피란 생활이었다. 잠

자리는 바닥에 가마니를 깔 외양간이었지만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밖에다 밥솥을 걸고 비를 맞아가며 밥을 지어 여러 사람과 부대끼는 끼니때의 불편함은 말할 수 없었다고 하신다. 할아버지는 필요한 물품을 구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지고, 아버지는 변장을 하고 다니며 낮에는 산속에 숨어 계시다, 밤에 집에 와 주먹밥을 가지고 다시 산으로 숨어 지낼 곳으로 가셨다.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으려니 어쩔 수가 없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어려운 생활을 두어 달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집은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하신다. 마당과 길에 풀이 자라 온통 무성한 풀밭으로 변하여 또 암담했지만 들에는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고추도 풀 속에서 빨갛게 익어 있는 가을 들녘을 보니 절망이 희망으로 안도의 마음에 설움이 겹쳐 눈물이 흘렀다 하신다. 땅을 파고 땅속에 감추어 두고 간 곡식이 없어서 난감하기도 했지만 살아있는 사람 입에 거미줄을 칠 수 있겠니 시며 웃으셨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풋벼를 베어다 훑어 솔에 찌고 말려 빵아 찌쌀을 만들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불에 타고 허물어져 흙벽만 조금 남은 헛간을 대충 보수해 나무를 잘라와 기둥을 세우고 솔가지를 엮어 지붕을 얹고 생풀을 바닥에 깔아 잠자리를 마련했다 하신다. 가마니나 명석은 불에 타 없어졌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음 날은 생풀을 햇볕에 말려 바닥에 깔고 살았다는, 힘들었던 시절의 회한을 들려주셨다. 불에 타버린 집은 살아가면서 지었는데 위체는 이렇게 짓고 아래체는 저렇게 지으셨다고 하셨는

데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울안에 남새밭이 있는 초가집 두 채와 외양간 헛간이 있는 흙 마당에서 자랐다. 힘들고 고단했을 새댁 엄마의 시집살이 피난살이를 상상해 보았다.

흰 구름 같은 유년 시절

어름푹한 기억 속에 할아버지가 새 신발을 사 오셔서 신겨주시며 안아주시던 한 번의 흐릿한 기억이 있다. 고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겐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 남동생 세 명이 태어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검은 치마에 분홍 물들인 명주 숨저고리를 입고 가슴에 흰 수건과 명찰을 엄마가 달아주셨다. 교실은 다져진 흙바닥이었다. 집에서 써 보고 간 ‘ㄱ ㄴ ㄷ ㄹ’을 선생님 따라 읽고 써가며 학교생활이 시작되었다. ‘바둑아 바둑아 나하고 놀자’한 것도 같다. 할머니를 따라 바닷가에 나가 썰물 때 조개 캐고 고동도 잡고 흥합 따는 놀이를 해 보았다. 초등학교 때 벚논에 참새를 쫓으러 갔다. 참새떼가 날아와 벼에 앉으면 쫓아야 하는데, 뱀들이 논두렁에 빠리를 틀고 늘어앉아 가을 햇볕을 쬐느라 혀를 날름날름 거리며 꿈쩍을 하지 않는다. 무섭고 징그러워 멀리서 애먼 돌멩이만 던져대다 울면서 집으로 간다.

뱀의 공포에 장년이 될 때까지 꿈속에서 뱀에 쫓기는 꿈을 꾸었다. 친구들과 소에게 풀을 먹이려 소를 몰고 산으로 들로 다녔다. 우리 마을은 마을 초입에 초등학교와 바다가 있다. 산을 끼고 빙 둘러 있는 바다는 마을에 들어서면 보이지 않는다. 마을 앞동산을 넘어가면 만



깊숙이 호수 같은 바다가 있다. 산길로 소를 몰고 가면 가까이에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바닷물 위를 걸어도 발이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일어 물 위를 걷고 싶을 때가 있다. 오고 가는 길에 물고기가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풍경을 본다. 그를 때면 친구들과 말장난을 한다. 한번 뛰면 저건 우리 아버지 반찬 또 뛰면 저건 우리 엄마 반찬 가족들을 나열하면서 너도나도 우리 아버지 엄마 거라고 우기며 큰소리를 질러 된다. 그러다 또 물고기가 펄쩍 뛰어오르면 싸릿대를 꺾어다 삼태기를 엮어와 뛰는 물고기를 받아오면, 나는 밤하늘에 무수한 별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을 따다 줄게 하면서 장난을 친다. 소와 함께 갯가에 내려가 물놀이 하며 조개 잡고 게도 잡고 놀다, 산 그늘이 바다에 내리면 소를 찾으려 산으로 간다. 땀이 고여 미끄러운 고무신을 마른 황토로 닦아 내가며 비탈진 산길로 소를 몰고 올라간다. 당산 정상에 올라서면 옥녀봉이다. 옥녀봉에 우뚝 선 각시바위도 있다. 각시바위 그늘에 앉아 친구들과 돌멩이로 공기받기하다 바위 옆에 서면 산 아래로 북쪽은 우리 동네와 학교가 보인다. 초등학교 교가의 한 소절 '옥녀봉의 높은 기상 우리의 자랑'이다. 남쪽은 멀리 거제도가 보인다. 가까이 섬들도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다. 용수철 같은 괄이 있어 쪽 뺨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바다, 여름이면 은빛 물결이 반짝이는 바다에 멸치잡이 배가 들어와 조업한다. 어선 두 척이 어망을 펼쳐 내리면 노 젓는 작은 배가 팽과리 장단을 치며 멸치 떼를 몰아넣는 듯한 회전한다. 팽과리 장단이 끝난 공간에 어부들이 함성의 장단으로 두

척의 배가 마주 보며 그물을 끌어올린다. 조용한 산골 바다에 경쾌한 팽과리 소리와 어부들의 함성이 한바탕 가슴 속을 힘차게 두드릴 뻔했다. 운반선이 다가와 잡은 멸치를 옮겨 싣는다. 어선은 떠나간다. 함성의 여운을 멀리까지 끌고 은빛 수평선으로 떠나간다. 운반선도 서서히 굴뚝에 연기를 내뿜으며 떠나간다. 시간이 멈춘 듯 사방이 고요하다. 바다에는 저녁노을이 반짝반짝 아롱거린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면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간다. 아름다운 풍경, 어디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울창해진 나무 사이로 그리움이 아련히 밀려온다. 아침 어스름에 엄마가 잠을 깨운다. 눈을 뜨고 일어나 소를 몰고 풀밭으로 간다. 이슬에 바지가 흠뻑 신발까지 젖는다. 풀을 뜯는 소는 둥근 눈을 부라리며 혀로 풀을 휘감아 입속에 넣고 꿀꺽 삼키며 코를 씹씩거린다. 소의 콧바람에 이슬이 떨어진다. 풀잎마다 맺힌 이슬이 햇빛에 반짝거린다.

아버지와 지게

아버지 하면 언제나 떠 오르는 모습이 있다. 웃음 띤 얼굴로 지게를 지고 대문에 들어서시는 구부정한 모습이 어린 기억에 있다. 아버지와 지게는 빛과 그림자 같다. 아침 일찍 부엌에서 엄마가 내미는 간단한 음식으로 요기를 하시고 지게를 등에 지고 대문을 나가신다. 봄 여름 가을은 새벽안개가 희뿌연 들로 나가셨다. 아침 식사 때가 되면 아버지를 기다리다 앞뜰에 있는 논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찾는다. 안 계

시면 뻥히 바라다보이는 언덕길을 바라본다.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고개를 내려오신다. 엄마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려 마루에 올려놓는다. 아버지가 빙긋이 웃는 얼굴로 파란 풀집을 지고 대문에 들어오신다. 세 개의 밥상이 차려진 마루에 앉아 여름 아침 가족이 식사한다. 아버지는 잠시 쉬었다 밭에 뿌릴 퇴비를 지고 대문을 나가신다. 겨울에는 땀감 나뭇짐을 봄 가을에는 곡식짐을 지고 옷이 땀에 흠뻑 젖은 몸으로 대문을 웃으며 들어오신다. 여름에는 소의 밤참과 퇴비를 만들 풀을 베어 지고 들어오실 때마다 빙긋이 웃으셨는데 왜 그리 아버지가 어려웠는지 유년 때도 아버지 앞에 제대로 말도 한마디 못했다. 빗자루로 마루를 쓸면 아버지가 앉은 자리를 비켜주시며 빗자루를 이길 수 없어 비킨다며 하시는 농담도 부끄러웠다.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였는지? 아버지께 할 말이 있으면 엄마를 통해서 했다. 집안에 큰 당숙은 부산에 계시다 방학 때가 되면 고향 집에 오신다. 오셔서는 우리 큰집 큰형님이 구산면 안에서 제일 미남이시다며 부산에서도 보기 드문 미남이라 하시며 아버지를 보고 우쭐해 하신다. 아버지가 미남이라 하셔도 아버지 젊은 모습은 기억에 없다. 명절 때 한복 바지저고리를 입으시고 탁주 몇 잔에 볼그레한 모습은 멋있으셨다. 친구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마을이 떠들썩하게 큰소리를 내시는데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시다 잠이 드신다. 겨울에 아버지가 친구들과 낚시하러 가시면 물고기를 많이 낚아 오신다. 이십 대 때 아버지와 처음으로 배를 타고 아래 바다에서 낚시한 기억이 있다. 아버지가 낚시줄에 낚시바늘 일곱

개를 매달아 미끼를 끼워주셨다. 나는 징그러워 갯지렁이를 꿰지 못했다. 낚시줄을 바닷속에 던지자마자 투둑 입질을 한다. 큰 고기는 아니지만 일곱 마리를 낚아채 올렸다. 꼬시래기 도다리 같은 통째로 썰어 먹는 횡감, 소금 솔솔 뿌려 굽는 구릿감 재미있었다. 집안의 장손에 장남이신 아버지는 농사일에 매달리셨다. 굶은살이 크게 박인 손발로 많은 가족의 생계를 등에 짊어지고 고갯길 오르내리며 살아오신 아버지다. 굶어진 등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 가슴이 아팠다. 남들이 멋있다고 입 모아 칭찬하시던 우리 아버지 연세 여든에 병원 입원해 계실 때도 같은 방 보호자들이 점잖고 멋있다고 한마디씩 하였다. 아버지가 오십 대 후반일 때 친정집에 갔더니 아버지의 지게가 꽃지게가 되었다. 쌀농사보다 꽃농사가 경제적 이익이 많으며 국화를 심어 가을에 붉은색 노랑 새하얀 국화꽃 소국과 대국을 지게에 지고 대문으로 들어오신다. 웃으시는 밝은 모습과 꽃지게를 어린 기억에도 심었다. 살아계셔만 있어도 마음 든든했던 부모님 아버지 돌아가신 지 십 년 어머니 돌아가신 지 육 년 두 분이 여든 여섯 살일 때 돌아가셨다. 하고 싶은 말 살아계실 때 다 하지 못하고 불효만 한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의 지게처럼 부모님을 마음으로 많이 많이 의지하고 살았다. 그리워서 눈물이 나려 한다.

나의 황금기

— 최혜경



내 고등학교 시절은 아버지의 사업 부진으로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려운 시기였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별로 부족함이 없었던 우리 가족은 별안간 닥친 어려움에 모두가 힘들어했다. 게다가 오빠 둘은 대학생이어서 부모님께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벅차 하셨다. 그 시절 대부분 여자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와서 직장생활 이삼 년 하다가 결혼하는 게 당연시되던 시기였으므로 어느 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말고 나중에 늙어서 노인대학 가라고.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다.

나는 쓰라린 내 마음을 달래가며 아무 생각 없이 직장생활 하며 몇 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다녀온 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때렸다. 물론 친구들을 만나서 반갑고 즐거웠지만, 학창시절에 빌빌대던 친구들이 대학이라는 곳을 가서 생활하며 나랑 대화가 안 통하고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따라 나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면서 비참함에 안쓰럽기 짝이 없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아직 늦지 않았어. 나도 해낼 거야'하

며 일깨우는 어떤 힘이 용솨음쳐 올랐다.

그다음 날 나는 다니던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대입학원으로 향했다.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엄청난 용기였다.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이라 집에서 새벽 4시에 나가면 자정이 되어서야 들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 아마도 그때가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을 다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결과를 발표하는 날, 예상외의 좋은 결과에 너무 놀라 기절초풍할 뻔했다. 난 내가 너무 대견스러워 스스로 머리로 쓰다듬어 주고 맛있는 것도 사 주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노인대학 가라던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셨다.

그 후 친구들 대학 졸업식에 다녀온 후 난 당당히 입학하였다. 나의 대학 생활은 너무 순조로웠고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또래들보다 늦게 들어간 학교라서인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했다. 지식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현역으로 들어온 아이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잠시도 의미 없게 보낼 수가 없어 정말이지 숨은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 학교는 늦게 들어갔지만 난 그 시절에 공부도 연애도 노는 것도 후회 없을 정도로 실컷 했다. 내 일생 중에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그 시절은 내 인생 최고의 황금기였다.

오늘은 웬지 햇빛 내리쬐는 캠퍼스 도서관 앞 잔디, 그곳에 앉아 친구들과 실컷 웃고 떠들다가 우리들의 방앗간이었던 다방으로 몰려가 DJ의 신청곡을 듣고 싶다.



그리워

내게는 오빠만 둘이 있다. 어릴 적 오빠들에 대한 기억은 참 좋은 편이다. 크리스마스트리를 위해 같이 관악산에 소나무를 뿌리째 뽑으러 간거하며 남자아이들이 주로 하는 딱지나 구슬치기 놀이 후 수확물을 내게 관리하게 한 추억 등은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게 만든다.

커가면서 큰오빠는 그래도 장남으로 해야 할 도리를 잘 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과 이민문제 때문에 아버지와의 다툼으로 가족 모두가 이민을 다 버렸다. 아직 미혼이었던 나는 조카들을 많이 사랑했으며 그들도 고모인 나를 무척이나 따랐다. 난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큰 오빠 가족들이 이민을 떠나고 몇 날 며칠을 울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형이 가니까 그냥 따라서 간 건지 아니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부담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작은 오빠 가족들도 이민을 떠나 버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릴 적부터 사이가 그저 그랬던 작은 오빠 가족의 이민은 별로 서운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난 이 땅에 형제 없이 혼자 남게 되었다.

물론 오빠들도 이민 후 힘들었겠지만 나 역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었다. 30여 년 동안 부모님들 보살핌은 고스란히 내 몫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빠들은 지금도 다른 나라에 산다.

나는 요새 형제 중의 하나가 그들만의 돈독함에 주축이 되어 희로애

락을 함께하는 집안이 너무나도 부럽다. 딸인 나는 부모님께 명절이나 생신 때 오빠들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남편과 함께 무던히 애를 썼다. 가끔 기분전환도 시켜 드릴 겸 여행도 보내드리고 했지만, 그렇게 해 드리는 나랑 남편보다 부모님은 그저 아들들 생각뿐이셨다. 이럴 땐 그분들께도 서운하고 오빠들도 원망스러웠다. 요즘엔 모든 것이 힘들다 보니 혼자서 내 신세도 한탄해 본다.

그런데 결론은 보고 싶다. 특히 큰오빠 가족들이 그립고 그냥 이 땅에 있어만 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나 보다. 그래도 오늘따라 저녁노을은 무척이나 아름답다.

그때 그 선생님

— 홍순경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여/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뤄져 가기를/ 함께워 한 날의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여”

-보컬 그룹 '부활'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Never Ending Story>

보컬 그룹 '부활'은 김태원이 만들고 지금까지도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다. 부활의 리더인 김태원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불현듯 떠오른다.

중학교 때 소풍을 갔다. 소풍을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남학생이 기타를 치니까 여학생들이 모두 그 학생을 에워쌌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남학생에게 모두 물렸다. 이를 지켜보던 내가 “저건 기타 치는 게 아냐 장단 맞추는 거지.”라고 한마디 던졌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학생들이 내게 물었다.

“너 기타 칠 줄 아니?” “내가 기타를 못 치면 이런 말을 하겠니?”

김태원은 기타를 칠 줄 몰랐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기타연습을 열심히 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타리스트가 되었다고 한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첫 번째 국어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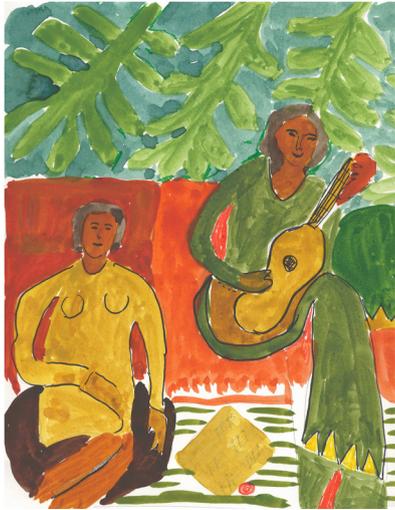
“다음 시간까지 작문을 한 편씩 써내세요.”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했던 나는 그만 숙제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숙제를 안 한 이유는 그동안 작문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문할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원고지를 샀다. 몇 번 종이에 습작하였다. 하지만 글이 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좋은 글을 읽으면 작문에 도움이 될 듯했다. 청소년잡지 <학원>에 있는 글을 읽었다. 그 글을 모방하여 써보기로 했다. 글의 내용이며 감정을 모사해보고자 했다. 그런데 남의 글을 모사든 모방이든 쉽지 않았다. 이 또한 기술이 있어야 하나 보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글이 완성된 걸 보니 비슷하게 쓴 것이 아니라 거의 똑같아 보였다.

아침 조회시간이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있었다. 훈시가 끝나고 국어 선생님이 단상으로 올라오셨다.

“○○○ 학생이 작문을 잘 써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이 작문을 읽어 내려갔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귀에 익은 내용이 었다. 어떻게 귀에 익었을까? 생각하니 내가 써낸 작문이다. 얼굴이 화



끈거렸다. 두려웠다. ‘이 일을 어쩐다.’ 걱정이 앞섰다. 나의 창작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서 낸 작품이 아닌가. 선생님이 알면 벌을 받을 일이 뻔해 보였다. 그렇다고 사실을 고백할 수도 없었다. 무사히 그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로소 나의 성찰이 시작되었다.

글쓰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실력이 탄로 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나는 결심했다. 선생님에게 실망을 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 일이 있던 다음 나는 글쓰기 공부를 하고, 문예반 활동에도 참여했다. 문예반 선배들이 글쓰기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다. 덕분에 글쓰기가 실력이 조금씩 나아져 갔다.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니 친구들이 나에게 부탁하는 일들이 더러 있

었다. 연애편지의 대필이었다. 지금과 같은 이메일이나 핸드폰과 같은 통신수단이 없던 시절이었고, 펜팔 등 연애편지가 많았다. 여학생들에게 연애편지를 잘 써서 보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나에게 연애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 대가로 나의 숙제나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다. 때론 뇌물 공세도 없지 않았다. 어떤 친구는 ‘여학생과 잘 되면 여자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까지 했다. 나는 글쓰기를 배워 ‘연애편지 전문 작가’가 된 셈이었다.

후일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국어 선생님은 내가 다른 작품을 베껴서 낸 것을 이미 눈치채고 계셨다. 그런데 선생님은 끝까지 나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더 글을 잘 쓰고 싶어 글공부를 계속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글쓰기를 놓아버렸다. 주간엔 직장, 야간에 대학교를 다니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취업 후에도 글쓰기를 계속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돌이켜 보면 다른 글을 베껴서 숙제를 낸 나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모른 척 넘어가 주신 선생님 때문에 글을 배웠고, 지금도 글쓰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김소연 시인은 자신의 시집, 《마음사전》에 실린 〈거짓말〉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은 결국, 거짓말의 그릇에 담긴 간절한 진실과 같다.”

거짓말이 간절한 진실을 담을 수 있다. 김태원의 거짓말은 진실로 바뀌었는데, 나의 거짓말은 아직 진실을 담지 못했다. 지금도 그때 그 국어 선생님에게 한 거짓말을 간절한 진실로 만들기 위해 글을 쓰고 싶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를 들으며 그때 그 선생님을 떠올린다.

“천 번이고 다시 태어난 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코로나19시대 평택, 마스크 너머의 표정을 기록하다

— 이수경(배다리운영팀장)

2020년 지구,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시간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된 모습은 익숙한 듯 흠칫 놀라게 됩니다. 거리 두기로 만남도, 대화도 삼가야 하는 낯선 풍경 속에서 평택 어르신들의 기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는 배농사 이야기입니다.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1993년 봄, 평택을 온통 하얗게 수놓았던 배꽃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 많던 배 받이 조금씩 사라지며 누군가의 집이 되거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배꽃 이야기를 지금 도서관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죽백동과 청룡동의 성실한 농부들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평택 들녘을 일군 농부들입니다. 배농사부터 목장사까지 일 하시며 거뜬히 집안을 일으킨 김종연 어르신, 부부이신 장태숙 이정숙 어르신들은 이야기에 빈 곳이 생길새라 육아부터 배농사까지 꼼꼼히 이야기해주셨고 현직으로 배농사를 열렬히 하고 계신 이동재, 김현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배 품종, 맛있는 배 고르는 법까지 배농사에

대한 것들과 농사 짓는 분들의 고민과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한 장면』프로그램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어르신들을 통해 평택에서의 삶의 한 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인 올해 구술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배밭으로 나갔습니다. 배농사 이야기에 푹 빠져 첫 만남부터 두 시간 꼬박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지만 태풍으로 만남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비바람에 떨어진 배 이야기가 올해만큼 가슴 아프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감염병, 태풍 등 여러 상황이 만남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청장년 기억수집가분부터 구술 사업 참여 어르신들까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글에서도 나타나겠지만 그것 또한 감염병 상황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게나마 평택 배농사를 기록하겠다는 기획을 하며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할까라는 고민에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님이 물꼬를 터주셨습니다. 부록에 실린 죽백동과 청룡동, 평택 배농사 이야기는 구술 어르신들의 이야기와는 또 다른 맛을 선사할 것입니다. 올해 평택을 찾아주신 정혜경 선생님을 통해 6년의 평택 구술 사업을 되짚어 보고 내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생각하

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정리하며 마스크를 쓴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스크 쓴 모습은 표정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스크 너머, 우리는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진중한 눈길, 온몸으로 표현하는 경청, 후배들에게 삶의 기억과 농사 이야기를 해주신 인생 선배님들, 앞선 선배의 삶의 기억과 이야기에 흠뻑 빠져든 우리 모두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내년에도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나그네 삶 속 진정한 영웅들

— 조은정

시인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가 자꾸 떠오르는 요즘이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인생이 '찰나刹那'와 같이 흘러간다고 해도 외줄기 남도 삼백리같은 삶의 여정을 두 발 꼭꼭 짚어서 살아낸다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니다. 그 많은 사연이 술처럼 익어가고 노을빛을 닮아갈 때 우리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마등처럼 흐르는 삶의 여정이 꼭 박목월의 '나그네'를 연상하게 했다. 주어진 환경에서 삶의 모든 통과의를 온전히 거쳐내온 삶은 그 자체가 영웅의 삶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의 영향이 도미노처럼 펼쳐지는 시대에 육신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모든 나그네들과 함께 역사의 한자락을 살아가는 중이다.

보이지 않던 것들

— 김예주



대학에 와서 친구가 평택 임씨라는 것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역사와 지리에 특히 약한 나는 원래도 이런 종류의 지식이 부족하지만, 평택에 본관을 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나 평택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의아했다. 어딜 가든 자랑스럽게 평택 사람이라고 말해왔지만, 20년을 한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나를 온전한 평택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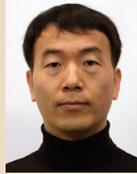
강의를 통해 평택의 역사를 배우는데, 함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평택과 나의 평택이 같은 곳인가 싶을 정도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졌다. 길 찾기가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역전 오거리가 만들어진 배경을 알게 되었고, 대체 몇 살이나 먹었을까 궁금했던 고등학교 건물의 과거도 들을 수 있었다. 내 눈에는 아파트 단지로만 보이는 곳이 다른 분들에게는 논밭으로도, 물길로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참 재미있었다.

한참을 공부하고 나서야 우리의 인터뷰 대상이 되어주신 통장님을 만나 뵈 수 있었다. 통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배꽃만 하얗던 배밭에서 이제는 덕이 보이고, 나방이 보이고, 태풍으로 떨어져 나뒹구는 배들이 보였다. 또 나무를 가만두면 알아서 자라나 배를 주렁주렁 달아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과 발이 일 년 간 품을 갈아 넣어 배를 만든다는 사실도 이제는 분명히 안다. 통장님 덕분에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배밭의 모습을 많이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어리고 부족한 나를 잘 챙겨주시고 귀여워해주신 다른 기억수집가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남기고 싶다. 더욱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종종 이 책을 들춰보며 함께해주셨던 분들을 기억하고 싶은 바람이다.

평택의 들, 산, 삶의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된

— 배재만



2002년 처음 들어온 외부인으로서 저는 지금까지 평택이 낯설고 어색한, 그리고 왠지 정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농아인의 삶에 관심이 많은 저는 농인의 역사에 대한 구술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 중이었습니다. 마침 친구로부터 평택지역 배농사에 대한 구술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개를 받고 농인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 받고자 무조건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평택]이라는 이름에서, 평택을 돌아보며 넓은 평야와 택지에서 오는 윤택한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나주)에서의 농사에 대한 고통과 찌뚱이 전혀 없는 곳인 줄만 알았습니다. 외부 유입인으로서 저에게 평택은 이기적이고 텃세가 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억수집작업을 통해서 평택의 아픔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치열한 삶들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평택호와 지역 하천들, 땅들, 야산들의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사는 이들의 깊은 시름과 기쁨, 그리고 오늘을 조금 엿보았습니다. 진위천 인근 농부들이 왜 그렇게 주름이 깊은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안정리 농민들이 왜 그렇게 치열

하게 싸워야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택이 낯선 땅도 아니고, 어색한 땅도 아닌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배농사라는 한정된 부분에서가 아니라 평택이라는 지역의 수많은 시간을, 역사와 자연 앞에서 어떻게 지켜왔는가에 대한 따뜻한 손길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오늘이 갑자기 뚝 떨어져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나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었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이런 작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삶을 아낌없이 열어주신 인터뷰 참가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평택을 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단옷 입고 밤길 가기

— 유은영



“그냥 ‘비단옷 입고 밤길 가기’라고…”

인터뷰 도중 지나가는 말썬처럼 옛 속담 한 구절을 툭 던지신다.

처음 듣는 속담이었다. 궁금했지만 말썬 중이시라 끊을 수 없어서 묻지도 못하고 지나쳤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녹취 풀이를 하다 다시 생각이 나서 얼른 검색을 했다.

비단옷 입고 밤길 가기 [속담] 생색이 나지 않는 공연한 일에 애쓰고도 보람이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아~ 혼자 많이 마음 쓰셨는데 서운하셨구나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그 후로도 그 속담이 문득 문득 생각이 났다. 나만의 좀 다른 해석으로.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에 만나는 모든 길이 꽃길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비록 째름한 밤길이어도, 내가 비단옷을 입었다면, 내가 입은 옷이 내 마음에 비단옷이라면 나는 만족한

인생이 아닐까?

처음 시작은 그저 호기심이었다. 그리고 할 수 없게 너무 많아진 시절에 새로운 뭔가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들을 녹음하고 그 녹음한 내용들을 듣고 또 글로 풀어 적고 다시 또 읽어 보고 그러는 사이에 머리로 시작했던 일이 가슴으로 내려와 울림이 되었다.

회혼(回婚)을 넘긴 노부부의 살아온 시간들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며 또 그것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이 ‘아카이브’가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알게 되었다.

고은 시인의 시처럼 내려 올 때 비로소 만나게 된 그 꽃이 주는 안도감처럼 나 또한 내려오는 길에 만나게 된 이 소중한 경험은 오래 기억 될 것 같다.

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내신 시간들을 들려주신 이정숙 어르신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린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름의 무더위도 그 지겹던 장마도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물러나고 어느새 하늘이 눈부신 가을이다.

이 가을에 나도 비단 옷 한 벌쯤은 얻은 듯한 설레임으로 수확의 기쁨을 맞는다.

기록과 기억하다를 생각해 봄

— 임영애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복병에 온국민이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도 기억수집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하게 된 기억수집가, 구술생애사는 평택이란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삶을 조용히 들여다 보며 희노애락을 펼쳐 책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올해의 테마는 배, 배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나 지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이 짜여졌습니다. 평택을 상징하는 배와 함께 한 인물의 삶에서 진솔하고 담백하게 기억을 끌어내어 기록하는 것이 이번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만난 구술자는 아직도 현업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69세의 김현수 어르신이십니다. 두 번의 인터뷰와 그 인터뷰가 잘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올해는 예기치 않은 일들로 계획했던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태풍피해를 당해 1차 인터뷰 외에는 할 수가 없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만남이 있었다면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현수 어르신이 들려주신 긴 이야기와 우리 팀의 두 분 선생님의 열정으로 1차 인터뷰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배를 수확하기까지 손이 백 번 간다고 합니다. 보통 쌀을 얻기까지가 여든 여덟 번 손이 간다고 하는데 배는 이보다 더 많은 손이 필요하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어르신의 살아오신 동안 과수원을 만들어 더 훌륭한 과수원을 키워오기까지 노력하신 많은 일들이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정과 도전정신이 지금 평택에 유명한 과수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을까?'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에 두 번째로 참가하면서 나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뒤돌아보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주변을 돌아보고 가만가만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는 우리는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귀하고 소중한 삶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좋은 만남과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귀한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 봅니다. 앞으로 쓰여질 나 자신의 기억과 기록을 위해 더 희망차게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라는 어느 선생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2020년 평택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만난 분들과 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서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구술 역사, 우리에게 귀한 유산

— 최명옥



기억수집가~! 개인의 생애를 구술 역사로 기록하기.

‘이것이 가능할까?’ 언제부터가 상상하면서 막연히 생각만 했었는데 눈으로 결과물을 보게 되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몇 번의 강의를 듣고 인터뷰 실전 연습을 한 후 우리는 세 명이 한 팀이 되어 한 어르신 부부의 생애와 40년간의 배농사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22세에 만나 84세가 될 때까지 62년간 서로 배려하면서 응원하며 살아오신 두 분, 아름답게 빛나는 미소와 삶의 지혜는 담고 싶을 만큼 제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술 녹취를 풀고 글로 옮기는 작업이 처음이라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리한 글을 읽을수록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더군요. 그분들의 경험치를 지적 유산으로 남기는 작업이라니 생각할수록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기억수집가 활동을 하면서 제작년 92세 되던 해에 돌아가신 저의 친정 엄마생각도 났습니다. 오랜 노환으로 힘들어하셔서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지요. 하는 음

식을 만들어 드리거나 옛이야기를 질문하고 귀기울여 듣는 등 소소한 것이라도 웃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네 딸이 같은 색 수면바지를 입고 수다 삼매경에 빠져들었던 어느날 밤의 파자마 파티가 생각납니다. 열여덟에 시집왔는데, 새하얀 옥양목 앞치마가 남들이 부러워하던 혼수품이었다고 뿌듯해하셨지요. 시골 살림에 일곱 남매 키우던 고생을 웃으며 들려주시더군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다음날 글로 풀어 저장해두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란 아프리카 격언이 있다지요. 더 알고싶은 92년간 엄마의 인생을 다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나마 그때 그러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 때나 그날의 행복을 고스란히 소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방법을 배우고 나니 조금씩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더 늦기 전에 엄마를 아는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여 책으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변에 기억수집가 활동가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한 고개씩 넘을 때마다 수고로운 작업일텐데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도서관 담당자분들, 지적 탐구를 도와주신 여러 강사님들,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신 어르신 부부 두 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 최정은



길을 가다 예쁜 집을 보면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며 궁금해하곤 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사는 모습을 궁금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궁금함이 이번 구술작업의 시작이었다. 한편으로는 지루할 수도 있는 작업일지도 모르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흔히 역사라 하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개인의 일대기는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해 볼 때 정사에 가까운 삼국사기를 역사서로 인정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삼국유사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지난 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흔적과 숨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정신을 느낄 수 있다고나 할까? 승려 일연이 민간에서 구전된 이야기를 수집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삼국유사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탄생하는 건 아닐까? 그만큼 우리

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일이 후대에는 더욱 소중하게 인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 거창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모두가 자기의 인생을 책으로 엮는다면 한 권 정도는 딱하니 나올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는가.

내가 이야기를 짓는 게 아니라 어르신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정리해서 기록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은 받았는데 처음이어서 좀 어색하기도 했고 '라포 형성'에 대해 배웠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인지 급하게 진행된 느낌이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는데 좀 팍팍한 느낌이다. 그냥 인터뷰로 끝났다면 음성으로 남겼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음질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기록이라는 게 오래도록 보존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비록 평범할지는 몰라도 기록의 힘을 빈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좀 더 비범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맡으며 알게 되었다. 그만큼 충실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구술하신 분들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옮겨 적으며 그 분들의 인생 속에서 공감하고 같은 연배이신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바쁜 삶 속에서 시간을 내주신 덕분에 구술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걸 감사히 여기며 나의 인생에 대해서 반추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수

확이라면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생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에게나 한번 주어진 기회이므로 다시 한번 살 수는 없지만 어르신을 통해 60세 무렵부터라도 나이와 관계없이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상전벽해라고 했던가? 주위의 배밭들이 아파트촌으로 바뀌는데 5년이나 걸렸을까 길게는 10년이나 걸렸을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봄에 피던 하얀 배꽃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런 서운함과 아쉬운 마음으로 이번 배농사를 주제로 하여 구술작업을 하게 됐다고 들었다. 흔히 볼 수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랐는데 어느새 사라지고 나니 그리운 건 인지상정인가보다.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평택의 배 과수원 이야기는 전설 속이나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때 우리의 작업이 일조할 수 있을까?

이번 작업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사람이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발자취를 남긴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분들께 작은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쉼과 위안이라고나 할까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란 생각도 하게 되었다. ‘사람책’이라는 말도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질문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목화솜에서 실을 자아내는 것과 누에고치에서 실을 빼내는 작업과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실로 옷감을 짜서 그분께 맞는 옷을 지어드리

는 일과 닮았다고 느꼈다. 농사로 치면 감히 자연과 농부가 하나 되어 빚어낸 수확물에 비길 수 있을까 사람책을 만드는데 녹아 들어가서 일조했다는 보람은 이번 작업을 통해 내가 거둔 소박한 수확이다.

한 사람에게 하나의 역사*

— 한다희



도서관 공고에서 ‘기억수집가’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던 제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단어가 주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이끌려 쉽지 않은 여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역사는 나와는 거리가 먼, 거창하고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이번 활동을 통해 내 고장 평택의 옛 모습을 바라보며 역사는 결코 나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란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에 따른 생활양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일상이 켜켜이 쌓여 세월이 되면 그것이 곧 역사가 되는 것임을 몸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부터 부모님, 나에게 이르기까지 서로의 기억 속에 겹쳐있는 평택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평택에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로만 전해 듣는 지금처럼, 봄에 눈이 내린 양 하얗게 배꽃이 피었던 그곳도 세월이 흐르면 말 속에서나마 다시 꽃을 피우겠지요.

조금씩 사라져가는 평택의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오신 분들의 삶의

흔적을 기록하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옵니다. 한 분 한 분의 생애사를 모으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토록 가치 있는 기록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팀원분들의 도움으로 긴 여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의 역사’라는 말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 장씩 써 내려간 역사는 여러 사건과 감정이 뒤섞인 나의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꺼이 당신 삶의 모습을 들려주셨던 우리 이동재 통장님을 기억하며 저도 이쯤에서 나의 시간, 나의 역사에 대해 되돌아봅니다.

*Matty Thomson et al, 소우주 (Mikrokosmos), (2019)

부록



2020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 평택 배농사 이야기 [평택인물백과사전]

구분	일시	장소	주제	내용	강사&담당
① 쓰기	7월 7일(화)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마을 역사 알기 ①	- 지역의 역사 알기 - 마을과 삶 들여다보기	김해규 (평택인문 연구소장)
② 쓰기	7월 14일(화)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마을역사알기 ②	- 지역의 역사 알기 - 마을과 삶 들여다보기	김해규
③ 쓰기	7월 21일(목)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특강] 구술의 이해	- 구술이란 무엇인가 - 구술 사례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위원회 대표연구위원)
④ 쓰기	7월 28일(화)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기억수집가 이해 및 조사방법	- 조사방법과 사례 알아보기 - 어르신 삶의 역사 들여다 보기	한정은 (기록전문요원)
⑤ 쓰기	8월 4일(화)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1차 인터뷰 준비	- 질문지 작성법 및 질문 만 들기 - 생애연표 작성법	한정은
⑥ 인터뷰	8월 11일(화)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1차 인터뷰 (어르신 유대형성)	- 어르신 도서관 나들이 & 유대관계형성 - 생애연표작성 - 어르신 인물사진 찍어 드 리기(관찰하기)	한정은 배준표 (사진작가)
⑦ 쓰기	8월 18일(화)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상세질문지 만들기 & 인터뷰 연습	- 마을 역사와 삶과 관련한 질문 만들기 - 인터뷰 가상 연습	한정은
⑧ 인터뷰	8월 25일(화) 18:00~20:00	어르신덕, 도서관 등	2차 인터뷰 (어르신 상세 인터뷰)	- 어르신 삶 상세 인터뷰 - 인터뷰장소는 집, 도서관, 마을회관 등 - 추억의 사진&물건 스크랩 하기	조은정 (글쓰기 지도사) 배준표
⑨ 쓰기	9월 1일(화)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녹취폴이	인터뷰 글 정리 및 녹취폴이	조은정
⑩ 쓰기	9월 8일(화)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녹취원본작성	녹취폴이 확인 및 녹취원본 제출	조은정

구분	일시	장소	주제	내용	강사&담당
⑪ 쓰기	9월 15일(화)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편집 ①	글 교열하기	조은정
⑫ 쓰기 인터뷰	9월 22일(화)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녹취폴이본 작성 및 3차 인터뷰 (어르신 글확인)	- 녹취폴이본(편집) 제출 - 어르신 녹취폴이본(1차 편 집) 확인 : 사진스캔 및 설명 정리	조은정 배준표
⑬ 쓰기	9월 29일(화)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편집 ②	글 교열하기	조은정
⑭ 쓰기	10월 6일(화) 18:00~20: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편집 ③	글 교열하기	조은정
후속 모임	11월 19일(목) 16:00~17:00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	출판기념회 (후속모임)	- 출판기념회 구술&함께쓰기 - 책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 회 공연 - <기억을 기록하다 展> 사 진전시회	이수경, 박영선 배준표



김해규 평택사 특강(2020. 07. 07.)



정혜경 대표연구위원 특강(2020. 07. 28.)



녹취 풀이 편집(2020. 09. 08.)



구술기억수집가 온라인강의



구술기억수집가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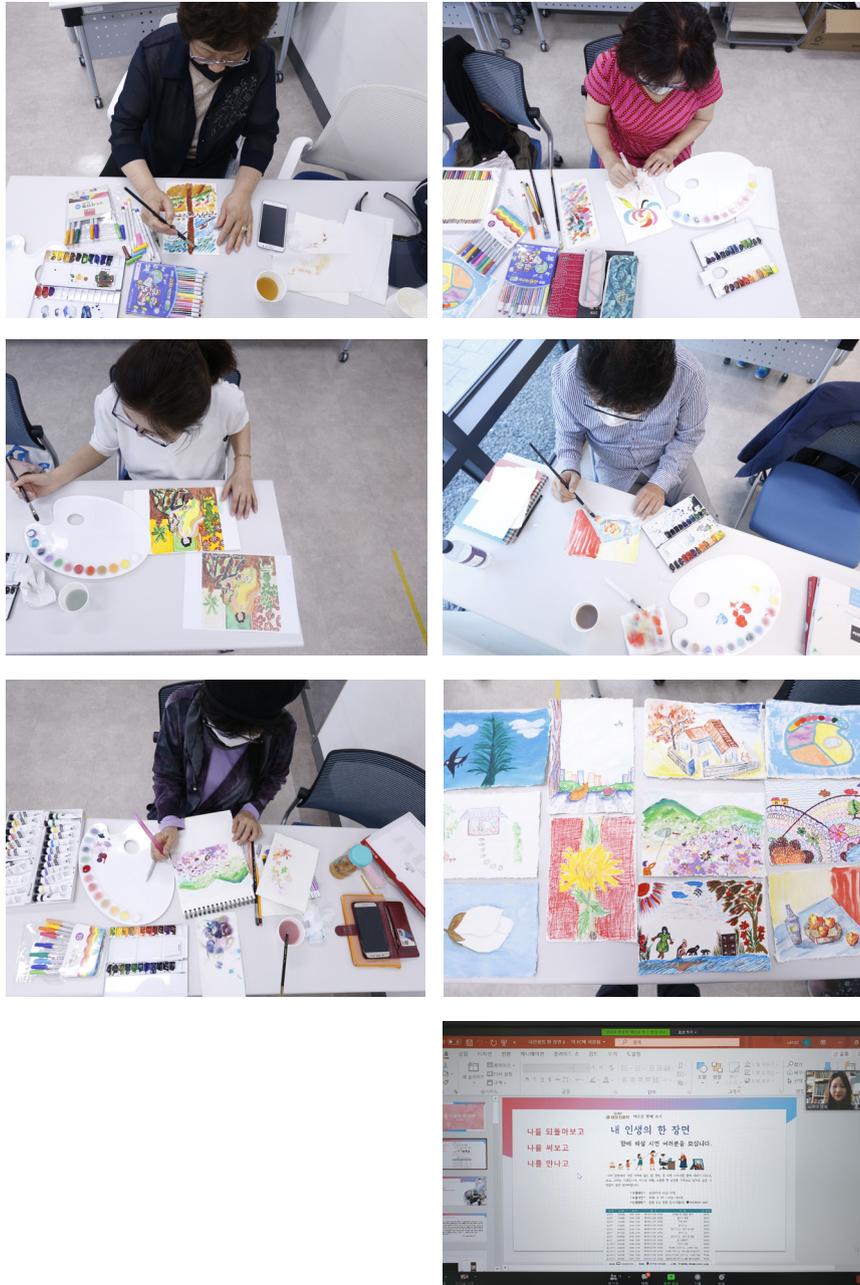
2020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 평택 배농사 이야기 [평택인물백과사전]

구분	일시	장소	주제	내용	강사명
① 쓰기	7월 7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유대감 및 친밀감 쌓기	- 인생 곡선 그리기 - 인생 10대 사건 이야기 나누기	김미아 (글쓰기강사)
② 쓰기	7월 14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글쓰기 방법	일기, 에세이, 소설 등 글쓰 기 방법 알기	김미아
③ 쓰기	7월 21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주제 찾기	- 생애주기(유년기/청소년 기/성년기/ 중년기/노년기)에 따른 주 제 찾기 - 과제 토론 및 이야기 나 누기	김미아
④ 쓰기	7월 28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글쓰기 ①-1	글쓰기	김미아
⑤ 쓰기	8월 4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글쓰기 ①-2	첨삭 및 편집	김미아
⑥ 쓰기	8월 11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글쓰기 ②-1	글쓰기	김미아
⑦ 쓰기	8월 18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글쓰기 ②-2	첨삭 및 편집	김미아
⑧ 쓰기	8월 25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글쓰기 ③	글 교열하기	김미아
⑨ 그리기	9월 1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그리기 방법	- 스케치, 수채화, 유화 등 그리기 기법 알아보기 - 친밀감 쌓기	박미라 (그리기강사)
⑩ 그리기	9월 8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초상화 그리기 ①	스케치 작업	박미라
⑪ 그리기	9월 15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초상화 그리기 ②	삽화 색칠 및 완성하기	박미라
⑫ 그리기	9월 22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인생의 한 장면 그리기 ①	스케치 작업	박미라
⑬ 그리기	9월 29일(화) 10:00~12:00	배다리도서관 강의실	인생의 한 장면 그리기 ②	삽화 색칠 및 완성하기	박미라



김미아 내 인생의 한 장면 글쓰기 강의(2020. 07. 11.)





내 인생의 한 장면 온라인강의



평택 배梨 이야기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

배(梨)는 가장 오래된 과일

우리나라에서 배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 현존하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농법서 제민요술齊民要術과 신당서新唐書에도 ‘삼한과 발해에서 배를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에 고구려 양원왕2년(546) ‘왕도王都의 배나무가 연리했다’는 기록으로 짐작컨대 최소한 삼국시대 말에는 배 재배가 성행했음을 알게 한다. 고려 명종 때 배나무를 심어 소득을 올리도록 나라에서 권장했다고 하고 조선시대에는 배가 주요 과수果樹로 권장되기도 했다.

조선후기 실학자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배의 다양한 재배법이 소개되었다. 대한제국시기에도 청실배, 황실배와 같은 품종이 언급되고 있다. 배는 과일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도 배 값은 사과보다 월등하게 비쌌다.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배를 깎아주면 귀한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다. 조선시대 임금께 배를 진상했던 것도 높은 가치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가에서는 조상에게 제사지낼 때 조율이시棗栗梨柿라고 해서 제사상에 반드시 올리는 네 가지 과일 중

하나로 인식했다.

배는 서양에서도 재배되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나 마트에서 배를 사 먹을 기회가 있는데 대부분 푸석푸석하고 수분과 단맛이 적다. 서양사에서 배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0세기라고 한다. 그리스 시인이며 역사가인 호메로스는 배의 시원하고 달콤한 맛에 감탄해서 ‘신의 선물’이라고까지 감탄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는 배를 활용한 요리도 많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배의 특산지는 북쪽에서는 봉산과 함흥, 연변, 금화, 평양이었고 남쪽에서는 수원과 나주가 유명했다. 북쪽지방에서 배를 많이 재배한 것은 생육과정에서 일조량과 일교차, 배수관계가 당도와 육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북쪽에서는 참배, 취안네, 함흥배 등이 많이 재배되었고 중부지방에서는 고실네, 청실배, 봉화배, 청당로배 등의 품종이 유명한데 가장 맛있는 것으로 함소리含消梨와 교리交梨를 꼽았다. 조선 전기의 문신 서거정도 ‘향기로운 배 살지고 부드러운 것이 함소리含消梨로다. 한 입 씹으니 혀 밑에 파도가 이는 것을 알겠다’고 노래할 정도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장십량, 나 만삼길, 금춘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재배되는 신고와 같은 신품종이 보급됐다. 해방 후에는 원예시험장에서 단배와 같은 신품종이 개발되었고 원예연구소에서는 황금배, 추황배, 원황, 만풍배 등을 보급했다.

배는 약재로도 널리 사용됐다. 중국의 이시진이 쓴 『본초강목』에 ‘향

기로운 즙이 넘치며 능히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과실'이라고 소개했다. 지금도 배에 도라지를 넣어 즙을 내서 마시면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배와 무즙, 생각을 달여 마시면 가래와 담 치료에 효능이 있으며, 해열이나 배변에도 효과가 있다. 중국에서는 배를 '이梨'라고 하는데 이별을 뜻하는 '리離'와 발음이 같아서 연인끼리는 먹지 않는다고 한다.

4월에 피는 배꽃은 온화한 사랑, 위로 등의 꽃말을 갖고 있어 옛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나라 근대 여학교들도 배꽃이 흐드러진 언덕에 세워져 이梨가 들어간 이름이 많다. '이화학당', '배화학당'이 그렇고, 몇 년 전 비전동에 문을 연 '평택이화초등학교'도 배꽃과 관련 있다. 여말선초 문신 이조년은 '배꽃'을 시詩로 읊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가 그것이다. 시리도록 아름다운 순백의 배꽃은 옛 사람이나 지금이나 모두 좋아했던 듯하다.

평택지역 배농사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우리나라 배농사의 역사가 3000년이나 됐지만 평택지역은 100년 안팎이다. 평택에 배 과수농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일본인들이다. 일제는 1911년에서 1917년 사이 지질조사소를 통해 한반도의 지질과 토양을 조사하고 '한반도지질광상분포도'를 작성했다. 이 지도를 광물자원수탈에도 사용했지만 작물재배에도 적절히 활용되었다.

1905년 전후 평택지역에 몰려들었던 일본인들은 황무지개간이나 간

척, 국공유지수탈을 통해 농지를 확대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통북동과 비전1동, 죽백동 구릉지대를 이용해서 배 재배를 시작했다. 임봄이 지은 『이것이 평택의 토종』이라는 책에서는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평택지역 최초의 배 시배지로 통북동 옛 평택등기소 자리에 있었던 목택木澤이라는 일본인 과수원과 비전동 은행아파트 자리의 아와阿波, 옛 천혜보육원 일대의 후나도舟渡, 후쿠다福田, 미야사키, 죽백3동 가내마을의 대정大井, 유목有木, 이시노石野, 노다野田 등을 언급했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의 기록은 1999년 비전동의 최승환(남, 1919년생), 동삭동 조종민(남, 1933년생), 죽백동 이경호(남)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죽백1동 이기중(남, 1931년생)은 지금은 폐동된 비전1동 산직촌과 죽백3동 사이의 3만 평 미야사키 과수원이 평택 최초의 과수원일 것이라 말했고, 죽백3동 노인들은 1930년대만 해도 평택지역에는 미야사키 과수원과 등기소 자리에 있던 과수원 둘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면 1920, 30년대까지만 해도 평택지역에는 배 과수원이 두 개 뿐이었고 그 뒤 비전동과 죽백동 일대에 다수의 일본인과 조선인 과수원들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고용하여 과수원을 운영했다. 일본인 과수원은 노동은 고되었지만 임금은 비교적 높고 정확하게 지급되어서 조선인 품꾼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수확한 배들은 상자에 담아 열차를 이용해서 서울로 운송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부는 서울에서 소비하고 일부는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

로 수출되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에서 가장 많이 심었던 품종은 만삼길과 장십량, 금춘추, 조생적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재배한 품종은 만삼길로 껍질이 두꺼워서 저장성이 강했다. 신고는 1930년대 후반부터 재배되었다. 지금도 전국 배 과수농가의 70% 이상은 신고를 재배한다. 신고는 추석 즈음에 수확하고 저장성이 강해서 설 명절까지 팔 수 있어 명절 특수에 적합한 품종으로 각광을 받는다. 그밖에 화산, 향금, 추황, 원황, 한아름 등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있지만 신고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한다. 그나마 원황같은 조생종은 지구온난화로 따뜻한 날씨에 추석을 보내는 요즘 나름 각광을 받는 품종이다.

비전동과 죽백동에서 평택 전체로 확산된 배 농사

배 농사는 논농사에 비해 수익이 높았으나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땅이 없거나 자본력이 부족한 조선인들이 재배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제 말 죽백동과 청룡동 일대에는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배 과수원들이 들어섰다. 이들은 야산과 논밭을 많이 소유한 지주들이었다. 죽백동에서는 미야사키 과수원 옆에 영풍농원이 만들어졌다. 배다리생태공원 북쪽에 만들어진 영풍농원은 조선인 이씨 씨가 만든 과수원으로 6만 평에 달했다. 1990년대 '영풍원'이라는 목욕탕과 식당을 갖춘 관광농원으로 운영됐던 과수원이 과거 영풍농원이다. 지금도 운영 중인 2만 평 수준의 꽃밭재 농원도 해방직전에 만들었다.

청룡동에는 신신(유한만), 태창(장태웅), 조일(김상배씨 부친) 농원이 조선인 소유였고 안평농원은 다카시라는 일본인 소유였다. 조선인 과수농장들도 죽백동, 청룡동 일원의 품꾼들을 고용해서 운영했다. 조일농원은 지금도 운영 중이다. 다만 과수원 일부만 후손 김종○ 씨가 조일 골프랜드라는 실외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죽백동, 청룡동, 월곡동, 비전동 일대 배 과수재배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다. 당시 제3공화국 정부는 경지정리와 농수로정리를 하면서 야산개발을 함께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야산들이 논밭으로 개간되었다. 평야지대에서는 야산 개발된 농지를 논으로 경작했지만 일찍이 일본인 농장과 조선인 농장에서 배 재배기술을 익혔던 농민들은 배나무를 심어 과수재배를 시작했다. 과수재배는 식수植樹한 뒤에도 수확하려면 몇 년이 걸렸지만 일단 자라고 나면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이어서 각광을 받았다. 죽백동, 청룡동, 비전1동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배 농사는 점차 월곡동, 비전2동, 용이동, 동삭동을 비롯해서 평택 전역으로 확산됐다. 2010년 인터뷰한 월곡1동의 백오형(남, 1929년생) 씨는 월곡동에서만 15호가 배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평택시 전체 경지면적은 19,636ha이다. 이 가운데 과수재배 면적은 602호 601.3ha다. 과수재배면적 중에서 배 재배농가는 437호 526ha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다른 품종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재배면적은 가파르게 줄고 있으며 향후 더 줄어들 전망이다. 평택지역 과수재배 농가

들은 해방 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1962년 1월 '평택군원예농업협동조합(현재 평택원예농업협동조합)'을 설립했지만 이것도 과수농가의 급감에 따라 존폐를 가늠할 수 없다.

마을이야기: 죽백동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

죽백동 '재빼기'가 죽백(竹柏)으로 표기됐다

조선시대 죽백동은 양성현 반곡면盤谷面이었다. 반곡면은 양성현의 읍치邑治로부터 20리(약 12km)였다. 1899년 양성군지에 따르면 반곡면에는 침교리(砦橋里, 방아다리), 청룡리靑龍里, 진촌리, 관동리 같은 자연마을이 있었다. 여기서 침교리, 청룡리, 관동리는 현재 죽백동, 월곡동, 청룡동을 말한다. 진촌리는 현재의 어떤 마을인지 알 수 없고 월구리, 내촌, 재빼기, 가내 같은 마을은 기록에 없어 당시 독립된 마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침교리, 내촌, 죽백리가 통합되어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가 되었다. 1983년에는 시군市郡 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평택군으로 편입됐으며 1986년 평택읍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비전1동의 관할을 받게 되었다.

죽백竹栢이라는 지명은 죽백3동의 자연지명인 '재빼기(또는 땃빼기)'에서 왔다. 그래서 재빼기를 '원죽백'으로 부른다. 재빼기는 고개를 뜻하는 '재'의 사투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을 넘는 고개를 '재'라 하고 산맥을

참고문헌 및 출처

배의 역사, 농촌진흥청 나무위키
임분 <이것이 평택의 토종> 1권(2014), 평택문화원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 1권(2006), 평택문화원
김해규 <평택 사람들의 길>(2019), 평택문화원
죽백동 이기중, 윤태현 등 인터뷰

가로지르면 ‘령(嶺)’, 높은 산이나 험한 산맥을 넘는 고개는 ‘치(峙)’라고 불렀다. ‘재빼기’는 조선시대 삼남대로의 요로(要路)였다. 삼남대로는 갈원(갈원1동)에서 가내를 지나 재빼기를 넘어 배다리로 넘어갔다. 주민들은 재빼기를 ‘땃빼기’라고도 부른다.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춘향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고갯마루에서 담뱃대를 빼물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소설의 내용에 민중들의 상상력이 덧붙여 만들어진 이야기다.

죽백동은 죽백 1, 2, 3동으로 나뉜다. 세 마을은 1914년 이전까지 서로 다른 마을이었다. 죽백1동은 방아다리로 한자로 침교라 하고 마을 입구 표석에도 ‘침교’라고 새겼다.

죽백2동은 내촌으로 과거 독립된 마을이 아니었지만 근대 전후를 거치며 분동됐다.

죽백3동은 앞서 말한 재빼기다. 재빼기는 삼남대로가 넘어가는 고개에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세 마을 가운데 가장 큰 마을은 죽백1동 방아다리다. 그런데도 1914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침교리를 버리고 ‘죽백리’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짐작할 때 죽백3동에 일본인 과수원이 있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될 뿐이다.

죽백동 일대는 배 과수농업이 발달했다. 주민 이기중(남, 1931년생)은 죽백동 일대 최초의 과수원은 산직촌(비전1동에 속했으나 이화택지개발로 폐동)과 죽백3동 사이에 있었던 미야사키 과수원이라고 했다. 일제 말에는

배다리저수지 부근에 조선인이 6만평 영풍농원을 만들었고 죽백동에는 꽃밭재농원, 청룡동에는 조일농원을 비롯한 여러 개의 과수원이 조성됐다. 산직촌 일대가 ‘배나무골’ 또는 ‘이곡梨谷’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일제강점기 과수농업의 영향이다. 해방 후에는 과수원의 수가 더욱 증가했다. 일본인과 조선인 과수원에서 재배기술을 익혔던 사람들이 1970년대 후반 야산개발을 하면서 너도 나도 배 과수재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디딜방아로 다리를 놓았던 방아다리

죽백1동 방아다리는 죽백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마을 규모도 한국전쟁 직후 100여 호였고 지금은 전원주택을 제외하고도 120호가 넘는다. 이 마을은 양성군 반곡면 침교리였다. 침교(砮橋)란 ‘방아다리’의 한자어다. 주민들은 ‘침교’보다 방아다리라고 부른다. 방아다리 마을 앞으로 청룡천이 흐른다. 청룡천은 넓지 않지만 깊어서 징검다리로 건넜다. 그러다 마을에서 사용하던 디딜방아를 가져다가 외나무다리를 놔다. 침교 즉 ‘방아다리’는 그렇게 해서 유래됐다. 목교였던 방아다리에 100여 년 전 돌다리가 놓였다. 마을주민 김종학의 조부가 힘이 장사였는데 혼자 3백근짜리 바위를 저다가 개울가에 다리를 놓았기 때문이다. 너럭바위는 1939년(소화14년) 대가뭄 때 수여지 아래에 ‘방아다리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땅속에 묻혔다. 저수지가 만들어진 뒤로는 둑이 다리를 대신했다.

방아다리 마을을 일군 것은 정씨, 김씨, 이씨다. 하지만 대부분 사라졌고 지금은 나중에 입향한 양천 허씨와 양성 이씨가 대성(大姓)을 이룬다. 두 성씨 가운데 양천 허씨의 입향 시기가 조금 빠르다. 과거 성씨는 양천 허씨가 8호였고 양성 이씨가 40~50호였다. 그러다가 이촌향도로 인구구성이 변하면서 허씨가 20~30%, 이씨가 60%를 차지한다. 양천 허씨는 약 300년 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서 이주했다. 입향 후에는 허국의 효자각을 건립하는 등 상당한 세력을 구축했지만 현재는 많이 약화된 상태다.

방아다리의 대성(大姓)인 양성 이씨는 상서공파의 계파인 주부공파 후손들이다. 유래비에 따르면 이들은 본래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교촌에 거주하다가 조상들의 묘(墓)가 실전되고 어려움이 닥치자 1848년 경 회의를 열어 사패지가 있었던 죽백동 세장산 자락으로 이거(移居)했다. 세장산에는 시조 이수광부터 5세(世)까지 설단을 만들었다. 또 4세(世) 조상으로 상장군이며 왕의 부마였던 이영주의 묘는 1984년 실전됐던 것을 경기도 광주시 초원면 무갑산에서 찾아 이장했다. 고려 말의 선비 이옥은 충신으로 이름났다. 이옥은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들어가 의리를 지켜 후대의 칭송을 받았다. 양성 이씨는 조선조에 위세가 약해졌다. 관직에 진출했던 인물도 있지만 크게 영달하지는 못했다.

양성 이씨 죽백동 입향조는 마전군수를 지낸 이유직이다. 마전공 이유직은 후손 이기중(남, 1931년생)의 위로 14대조라 하니 약 400여 년 전 입향한 셈이다. 이기중은 양성 이씨의 입향설화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전공은 삼남대로를 따라 죽백동으로 내려왔다. 재빠기(땃빠기)에서 5백 미터쯤 내려오면 대문재가 있고 그곳에는 하마비가 있었다. 마전공이 하마비 앞에서 말에서 내려 죽백동 방아다리 쪽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마을 앞 한복판에 작고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주변 들이 넓어 누대(累代)가 살아갈 터전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터를 잡고 집을 지어 정착했다. 죽백동에 거주하던 후손들은 나중에 공도방면의 점촌으로 이거했다가 조선 말기 다시 방아다리로 돌아왔다.”

이유직의 후손들은 어란포 만호, 파지도 만호 등 무관직과 주부 등 참하관으로 관직에 진출했다. 중앙에서야 하찮은 벼슬이지만 유력가문이 많지 않은 평택지역에서는 대단한 위세를 누렸을 것이다. 죽백1동의 양성 이씨는 지금도 마을의 중심세력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자들은 대부분 양성 이씨였고 지금도 마을운영을 주도하며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많다.

죽백1동에는 옛스런 지명(地名)들이 많다

죽백1동 방아다리 마을은 산장너머(산장모퉁이, 1반), 속뜸(속두모퉁이, 2반), 강당말(3반)으로 나뉜다. 세 마을은 행정 동(洞)으로는 같아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은 공유하지만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행사에서는 나뉘어 경쟁한다. 산장너머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산장(가옥)이 있어서 유래됐다. 일제강점기 방아다리에는 일본인 서너 명 살았는데 이들의 집 가운데 하

나가 산장모퉁이 부근에 있었다고 한다. 속뚝은 안골, 안말처럼 안쪽에 자리 잡은 마을지명이고, 강당말은 옛날 글을 가르쳤던 서당이 있어 유래되었다.

경작지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그 가운데 월곡동 사이의 용소골, 죽백초등학교 앞의 수여지, 기남방송국 앞의 맹자골, 고속도로 너머의 선바위(입암), 방아다리과 청룡동 사이의 해뜸이가 대표적인 경작지다. 효지골이라고도 부르는 수여지에는 물이 많았고 그 아래에는 논밭죽도 있었다. 선바위에는 커다란 입석(立石)이 세워져 있었다. 선바위 고속도로 아래에는 점촌도 있었다. 예로부터 점촌은 수공업자 마을로 지금도 논밭을 갈다보면 사기조각과 옹기조각이 출토된다. 해뜸이는 점촌 옆에 있다. 옛날에는 화약터미가 있었다고 해서 ‘해끼미’라고도 부른다. 해끼미 옆에는 샘골도 있다. 샘골은 조선시대 역적모의를 했던 군사기지라는 이야기가 전승된다. 조선시대 진위, 양성, 안성과 관련된 역적모의라면 영조5년(1728)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무신난)’밖에는 없다. 어쩌면 양성 이씨가 죽백1동 방아다리와 양성면 동항리, 그리고 점촌을 오가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인좌의 난(무신난)과 연루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남방송국 아래는 맹자골이다. 맹자골에는 옷우물이 있다. 옛날 옷우물에서는 칼이나 화살촉 등 병장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개경논은 방아다리 앞 청룡천 건너편에 있었다. 옛날 청룡천은 물고기가 많았고 수심이 깊어서 징검다리를 났다. 그래서 여름철이면 마

을청년들이 친렵을 했다. 밤에는 도깨비도 자주 출몰했다. 깊은 밤 도깨비에 현혹되면 정신을 잃고 가시덤불이나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거나 다치게 되어 남녀노소 겁을 먹었다. 수여지는 본래 물이 많아서 독을 쌓아 놓기만 하면 금세 물이 찼다. 그래서 일제 말 수여지 아래에 논밭죽을 만들었다. 용이동 신흥동 마을과 강당말 사이의 골짜기는 갈매울이다. 갈매울에는 일제강점기 갈매울 과수원이 있었다. 죽백초등학교 앞을 지나 신흥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는 꽃밭재다. 꽃밭재에도 일제 말 꽃밭재농원이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앞은 능골이다. 능골에는 큰 묘가 있었다. 전해오기로는 이곳이 풍수지리적으로 임금 제(帝)자의 중앙에 위치해서 묘를 쓰면 제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설로만 내려올 뿐 위치를 알 수 없었는데 한국전쟁 때 피난 온 이완주가 능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기남방송 아래 맹자골은 찬우물이 있어 냉정골로도 부른다. 그밖에도 죽백동에는 길우리, 독골터, 무지미, 버들어지, 시계배미, 시어지, 안수자리같은 들판과 매봉재, 모래봉, 삼태봉같은 봉우리가 있다.

죽백2동 내촌의 우리말 이름은 ‘안골’

죽백2동은 내촌이다. 마을은 북동쪽으로만 살짝 열려 있을 뿐 마을 전체가 삼태기 모양처럼 둘러싸여 포실하다. 내촌(內村)은 우리말로 ‘안골’이나 오랫동안 내촌으로 불려서 이제는 안골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이 있다. 내촌은 본래 약 30호가 채 안됐으나 근래 전원주택이 많아지고 이주민이 늘어 마을규모가 커졌다. 성씨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은 성씨는 양성 이씨 군사공파로 마을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내촌은 예로부터 물이 귀했다. 토질도 척박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것이 큰 역사(役事)였다. 마을에서는 좋은 우물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래서 작은 마을인데도 공동우물이 세 개나 있었다. 그 가운데 두 개는 건수가 나와 허드렛물로 사용했고 마을회관 앞 공동우물만 식수로 썼다. 공동우물 한 개로 마을 전체가 먹다 보니 늘 수량이 부족했다. 지금이야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콧물 쏟아지지만 과거에는 물과 땀감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다. 물 갖는 일은 가사를 책임진 여성들이 몫이었다. 그래서 부지런한 여성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공동우물로 달려갔다.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물 때문에 고생했던 주민들의 원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였다. 전기가 가설되면서부터는 관정을 깊이 파서 집집마다 수도를 댔다. 10여 년 전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 주민들은 광역상수도를 팔당물이라고 한다. 팔당물이 들어오면서 물 때문에 고생했던 일들은 옛 추억이 됐다. 애지중지했던 공동우물도 수명을 다하고 메워졌다.

구릉으로 둘러싸인 내촌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크고 작은 고개를 넘어야 했다. 그래서 내촌마을은 구릉이 둘러싸기도 했지만 고개가 감

싸 안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마을에서 재빠기로 넘어가려면 골품고개를 넘었다. 골품고개를 넘으면 곰봉고개였다. 골품고개와 곰봉고개를 넘어 가내방면으로 나가는 길은 평택장으로 걸어가는 지름길이기도 했다. 마을 뒤를 휘돌아 오르는 긴 고개는 왕지미고개다. 왕지미고개는 왕지미들로 건너는 길이었다.

마을의 주 경작지는 용수골, 집너머, 행금틀, 안수자리, 안골, 쇠마답에 있었다. 마을 입구 쇠마답은 옛날 소에게 풀을 먹이던 곳이다. 뒷산 산봉우리는 삼태기 모양이어서 '삼태봉'이다. 마을 입구 봉우리는 앞산과 안산으로 부른다. 풍수지리적으로 안산은 주작에 해당된다. 주민들은 내촌은 주작이 보호하여 예로부터 험한 일을 겪지 않았다고 자랑했다. 내촌에서는 음력 정월에 당제를 지냈다. 제당은 앞산에 있었다. 주민들은 정월이면 정결한 사람으로 제주(祭主)를 뽑고 각종 금기를 지켜가며 당제를 지냈다. 당제는 1980년대 초 중단됐다. 이촌향도로 젊은 사람들도 줄어들고 세상이 변하면서 당신(堂神)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다.

삼남대로(三南大路)의 길목 죽백3동

해방 전후 죽백3동은 30호가 안 됐다. 자연마을은 재빠기와 성안, 진등, 가내다. 재빠기는 가장 큰 마을이고 성안은 마을 서남쪽 6호 내외의 작은 마을이다. 재빠기는 1911년에 작성된 조선지리지자료에 '대백이'라고 기록됐다. 어쩌면 그 전에도 재빠기보다는 땃빠기 또는 대백이라

고 불렀을 것이다. 주민들은 땃빼기라는 지명유래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옛날에는 상민(상놈)들이 양반 앞에서 담뱃대를 물고 다니면 혼났기 때문에 옷 속에 숨겨 다녀 유래되었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이몽룡이 춘향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고갯마루에서 담뱃대를 빼물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죽백3동을 재빼기라고 부른다. 이것이 1914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음이 비슷한 한자로 변하면서 '죽백竹柏'이 되었다.

주민들은 옛날 성안 바깥쪽으로는 산성山城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과수원을 만들며 대부분 유실됐지만 해방 전후만 해도 성곽의 흔적이 뚜렷했다. 가내는 평택-원곡 간 도로 변에 있었던 주막거리다. 대 여섯 집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일제강점기만 해도 삼남대로와 평택-용인 간 국도45호선이 교차해서 사람과 물자의 통행이 많았다. 가내에서는 주막이 세 집이나 있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내주막에는 작부가 노래도 하고 술도 따라줬다. 예나 지금이나 풍류와 술을 좋아하는 남자들치고 아가씨 있는 술집을 마다할 리 없다. 그래서 주막집은 날로 번창했는데, 덕분에 장날 가마니 팔아 꾸쳐둔 돈을 날린 남정네들이 많았다고 한다. 성업成業 중이던 가내주막은 한국전쟁 뒤 문을 닫았다. 삼남대로도 쇠퇴했지만 한국전쟁의 좌우익 갈등이 가져온 결과였다. 주막이 사라진 뒤에도 가내마을에 민가가 몇 집 있었다. 2000년대 전후에는 평택순두부를 비롯해서 몇몇 식당들도 영업했다. 지금도 비전1동 사무소를 비롯해서 소고기집, 추어

탕집이 들어서 영업을 한다.

재빼기에서 내촌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대문재라고 한다. 조선시대 대문재에는 하마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넘어가던 사람도 대문재 앞에서는 내려 걸어가야 했다. 통상 하마비는 객사나 향교, 사당과 같은 신성한 곳에 세우기 마련인데 대문재와는 무슨 연관인지 알 수 없다.

죽백3동은 삼남대로가 지나는 구릉지대다. 토질이 척박하고 메말라서 과수농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척 가난했다. 1960년대에는 안성군의 '13대 한해旱害지역'에 선정될 정도였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과수농업을 시작했다. 일제 말에는 조선인들도 구릉을 깎아 배나무를 심었다. 가난한 주민들은 과수원의 품꾼으로 일했다. 일은 고됐어도 임금은 후한 편이어서 먹고 살기는 괜찮았다.

인터뷰

죽백1동: 구자성(남, 1937년생), 이정중(남, 1938년생, 2012년), 이종성(남, 1937년생), 이갑중(남, 이기중(남, 1931년생)

죽백2동: 박장수(남, 1928년생) 외

죽백3동: 이계환(남, 1933년생), 윤태현(남, 1934년생) 외

마을이야기: 청룡동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

청룡동 청룡(靑龍)이 구름을 타고 오르다

청룡동은 조선시대 양성현 반곡면 지역이었고 1914년 행정구역개편 뒤에는 안성시 원곡면이었다가 1983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죽백동, 월곡동, 용이동, 소사동과 함께 평택시에 편입되었다.

마을규모는 해방 전후 50여 호 내외였고, 2000년 전후 큰길 쪽에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100세대가 넘는다. 처음 마을을 개척한 것은 전주 이씨다. 그 뒤에 동래 정씨가 들어왔으며, 맨 나중에 단양 장씨 청괴공파가 입향했다. 나중에 입향한 단양 장씨가 번창해서 과거 마을규모가 50호일 때 절반이 장씨였으며 지금도 15호가 거주한다. 주민 장면식(남, 1934년생), 장군식(남, 1941년생)에 따르면 단양 장씨는 본래 여주에 살다가 화성시 향남읍으로 이거했고 3백 여 년 전 7, 8호가 청룡동으로 옮겨 살면서 세거가 시작됐다고 한다.

청룡동은 단일 마을이다. 일제강점기에도 단일마을이었다고 한다. ‘청룡靑龍’이라는 마을 이름은 풍수적 지명이다. 예로부터 백운산과 줄기를 용龍의 형국이라고 했는데 청룡동은 그 줄기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청

룡동 주민들은 ‘청룡’보다 ‘삼태기 형국’에 관심이 많았다. 마을의 모양이 멀리서 보면 삼태기와 같아서 재물이 쉬 나가지 않고 평안하다는 것이다.

청룡동에는 뱃머리, 뒷번데기, 각골, 방죽밭, 고리기 등 친근한 지명들이 많다. 뱃머리는 조일농원 건너 통복천 변에 있다. 1974년 아산만방 조제가 준공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산만 바닷물은 칠원동 수촌과 죽백동 가내를 거쳐 원곡부근까지 올라왔다. 그 때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한선이 뱃머리였다. 각골은 마을 뒤 골짜기 이름이며, 뒷번데기는 청룡동과 수촌 사이의 들판이다. 뒷번데기는 논이 넓어서 청룡동의 주 경작지 가운데 하나다. 방죽밭은 마을 남쪽 들판이다. 본래는 방죽이었는데 나중에 메워져 밭으로 경작되면서 유래되었다.

고리기는 마을 동쪽 골짜기다. 본래는 산이었는데 1970년대 후반 아산개발을 하면서 대부분 배 과수원으로 바뀌었다. 청룡동의 주산主山은 쇠땡이(쇠쟁이)다. 또 조일농원과 원곡면 경계에는 정승골이 있다. 정승골은 옛날 정승(政丞, 실제로는 승지)을 지낸 고관의 무덤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밖에도 청룡동 일대에는 가골, 새초골, 찬샘골 같은 골짜기와 대평들, 뒷절, 문필봉, 뱀머리고개, 병풍바위, 샷갓바위, 우은바위, 차돌바위 그리고 벼락수라는 웅덩이가 있다.

과수농업으로 큰 변화 일어나

한국전쟁 전후만 해도 평택-원곡 간 국도 45호선은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었다. 비포장도로여서 차량 한 대만 지나가도 먼지를 뒤집어썼

다. 초등학교에서는 차가 지나가면 손을 흔들어주라는 교육도 시켰고 도로 변에 코스모스를 심기도 했다. 1970년대 초부터 25인승 미니버스가 운행됐다. 버스를 운행해도 원곡면 사무소나 평택 시내를 나갈 때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 그 뒤로 시내버스가 들어왔다. 시내버스의 운행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마을이장이나 지도자들이 나서서 버스 유치운동을 벌였고 새마을운동 때는 주민들이 자처해서 도로정비를 했다.

청룡동에서 평택역까지 5km였고, 평택장(통복시장)까지는 4km였다. 버스가 들어오기 전 주민들은 대부분 걸어 다녔다. 평택 시내로 나갈 때는 비전1동 산직촌(이화택지지구 LH리더스하임아파트 단지에 있던 마을)을 지나 재랭이고개를 넘었다. 서울행 기차를 타거나 평택장(통복시장)을 볼 때,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이 길로 걸어 다녔다.

원곡면 내가천리까지는 5리(2km)였다. 내가천리에는 원곡면사무소와 원곡초등학교가 있어 해방 직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를 갈 때나 행정 사무를 볼 때 원곡까지 걸어갔다.

옛날에는 내가천리로 가려면 월곡동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해방 후에는 뱃머리를 지나 정승골을 넘었다.

193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노인들은 원곡초등학교를 다녔다. 1944년 죽백분교(초등학교)가 설립되면서 학교를 옮겼으나 죽백분교가 설립 1년 만에 부실공사로 무너지면서 2, 3년 동안 다시 원곡초등학교를 다녔다. 일제 말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가족 모두가 창씨개명

을 해야 했고 입학시험도 치렀다. 입학경쟁이 치열해서 나이를 줄여서라도 입학하려 노력했다. 1928년생 이한숙(남)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스모야마라고 창씨개명을 했지만 집에서는 한숙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혼란이 많았다.

청룡동은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다. 경작지는 뒷번데기 일대에 많았다. 밭보다는 논이 많은 편이었지만 대부분 다랑이여서 생산력은 높지 않았다. 농업용수는 마을 앞의 논방죽과 수촌 근처 통복천의 보(漕)에서 끌어왔고, 나중에는 월곡2동 입구와 죽백동 방아다리의 방죽에서도 가져왔지만 넉넉하지는 않았다. 1970년대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도 청룡동 일대는 제외됐다. 그래서 아산만방조제가 준공되고도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한해(旱害)가 자주 발생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관정을 박아 지하수를 끌어올리면서 농업용수 부족은 한결 나아졌다.

주민 이한숙(남, 1928년생)은 소화14년(1939)부터 시작된 4년 동안의 가뭄과, 한국전쟁 뒤의 3년 가뭄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가뭄으로 마을주변 논들은 모내기를 못해 메밀이나 수수를 심었고, 그것마저 못한 논들은 묵힌 뒤 논 풀을 깎아서 소를 먹였다. 제1공화국 정부에서 실시한 농지개혁도 구릉과 과수원이 많았던 청룡동에는 큰 혜택이 되지 못했다. 농지개혁이라는 것이 논밭만 분배했기 때문이다. 분배농지를 받았던 사람들도 기껏 너댓마지기밖에 안 돼서 실질적 도움은 크지 않았다.

어려웠던 마을경제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새끼꼬기와 과수농업이었다. 일제 말 가마니공출 때 시작된 새끼꼬기는 해방 후 청룡동의 특산품이 되었다. 새끼는 해방 전에는 손으로 짰지만 해방 후에는 기계새끼를 짰다. 농가에서는 힘들게 농사짓는 것보다 새끼 짜서 파는 수입이 나왔기 때문에 아예 경작을 그만두고 새끼꼬기에 전념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민들이 밤을 새워 끈 새끼는 시장에 내다 팔았다. 1950~60년대까지만 해도 평택장과 서정리장에는 새끼장, 가마니장이 따로 켜 있었다. 때론 장사꾼들이 마을로 들어와 화물차로 몇 차씩 실어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팔린 새끼들은 밧줄이나 끈으로도 사용했고 가마니를 짤 때도 썼다. 주민들은 힘든 시기를 새끼 짜서 넘겼다고 말했다. 다른 마을은 흉년으로 밥을 굶을 때도 새끼 짜서 끼니를 거르지 않았으며 아이들 교육도 다른 마을보다 앞섰다고 말한다.

죽백동에서 다뤘던 과수농업은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창출되어서 가난한 농민들은 엄두를 못 냈다. 그러다 1970년대 후반부터 야산개발이 추진되자 너도나도 구릉과 밭에 배나무를 심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 농장, 조선인 농장에서 일했기에 재배기술은 문제 없었다. 이렇게 해서 청룡동 일대가 배 재배단지로 변모했다.

청룡동 마을 놀이, 정월 대보름에는 줄다리기를 했다

청룡동에는 당제堂祭, 정제井祭 같은 마을제가 없다. 1960년대 이전

까지만 해도 공동우물도 1개뿐이었다. 공동우물은 깊이도 서너 길이나 되었고 수량도 많지 않아서 식수가 늘 부족했다. 잦은 가뭄에는 식수를 구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물가에서 밤을 새며 물이 고이기를 기다렸다가 물을 길어오기도 했다.

1960년대에는 우물을 두 개 더 팠다. 또 집집마다 관정管井을 박고 (작두)펌프를 설치하는 집도 많았다. 우물이 많아지면서 식수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그렇다고 물이 넉넉했던 적은 없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했지만 기본수량이 부족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물이 귀했던 마을에 2008년 경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수세식 화장실이나 샤워도 맘껏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은 새 세상이 왔다고 기뻐했다.

두레는 농촌마을의 공동노동조직으로 김매기를 위해 조직했다. 청룡동 두레도 김매기를 위해 조직되었다. 두레꾼은 많을 때는 30여 명, 적을 때는 20명이 조금 넘었다. 정월에는 칠원동 수촌마을과 통북천을 사이에 두고 투석投石도 하였다. 마을의 노동력을 자랑하기 위한 힘겨루기였다. 1970~80년대 청룡동 두레 풍물패는 상쇠 이우복, 장인이 부쇠, 이덕기가 장구를 쳤다. 이들은 기예가 남달라서 주변마을에 이름깨나 날렸고 원곡면에서 실시하는 농악경연대회에서는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옛날에는 정월대보름은 큰 명절이었다. 주민들은 정월 초하루부터 대

보름까지는 음식을 장만하고 각종 놀이를 하며 즐겼다. 대보름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대보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함께 즐기고 풍농을 기원하며 체력을 비축했다. 대보름 아침 남자들은 귀밝이술을 마셨다. 오탁밥과 나물을 얻어다 아홉 번 먹는 풍습도 있었다. 두레풍물패는 우물을 청소하고 잘사는 집을 골라 지신밟기를 했다. 청룡동에서는 해방 전까지 줄다리기를 했다. 줄다리기는 마을축제이며 풍농을 기원하는 제의였다. 동네 임원들은 대보름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짚을 모았고 정월 열나흘에는 마을 남자들이 모두 나와 새끼를 짜서 줄을 엮었다. 줄은 암줄과 숫줄을 따로 엮었다. 지주나 유력자들은 음식과 술을 냈다. 대보름날, 어른들은 윷놀이를 하며 술과 음식을 나눴고 여자와 아이들은 제기차기나 널을 뛰며 하루를 즐겼다. 줄다리기는 어둠이 밀려들고 동산 위에 보름달이 떠오르면 시작했다. 신랑신부가 암줄, 숫줄에 나눠 타고 혼례를 올린 뒤 합궁하면 동네 남녀들이 암줄과 숫줄을 잡고 줄을 당겼다. 주민들은 일제 말 줄다리가 중단된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남자들은 징병, 징용으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종군위안부로 끌려가고 심지어 두레패의 징과 팽과리까지 공출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할 수 있다.

인터뷰

장관식(남, 1932년생), 장면식(남, 1936년생), 장군식(남, 1943년생), 김원배(남, 1935년생), 김봉걸(남, 1942년생), 서병기(남, 1940년생), 오타관(남, 1940년생), 이성기(남, 1940년생), 이한숙(여, 1930년생)

구술의 특성과 이해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우리가 마을기록을 수집할 때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의 하나가 ‘구술’인데, 지난번에 구술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History: 이야기를 쓰다

구술에서 사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역사(歷史)’에 대한 용어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걸 듣고 나면 우리가 구술을 할 때,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라고 하면 조선왕조실록, 아니면 사극에 나온 것처럼 딱 만들어진 역사가 있어서 그걸 찾아서 들이대고 ‘이거야’ 그러면 ‘아 심봤다!’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 환상을 먼저 깨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환상은 역사학자도 갖고 있어요. 역사(歷史)라는 용어 자체가 라틴어로 ‘이야기를 쓰다’라는 건데 한자로 하면 ‘밟고 지나가다’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지나가는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서양에서 역사라는 것은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내가 쓰는 거’죠. 역

사가 A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건 A의 주장일 뿐이에요.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해서 A와 B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역사를 쓰면 A와 B를 제 삼의 독자가 보고 나는 A가 더 맞는 것 같아, 또는 B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중요한 건 의문부호예요. ‘페르시아 전쟁사가 이거야’라고 하면 ‘진짜야?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서양 역사인데 우리는 동양 왕조에서 역사학을 전달했기 때문에 ‘맞아?’하고 물어보면 죽는 거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그래요. 역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누구나 역사학자가 될 수 있고, 또 역사학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의문을 제시하면서 그 역사의 사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구술사, 개인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

이제 ‘구술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술사는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인터뷰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을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죠. 구술사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을 구술사라고 해서 작은 의미의 구술사, 큰 의미의 구술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구술의 종류는 생애사, 자기 보고서, 개인적 소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많이 얘기를 해요. 구술기록은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라고 하는데, 이걸 인터뷰 방법은 설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연구방법, 지적연구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중략)

구술사의 기원

인간이 무리를 지어서 지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자가 바로 있던 건 아니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전승을 해야겠다는 목적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리멤버스’라는 ‘기록 보존자’가 있었어요. 문자가 없으면 마을에 있는 역사를 어떻게 보존 했을까요? 그림으로하기도 하고 주로 외워서했어요. 노래나 신화의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신화는 상징적이죠. 우리가 단군신화에서 곰이 어찌고 이럴 때 진짜 곰은 아니지요. 곰을 모시는 민족과 호랑이를 모시는 민족이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옛날에는 기록 보존자도 세습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외우는 일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 때 500번을 외웠다고 하면 아버지 때 되면 늘어나서 천 번이 되고, 그러면 아들 때 되면 1500번이 되는데, 이걸 함축하는 거죠. 압축하여 신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길지 않고 형용사가 별로 없어요. 사실만 딱딱 나와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예수의 승천을 묘사할 때 너무 간결한 거예요. 어떤 성경 연구자가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다. 간결한 문장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표현했다.’ 당시에는 기록을 다 외워서 했는데 사람들이 외우는 게 많아지니까 길게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했다는거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오시고,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 외우는 게 너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함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용적으로 해서 기록 보존자들이 계속 기억을 전승을 해나갔어요.

문자와 구술사, 그 상관관계

문자가 만들어져서 기념비 같은데다가 글자나 상형문자를 새겼죠. 문자 사회에서 처음에 상형문자가 나타났을 때 비석 같은 거에다가 막 새기죠. 지금 한인고대사의 현안이 광개토대왕비 비문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그것도 기념비를 세울 때 굉장히 함축적으로 쓰다보니까 지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달리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비문자 사회가 있는데 주로 무용이나 북 같은 걸 가지고 자신들의 역사를 전승합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역사를 전승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때 '말'이라는 걸 통해서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구술사가 처음 나타나게 됐어요. 그 전통이 이어져서 문자가 만들어진 후에도 계속 구술사의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중략)

문자가 있는데 왜 계속 구술을 했을까요? 전하는데 편리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종이였어요. 종이를 만들어서 보급한 것은 거의 16세기가 넘어서였어요. 그때는 양피지라고 해서 가죽으로 얇게 만들어서 첩필로 쓰는 거였어요. 종이가 보급된 거는 한 18세기

나 돼야 하고요. (중략) 활자도 15세기가 지나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술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문자가 만들어지고 인쇄술이 나오고, 종이가 보급되면서부터 문헌사로 가는데 그래도 종이가 부족하잖아요. 일부 사람만이 종이가 된 책을 만지는 거죠. 아주 특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렇다보니 18세기까지도 구술사가 이어져가요. 그런데 18세기부터는 종이가 쓴 것 아니면 믿지 않는다고 해요. '실증사'라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문자로 돼있는 것, 종이에 써져있는 것만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기에도 구술사는 있었어요. 구술사가 주류였는데도 종이나 책을 독점할 수 있는 특권층이 자신들의 권위를 더 올리기 위해서 마치 문헌사만이 유일한 역사고, 구술사는 역사도 아니라는 식으로 폄하한 시대가 있었죠.

구술사, 기계의 발달과 제국주의로 다시 부활하다

그러다가 구술사가 다시 부활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기계의 발달, 또 하나는 제국주의의 파국입니다. 요즘은 작은 녹음기를 사용하죠. 기계의 발달이죠. 핸드폰으로도 녹음하고, 1995년에 처음 구술 다닐 때는 아날로그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MD가 나왔어요. 그걸 사고도 새로운 게 금방 나와서 얼마 못 썼어요. 그 전에는 녹음기가 A4용지만 했어요. (중략) 작은 게 나타나서 활용성이 커지면서 구술사가 다시 부활 하게 됐어요. 이때 제국주의라는 게 막 들어와요. 제국주의는 힘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는 거잖아요.

일본, 서양, 영국, 프랑스 모두 제국주의였어요. 약한 나라를 빼앗을 때 '내가 강하니까 너희 나라를 빼앗을게' 그러면 명분이 약해요. 그래서 명분이 '사회진화'였어요. '너희는 종족이 약하고 미개하고 모자라, 그런데 우리는 인종자체가 달라, 우수해. 거기다 과학문명을 받아들여서 똑똑해.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케어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체격이 좋은 남자 사진을 찍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비리비리한 사람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요. 그런 식이죠. (중략)

EBS에서 2016년에 '고려의 청춘'이라고 하는 프로를 만들었어요. 고려인은 러시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인데 구한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서 농사짓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시민권을 얻었어요.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다보니까 발언권을 얻으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전쟁에 참전하는 거였어요. 고려인 청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음향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포로가 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녹음 했어요. 이 청년들이 독일어를 모르니까 당시 독일 유학생들이 통역하고 녹음을 했어요. 주로 노래를 부르게 했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청년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조선말로 부르는 게 독립군가였어요. 프로그램은 어떤 가수가 고려인들의 행적을 찾아가는 거였거든요. 결국 공동묘지에 가서 흔적을 찾아낸 걸로 끝나는데 거기서보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녹음 돼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얼마나 저급한 민족인지 증명하기 위한 걸로 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녹음기계였고 그래서 발달 하게 되고 구술사가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막 바뀔 때 사람들은 사상의 전환이라고 여기는데 그거보다는 의외로 실용적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구술사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술 : 경험, 회상, 발화

제가 구술사를 1995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하나에 적용하면 경험이 기억으로 붙는다고 배웠어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같은 걸 배우면서 기억이 의식으로 들어가고, 그게 전의식으로 들어가다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면담자가 구술자를 톡톡 두드려서 무의식 상태를 전의식으로 끌어내고, 전의식 상태를 의식 상태로 끌어내서 그걸 바라보게 한다고 했거든요. 최근 그 이론은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인간의 경험이 그대로 나온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떤 걸 경험하면 들어갈 때도 많이 왜곡되어 들어가고요, 나올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올 때는 현재 상황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사는 게 지금 편안하면 과거에 있었던 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죠. 어렸을 때 가난했던 거, 배고팠던 거 '그때는 참 음식도 건강에 좋았었어, 생각보다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먹기가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나 아름다운 추억인거죠. (중략)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나온 이론은 경험에서 '회상'으로 가는 건데요. 회상이라는 건 외부요인에 의해 달라져요. '양피지에 글씨를 쓴 것과 똑같다'고 표현해요. 양피지는 가죽이잖아요. 여기다 철필로 글을 쓰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쪽 밀면 글자가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글을 쓰는 건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가죽에 다 살아 있는 거예요. 회상은 이렇게 여러 경험들이 어디서 영켜 있다가 튀어나올 때 이렇게도 융합하고 저렇게도 융합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발화 내용에 대해서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에 골머리 썩지 말고 '왜 저분은 저렇게 얘기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성, 주관성, 쌍방향 소통

구술의 성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현장성.' 어떤 분이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똑같이 설명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대요. 언제든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구술자와 똑같은 면담자를 만나도 똑같은 얘기가 절대 안 나와요. 다음은 '주관성과 개인성'입니다. 주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 '내 생각'이에요. 문헌을 남긴 사람도, 편지도 심지어는 공문서도 주관성이 있습니다. 신문도 신문사에 따라서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어요. (중략) 마지막으로 '쌍방향 소통'입니다. 혼자 떠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나 미국에서는 혼자 떠드는 것도 구술이라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건 쌍방향이지 않아요. 저는 쌍방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얘기를 하다보면 생각나는 게 많아요.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옛날에 생각 못했던 것도 생각나요. 면담자가 뭔가 하나 계기를 던져주면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쌍방향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구술기록의 성격인데 나중에 활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성격을 알고 있으면 '얘기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할 필요가 없죠.

구술기록 아카이빙

우리는 왜 구술기록을 수집할까요? '아카이빙!' 기록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획하고, 수집하고, 관리해서 활용하는데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는 '활용의 원칙'인데 무엇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넘어, 누구를 위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독자를 위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구술자를 위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구술자라는 존재는 우리가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분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잘못 활용돼서 그분에게 누를 끼친다면 그건 안하느니만 못해요. (중략) 또 하나는 구술 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훼손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구술기록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이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이미 내 말이 아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말했지만 다른 의도로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수 할머니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일본에서 공격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중략) 구술기록은 구술자의 입을 떠나는 순간 훼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훼손하지 않을거야가 아니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술사, '기획'이 중요하다

구술 기록을 단계별로 보면 처음 기획, 그 다음 수집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 다음 정리 분류, 활용 단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빨리 나가서 인터뷰해야지 하고 생각하세요. 네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획입니다. 이 기획은 활용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안하면 앞으로 다시 가야돼요. 기획 하실 때는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구술을 하러 가면 인터뷰만 따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집에 가면 사진도 있고 문서도 있고 뭐 많아요. 전체적인 걸 다 수집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만약에 영상을 쓸 거면 영상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현실적 기획을 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이 창대하고 의욕도 충만해요. 그런데 한 500명을 인터뷰하고 싶는데 10명 할 돈 밖에 없어요. 그럴 때 500명을 하겠다고 고집 피우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자료를 자기 집 컴퓨터에 집어넣을 거예요? 예산이 500만원이라면 그중 시

스템을 갖출 비용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2018년 마을기록 양성사업으로 좋은 작업을 많이 했는데 시스템이 없어서 결국 사업이 중단 됐어요. 시스템은 없는데 그냥 하면 활용성이 낮고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획, 돈을 제대로 끌어오고 사람을 제대로 모을 수 있어야죠. 여기에 법적인 자문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연결해줄 사람, 자문회 등도 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술사의 정의와 지향점에 맞는 기획을 해야 돼요. 왜 저분은 저런 발언을 하는가? 왜 지금 이런 내용으로 저 얘기를 하지가 중요하지 저게 맞을까, 틀릴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초기에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저 얘기를 했을까,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야 해요.

한국의 구술사

구술사는 녹음 한 기록을 가지고 하는 거죠. 녹음파일, 영상파일과 반대되는 개념은 ‘문헌사’예요. 문헌사는 종이로 된 기록으로 남긴 거, 문자로 남긴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술사는 문헌사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처음에 구술사는 시민들 속에서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신경림 작가가 쓴 ‘민요기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197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작가가 다니면서 민요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민요를 수

집하러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하고 밥을 먹다가 누가 무슨 민요를 한다고 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민요를 듣게 됐고, 민요를 하면서 옆에서 누가 풍을 잡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북치면서 뭘 하고. 그런 얘기들이 구구절절이 나와요. 그 다음 ‘뿌리 깊은 나무’, 그거 민중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시작 했어요. 이것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학자들이예요. 학자들은 틀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어서 문헌에 없는 ‘팩트’를 찾는 것.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구술사는 왜곡되고 편향될 수 있어요. 구술을 다시 시민의 것으로 돌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때 연구를 넘어서야한다는 거죠.

마을이야기: 공간 스토리텔링

구술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역사, 문화, 시민교육, 영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을 이야기죠. 마을에는 사람도 있고 공간도 있습니다. 마을에 오래된 집도 있고, 역사 유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간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돌 수가 있어요. 마을에 있는 여러 공간부터 마을사람들, 지역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이야기가 재생산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간 스토리텔링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교토의 숲이에요. 숲속에 학생들이 답사를 가봤더니 여기에 굴이 있어요. 이 굴은 지하 비행기 공장이에요. 비행기 공장을 만들려고 만 명이 들어가서 굴을

판 거예요. 공습을 피해서 안에서 비행기를 만들려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여기가 저기 뭐 그렇게 봤던 곳인데’, ‘누가 봤대, 어떻게 봤대’, ‘여기에 아침에 들어가면 화장실을 못 가게 해서 물도 안 먹고 들어가서 나오면 바로 뛰어서 화장실부터 갔대, 여기 조선인이 만 명이고 대만인이 몇 명이였대’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간 거죠. (중략)

전남 화순 사례는 일제 강점기 때 탄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아버님이 여기 탄광에서 돌아가신 분이예요. 그 이후 이야기가 마을에서 계속 나오죠. 이야기가 공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공간 스토리텔링이 축적되면 박물관에서 쓸 수 있고, 거기다가 기념비도 만들 수도 있고, 책도 만들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 돼서 문화재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할 수도 있고, 문화지도도 만들 수 있고, 앱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마을 이야기의 중요성

왜 지금 마을 이야기를 할까요? 한국은 중앙 중심이지만 세계적 추세는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지역의 문화가 꽃피우지 않으면 전체 경제가 떨어지거든요. 세계적으로 지역의 여러 경제, 문화를 높이기 위해 경쟁하지요. 또 하나는 지역정체성 찾기를 지역 시민들이 먼저 합니다. 지하 비행장 사례는 지역 사람들이 발굴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마을엔 뭐가 있을까, 내가 계속 여기에서 살 건데, 도대체 어떤 동

네지?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한 거죠. 우리 지역의 역사가 뭐가 있지? 여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지역자원의 콘텐츠화가 가능해지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다양한 자료도 나옵니다. 뭔지 몰라서 보따리에 처박아놨던 거 꺼내봤더니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을 이야기에서부터 이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마을이야기 활용 사례

마을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일단 구술기록을 생산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기획을 해요. 그 다음에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파일은 그냥 놔두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파일은 복사본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활용하는 거예요.

용인 시장에 대해서 구술한 결과물이 있어요. 김선정 선생이 대학생들과 함께 용인 시장의 구술을 떠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일단 책을 하나 만들어요. 책을 하나 만들어서 팝니다. 그리고 ‘스토리 파크 마켓’ 상점 앞에다가 팻말, 스토리 보드를 만들어서 이 상점은 누가 운영한다고 제작하고, 말풍선도 만들고, 캐릭터, QR코드, 시장지도 만들고, 온라인 시장이나 앱 개발도 하고. 그 다음 전시 기획전을 할 수가 있어요. 파고라나 디지털 모니터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용인시장에 가서 학생들이 상인들을 인터뷰한 다음 이걸로 아이디

어를 낸 겁니다. 이렇게 지역 유적에 대한 책을 낼 수도 있어요. 마을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답사 가이드북을 낼 수도 있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장소, 사고가 많이 난 장소가 있으면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서 그걸 클릭 해서 들어가면 어떤 사고인지 나와요. 쌍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여기다가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원천 소스가 있어야 하고 그게 바로 구술이라는 거죠. (중략)

부평, 마을의 역사가 효자 상품이 되다

구술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사례를 이야기해볼게요. (중략) 부평문화원에서 어르신문화 콘텐츠 사업이라고 한 거예요. 부평은 일본 군사 시설, 군수공장이 많아요. 동네에 지하로가 6개가 있는데 그게 더 있을 수 있으니 이분들에게 찾아내는 걸 부탁했어요. 이분들이 18개를 찾았어요. 탐문조사로. 돌아다니면서 혹시 여기에 이런 거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알음알음 누가 누구 손자라며, 이렇게 찾아서 이 굴을 다 찾아냈어요. 굴이 총 24개가 되었고 구술 인터뷰와 탐문으로 찾으셨죠. 책을 내고, 핸드북을 만들고, 표지판 설치해서 QR코드 넣고, 노래 공연, 현장 안내도 하고 앱도 있어요. 지금 부평의 효자 상품입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 부평문화원에 들어가면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쓰고, 사진 찍어서 넣고, 지도에 굴이 어디어디 있다고 표시하고. 이 굴

의 주인이 누구다 이런 것까지 다 하셨어요. 이분들이 마을 역사를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부평 지역의 마을 역사를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열심히 교육을 받으시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마을기록자로 재미나는 생활하시는 거죠.

면담자의 자기 성찰

구술을 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렇게나 한 인터뷰는 역사 기록에는 위험천만한 것이고, 기록관의 아키비스트들에게는 고통이며, 연구자들에게는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인줄 알거든요. 진짜라고 믿을 수도 있지만 쓸 수도 없는 걸 너무 많이 해서 관리하는데 고통스럽고. 또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려고 봤더니 이 자료도 봐야 되고 저 자료도 봐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도 않고 복잡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후손을 위해서 가까이 자신들의 기억을 공유하고자하는 구술자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을 기록관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하세요. 연구자들은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질문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거죠. 자신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 양반은 저렇게 생각하나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연구자들은 계속 질문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구술자가 내가 이걸 해서 뿌듯하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모니터하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 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맞지 않는 무례

함이죠. 사실 하나를 더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는 당사자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떨 때는 시민 분들의 영상을 보면 참 잘하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하세요. 그건 면담자의 자기성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왜 인터뷰를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내가 이거 해서 돈 받으려고, 또는 글을 써서 유명해지려는게 아니라, ‘아, 나는 저분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하나 배워가는구나’ 또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신 한분을 만나는구나’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면담자의 자기성찰은 인간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분의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이야기가 훼손되지 않게 잘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해요. (중략)

구술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것

제가 위원회를 2005년 2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해 5월에 직원교육을 시켜서 생존자 구술 인터뷰를 나갔어요. 그분들 구술 영상이나 음성을 보거나 들으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평소에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분들은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도 똑같아요. 구술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해요. 구술자가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구술자는 후련해요. ‘내가 자식한테 얘기하면 한번만 더 들으면 백번이야, 가난해서 징용 간 게 자랑이야, 뭐 이래요’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잡고 얘기를 들어주니까 구술자가 너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러니 인터뷰를 하고나서 후련하다고 하지, 괜히 했나봐 라는 소리는 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팩트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건 바로 ‘면담자의 자기성찰’이라는 거예요. 한번만 더 생각을 하고 가면 저희는 그분을 통해서 정말 큰 지혜도 얻고, 인생의 여러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원래 제가 성격이 굉장히 냉소적인데 구술을 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시골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한국사회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구나, 이분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남녀노소 어떤 직업이시든 간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거기서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 2020.07.21.(화) 18:00~20:00 정혜경 선생님 특강 부분 발췌본입니다. 구술이란 무엇인가? 잘 듣는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습니다.